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시각지능	하이퍼이지 AI 구루
게이머리퍼블릭 구스랩스 드로미 레졸루션 리티브 메라커 비주얼캠프 스튜디오랩 스튜디오 프리월루션 시티아이랩 오노마에이아이 아이텍솔루션 에이브노틱스 에이아이다이콤 위시 클레버러스 트리플렛 파이미디어랩 파리리코 펫페오텍 포디아이비전 피아스페이스	범용 인공지능 그라운드원 네이션에이 넛룩스 모빅랩 바비디 바이브에이아이 쓰리알이노베이션 어크로스비 에이엠스퀘어 인절미 주피터랩스 카이어 캐치플로우 데디섬 투와이 툰스퀘어 틸다 피노랩 필로토

언어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데이터비 보다비 스웨번즈 아드바크	굿앤와이즈 브이다임 블라스트 스타일에이아이

음성지능	로보틱스
더플랜지 마고	매크로엑트 별따러가자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데이터 가공	의료 인공지능
맞추다 바이브존 에스앤이컴퍼니 에스앤피랩 에이뉴트 온잇코리아 웍스비 임팩티브시 큐빅 크로프트 농업법인회사 트라이피프티 플라스크	클라우드 더블유닷에이아이 디아비전 디어젠 리틀켓 모닛 비트리스 프리베노틱스
	인공지능 프로세서
	에임퓨처

서울시 조성 세계적 인공지능 분야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오픈했다. 2023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의 기술 자원, 연구 역량, 개방형 혁신 연구 문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SEOUL AI STRA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서울 AI 허브 2024

SEOUL AI STRATUP 100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끄는 서울 AI 허브 그 중심에는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SEOUL AI STRA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서울시 헌법 2024

SEOUL AI STRA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서울 AI 허브 2024

서울 AI 허브 소개

서울 AI 허브 센터장 인터뷰	10
서울 AI 허브 센터 소개	16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시각지능

실시간 게임 코칭해주는 AI 게이머리퍼블릭	24
비전 AI 기술로 신개념 홈트 앱 만든 구스랩스	28
드론·위성 기반의 AI 공간 솔루션 만든 드로미	32
비전 AI로 반도체 회로 불량 검사 자동화 레졸루션	36
센서 없이 앱 하나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 리티브	40
AI로 안과 질환 진단하는 휴대용 안과 카메라 개발 메라커	44
AI 시선 추적 기술 퍼스트무버 꿈꾸는 비주얼캡츠	48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 30초 만에 자동 생성 돕는 스튜디오캡	52
고비용 영상 제작 AI로 해결하는 스튜디오 프리월루션	56
AI 영상 분석으로 도로 분석해 교통 정보 제공 시티아이랩	60
웹툰 스토리 기획부터 그림까지 AI로 돕는 오노마에이아이	64
교육 콘텐츠 디지털 전환 돕는 아이텍솔루션	68
소형 물체 특화 비전 AI로 바다 네비게이션 만든 에이브노틱스	72
AI 기반 홀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아바타 구현 에이아이다이콤	76
카메라만으로 다인 3D 마커리스 모션 캡처 솔루션 제공 워시	80
AI 영상 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리스	84
성별,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AI 카메라로 분석해주는 트리플렛	88
공장 내 사람·중장비 실시간 추적하는 AI 카메라 개발 파이미디어랩	92
생체 이식 고통 없이 반려견 신원 등록 돕는 파이리코	96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행동·건강 분석하는 AI 펫캠 서비스 펫페오텍	100

AI 3D 비전 센서로 무인화 솔루션 제공 포디아이비전	104
멀티모달 AI 활용한 CCTV 솔루션 제공하는 피아스페이스	108

언어지능

언제 어디서나 원어민 같은 영작 실력 돕는 데이터비	114
세일즈 성과 올리는 대화 분석 서비스 개발 보다비	118
소비자 검색 키워드 AI로 분석해 마케팅 인사이트 제공 스웨번즈	122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오답 선지까지 만드는 AI 아드바크	126

음성지능

AI 캐릭터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영어회화 학습 앱 개발 더플랜지	132
AI 기반 음성 분석 기술로 정신건강 관리 마고	136

데이터 가공

효율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만드는 맞추다	142
좋아하는 가수의 옷차림, 무대 검색하면 이미지 찾아주는 바이브존	146
농산물 작황부터 가격까지 AI 예측 시스템 에스앤이컴퍼니	150
보안 걱정 없는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저장 플랫폼 제공 에스앤피랩	154

데이터 품질 검수와 고속 검색으로 AI 모델 성능 최적화 에이뉴트	158
AI 알고리즘으로 이사·화물 운송 최적화 플랫폼 개발 온잇코리아	162
클릭으로 간편하게 구인·구직 최적 매칭 돕는 웍스비	166
AI 수요 예측으로 재고 관리 돕는 임팩티브시	170
의미 유지·안전 보장된 보안 합성 데이터 생성 큐빅	174
온실 최적화 솔루션으로 농업 패러다임 변화 나선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	178
소프트웨어 개발·기획 돕는 트라이피프티	182
3D 애니메이션 제작 장벽 낮춘 플라스크	186
3D 모델 데이터 기획부터 공급까지 지원 하이퍼이지	190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구루	194

범용 인공지능

건축물 에너지 사용 분석해 효율 최적화 그라운드원	200
맥락 이해해 생성형 AI로 모션 데이터 만드는 네이션에이	204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개 SW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넵룩스	208
초음파 음향 데이터로 제조 설비 고장 진단·예측 모빅랩	212
AI와 머신러닝으로 기업 맞춤형 직원 교육 플랫폼 제공 바비디	216
AI 디버닝 플랫폼으로 초개인화 상품 개발 돕는 바이브에이아이	220
AI로 청소년 주의력·정신건강 케어해주는 쓰리알이노베이션	224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 제공하는 어크로스비	228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AI 모델 성능 관리 에이엠스퀘어	232
게임 미션처럼 수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선보인 인절미	236
동대문 패션 데이터로 최적의 물류 솔루션 제공하는 주피터랩스	240
클릭 한 번으로 비전문가도 AI 구축하는 플랫폼 제공 카이어	244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대중화 나서는 캐치플로우	248
한국어 특화 LLM으로 글쓰기 자동 평가 지원 테디쌤	252
AI·AR 활용해 인테리어 자재 가격 거품 해소한 투와이	256
누구나 AI 크리에이터 될 수 있는 툰스퀘어	260

예측 알고리즘으로 기업 비즈니스 의사 결정 최적화하는 틸다	264
AI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만든 피노랩	268
AI 앱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 돕는다 필로토	272

지능형 에이전트

생성형 AI로 수능 국어 학습 돕는 굿앤와이즈	278
팬과 소통 가능한 실감형 AI 버추얼 만드는 브이다임	282
기업 맞춤형 AIOps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업무 효율화 돕는 블라스트	286
디자이너부터 모델까지 만들어주는 패션 AI 스타일에이아이	290

로보틱스

자율로봇으로 24시간 실버 케어 플랫폼 개발 매크로엑트	296
IoT 접목 모빌리티 종합 안전 서비스 구현한 별따러가자	300
인건비 80% 절감하는 주방 로봇 개발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304

의료 인공지능

AI로 구강 데이터 분석해 보철물 제작 지원 글라우드	310
초음파 이미지로 인공유방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닷에이아이	314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개인 생체 데이터로 질병 분석·관리 디아비전	318
AI로 화합물 결합 예측해 신약 개발 돕는 디어젠	322
데이터로 반려동물 건강·복지 향상 리틀갯	326
유아부터 노인까지 기술로 케어하는 모닛	330
다중 오믹스 데이터 분석으로 신약 개발 돕는 비트리스	334
AI로 암 예방·관리 돕는 프리베노틱스	338

인공지능 프로세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하는 AI 칩 솔루션 에임퓨처	344
---------------------------------------	-----

서울 AI 허브



서울 AI 허브 소개

서울 AI 허브 센터장 인터뷰
서울 AI 허브 센터 소개



인터뷰
스타트업 육성
AI 생태계 구축의 필수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

서울 AI 허브는 ‘스마트업 기반의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서울 양재 일대를 AI 특구 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서울 AI 허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산학연 협력 핵심 앵커시설이 건립된 후 국가 AI 연구거점, AI 글로벌 연구협력센터, 공군 AI 신기술융합센터, 카이스트 AI 대학원 등이 입주하며 기업, 기관, 학교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박찬진 센터장은 “서울 AI 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AI 기술 혁신 및 연구 지원, 스타트업 경영 및 인프라 지원, 투자 매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창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 AI 산업 융합 등의 추진에 힘쓰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 AI 허브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었다.

‘AI+X 융복합 인재 육성 전문가 교육(이하 AI+X)’과 글로벌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AI+X는 AI 기술 적용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X에 특정 산업이 반영되는 방식이다. 특히 수강생 기준이 해당 산업의 전문가들이어서 실질적인 AI 융복합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로봇, 헬스케어를 진행했다.

글로벌 연계 사업은 7개 기업을 선정해서 캐나다 밀라연구소에 보내 연구 협력을 지원했다. 해당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법인을 세웠고 밀라연구소에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서울 AI 펠로우’도 진행했다. 국내 AI 분야 교수들과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의 AI 소사이어티와 함께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들에게 문제 해결이나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수를 지원 받았다.

가령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연구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실제 이 경우 많은 기업이 몰리기도 했다. 헬스케어와 로봇 분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헬스케어의 경우 서울 AI 허브에 들어온 서울대병원 국가특화연구소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는 서울 AI 허브의 지원사업이 좀 많아지고 주도적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들에는 서울 AI 허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과 학계, 기업과 기업의 연계로만 끝이 나는데 서울 AI 허브는 이러한 성과를 오픈해서 입주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도 투자 연계, 교육, 연구 지원 등 창업 지원 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물론 AI 특화 프로그램, 글로벌 연계 등의 사업과 결합시켜서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을 육성했다. 그 사이 기업들도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띄는가.

“이곳에 입주해 계속 성장해온 기업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기업도 있다. 초창기보다 기술 발전은 물론 비즈니스화도 많이 이뤄낸 것 같다. 큐빅이라는 기업을 예로 들면 합성 데이터를 서비스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인데 투자사를 선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선 추적 기술 전문 기업 비주얼캠프의 경우 서울 AI 허브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모두 이뤄냈다. 피아스페이스는 멀티모달 AI 기술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인데, 싱가포르 차이공항, 쿠팡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좋은 아이디어뿐 아니라 기술력도 상당 수준이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AI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과 비교하면 아직 스타트업 환경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투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투자가 많이 줄기는 했다. 투자자들이 돈 되는 기업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매출을 발생하려면 시리즈 B, C 단계일 텐데 허브에 있는 기업을 비롯해 아직 많은 스타트업이 프리 A나 시리즈 A일 것이다. 이는 기술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리즈 A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을 믿으려면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예상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AI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더 정확히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LLM)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더 발전하고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투자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는 기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LLM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 전에 개발 및 상용화됐던 AI 기술이 과거의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바꿔 말하면 LLM이 과거의 AI 기술을 대체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술 영역은 다르다. 기존에 반도체와 같은 제조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들, 불량 검출 자동화 기술, 고장 예측 기술 등은 해당 산업에 전문화돼 있고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해주기 때문에 LLM과 같은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LLM은 지식 기반으로 학습된 기술 영역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AI가 아니다.



AI의 발전 방향은 두 기술의 접목이다. 기존 AI 기술 위에 LLM이 붙으면서 좀 더 쉽게 지능화된 형태로 각 산업 영역에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LLM을 발전시키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산업에 특화된 AI 기술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서울 AI 허브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생성형 AI 관련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령 입주 기업을 평가할 때도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생성형 AI 관련 교육을 만드는 등 최근 AI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AX(AI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을 평가하다 보면 내부에 AI 조직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향후 1~2년 안에 직원을 채용해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40%가량 된다. AI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AI를 도입해 지금의 서비스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사실 평가 기준으로만 보면 선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허브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들은 AI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AI 멘토링,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seoulaihub.kr

BUSINESS MILESTONE

- 2024** 서울 AI 허브 핵심 앵커시설 개관
(2021.5. 착공~2024.1. 완공)
- 20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AI 연구원)-ETRI
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민간 위탁) 선정 (~현재)
- 2021** 육성·지원 AI 기업 누적 매출액 및 투자유치액
각 2,000억 원 초과 달성
- 2020**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ETRI 컨소시엄 운영기관
선정
- 2019** 허브 AI 기업 지원 공간 추가 조성
- 2017** KAIST 산학협력단-(주)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
최초 운영기관(민간 위탁) 선정

KEY ACHIEVEMENT

360+ 개사 AI 기업 육성·지원

4,492 억 원 매출

3,903 억 원 투자 유치

5,369 명 인재 양성

약 **1.5** 조 원 기업 가치

* 2024년 하반기 기준

CORE BUSINESS

기술 지원

기술 혁신·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

- AI Seoul Fellow / AI 전문가 디렉토리 운영
- AI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 AI 스타트업 연계 AI 전환(AI)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스타트업 성장·인적 네트워크 지원

-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 서울 AI 허브 기업 네트워킹 / 글로벌 인재 채용

투자 연계

민간 투자 촉진·기술 사업화 매칭·글로벌 진출

- AI 글로벌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서울 AI 허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창업 활성화·인재 양성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

- AI+X 교육 / AI 콘퍼런스 / AI 청년 창업팀 육성
- AI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 AI 반도체 설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



서울 AI 허브 하이브랜드 입주기업

구스랩스	동작 인식 기술 기반 메타버스 홀트 앱 개발
굿앤와이즈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문해력 서비스(SaaS)
그라운드윈	비전 기술과 공간 정보를 융합한 3차원 공간 DX, 비용 절감 BIM 솔루션
넷록스	Cloud Native Edge AI 개발
레졸루션	PCB 육안 검사 자동화를 위한 AI 비전 솔루션
마고	카세트: 감정을 있는 AI 플랫폼
맞추다	수험생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분석해 합격 기간을 단축하는 에듀테크 서비스
별따라가자	모빌리티 안전 관리 AIoT 시스템과 핀테크 연계 서비스
블라스트	누구나 쉽게 구축 가능한 RAG
스타일에이아이	이미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상품 기반 패션 스타일 추천 서비스
아드바크	AI로 영어 문항 출제 전 과정을 대체하는 큐파일럿
아이텍솔루션	AI 기반 교육 콘텐츠 디지털라이징을 위한 OCR 개발
에스엔피랩	On-Device PDS 기반 마이데이터 1인 마켓플레이스 앱 서비스
에이브노틱스	AI 기술을 이용한 선박 자율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큐빅	차등 정보 보호 기술을 통한 데이터 가공 및 매매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	AI 스마트 온실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클레버러스	엣지 디바이스와 AI를 활용한 낙상 예방, 탐지 모니터링 솔루션
트리플렛	AI 영상 분석 기반 매장 분석 시스템, 개인화 상품 추천 AI 키오스크
파이미디어랩	스마트팩토리 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카메라 생산 및 솔루션
펫페오텍	도기보기: AI 기반 반려동물 모니터링 솔루션
필로토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 교육을 돕는 AI 모바일 앱
하이퍼이지	지능형 3D 에셋 공유 플랫폼 서비스

서울 AI 허브 앵커시설 입주기업

네이션에이	생성 AI 기반 3D/4D 데이터 SaaS
에임퓨처	NPU IP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외식 산업 등의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위한 서비스 로봇 및 제어 기술
피아스페이스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검색 및 저작권 관리 서비스

서울 AI 허브 한국교총 입주기업

모닛	AIoT 기반 노인환자 스마트 케어 시스템 개발
모빅랩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서비스 (설비 이상 감지 솔루션)
바비디	커뮤니티 기반 AI 모델 개선
보다비	세일즈 대화 AI 분석 기술 및 서비스
비트리스	팬오믹스 기반 정밀 의료 솔루션 플랫폼 개발
어크로스비	AI 기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통합 물류 플랫폼 서비스
에이뉴트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품질 검증 자동화 플랫폼
온잇코리아	화물 운송 경로 최적화 및 AI 배차 추천 서비스
위시	Vision AI 기반 3D 모션 캡처 솔루션 개발
인절미	미성년자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및 게임형 AI 건강 관리 서비스
투와이	B2B 인테리어 솔루션 인버즈
틸다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비효율적 설비 제어를 대체하는 AI 제조설비 최적화 솔루션
플라스크	AI 기반 3D 콘텐츠 제작 툴 및 플랫폼

서울 AI 허브 앵커시설



서울 AI 허브 한국교총



서울 AI 허브 회경빌딩 입주기업

게이머리퍼블릭	실시간 게임 코칭 AI 서비스
글라우드	디지털 덴티스트리 자동화 저스트스캔
뉴메스	경량화된 전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한 업무 정확도 및 처리 속도 향상 서비스
더블유닷에이아이	AI 기반 유방보형물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더플랜지	지속 가능한 자기 주도형 AI 기반 영어교육 솔루션
데이터비	생성형 AI 기반 영문 교정, 패러프레이징, 번역 서비스
드로미	딥러닝 및 공간 정보 기반 도로위 차량 이미지 자동 제거 솔루션
디아비전	질병 발병 위험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낮추어주는 디지털 백신 개발
디어젠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 플랫폼 개발
리틀캣	반려동물 생체 정보 빅데이터 기반 AI 질병 예측 서비스,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리티브	AI 기반 스포츠 데이터 분석 및 공유 플랫폼
매크로엣	로봇 자율제어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한 홈 로봇
메라커	AI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바이브에이아이	AI 딥러닝 행동 패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SaaS 플랫폼 서비스
바이브존	팬덤 중심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
브이다임	Generative AI 아바타 생성 솔루션 및 AI 아바타 기반 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비주얼캠프	AI 기반 시선 추적(Eye-Tracking)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웨번즈	AI 기반 실시간 입찰, 셀프 서브 광고 구매 플랫폼
스튜디오랩	상세페이지 및 브랜드 디자인 자동화 솔루션, 자동 촬영
스튜디오프리뷰러전	생성형 비디오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서비스
스트럭팀	비용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는 Document-AI 기반 AI-Assistant
시티아이랩	Vision Transformer 모델 기반 비정형 다각도 교통 AI 영상 분석 솔루션
쓰리아이노베이션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케어 사업자들의 치료 효과 개선 솔루션
에스앤이컴퍼니	빅데이터 및 AI 가격 예측 기반 못난이 농산물 선도거래 플랫폼
에이아이구루	제조업 제조지능화 지원을 위한 AI 컨설팅 및 솔루션

에이아이다이콤	머신비전 및 AI 분석 기술을 이용한 의료 영상 분석 플랫폼
에이엠스퀘어	AI 모델의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 및 SW 솔루션
오노마에이아이	투톤: 1인 웹툰작가를 위한 기획부터 선화까지 돕는 AI 기반 보조 서비스
웍스비	AI 기반 최적의 조합 매칭
임팩티브에이아이	AI 기반 신제품 예측 및 제품 수요 예측 시스템
주피터랩스	도소매 상품 통합 관리 및 운영 혁신 솔루션 워빙 개발
카이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AI 기반 결함 자동 검출 소프트웨어 개발
캐치플로우	카메라 영상 딥러닝을 통한 사용자 인식을 활용한 지향성 스피커 개발
테디썸	한국어 특화 생성형 AI 언어 모델 기반 도메인 특화 AI 언어 모델 서비스
툰스퀘어	AI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과 웹툰 창작 SaaS
트라이피프티	LLM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SaaS 서비스 런치바운드
파이리코	모바일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생애주기 이력 관리 솔루션
포디아비전	무인화 공장을 위한 3D 로봇팔 랜덤 빈피킹 솔루션
프리베노틱스	AI 기반 전암 진단 기술
피노랩	AI 기반 워터 추천 서비스 워터소물리에, AI 기반 소셜 금융서비스 피노퀀트 개발

서울 AI 허브 회경빌딩



STARTUP 에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게이머리퍼블릭	아이텍솔루션
구스랩스	에이브노틱스
드로미	에이아이다이콤
레졸루션	위시
리티브	클레버러스
메라커	트리플렛
비주얼캠프	파이미디어랩
스튜디오랩	파이리코
스튜디오 프리월루전	펫페오텍
시티아이랩	포디아이비전
오노마에이아이	피아스페이스

실시간 게임 코칭해주는 AI

게이머리퍼블릭

게이머리퍼블릭은 2020년 10월에 설립된

실시간 게임 코칭 AI 서비스 운영 기업이다.

AI로 게임을 실시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 코칭을 제공한다.

시드 투자 1억 원을 유치했다. 틱스(TIPS) R&D에 선정됐다.

기업명

게이머리퍼블릭

대표자명

류지원

주요 제품(서비스)

스택업지지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엣지 컴퓨팅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statup.gg

GAMER REPUBLIC

게이머리퍼블릭의 솔루션 이야기

게이머리퍼블릭은 실시간 게임 코칭 인공지능 서비스 스탯업지지(STATUP.GG)를 글로벌에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스탯업지지는 실시간 게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 코칭을 제공하며 경기 후 피드백리포트로 사용자의 실력 향상을 돕는다. 게임화면 인식 AI, 게임화면 인식 AI 학습 데이터 생성 시스템, 멀티 소스 다변수 데이터 분석, 게임 콘텍스트와 사용자 수준에 맞춰 생성된 코칭 콘텐츠, 다국어 지원 파이프라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게이머리퍼블릭의 차별점

게이머리퍼블릭은 6조 원 규모의 전 세계 게임 코칭 시장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람에 의한 1:1 코칭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높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게이머리퍼블릭의 스탯업지지는 ‘실시간 게임 코칭 AI 서비스’로서 규모를 확장하기 수월하며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실시간 게임 코칭 서비스는 STATUP.GG가 유일하다. 이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게임 보조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통해 유사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스탯업지지는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국가인 유럽 시장에서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및 일본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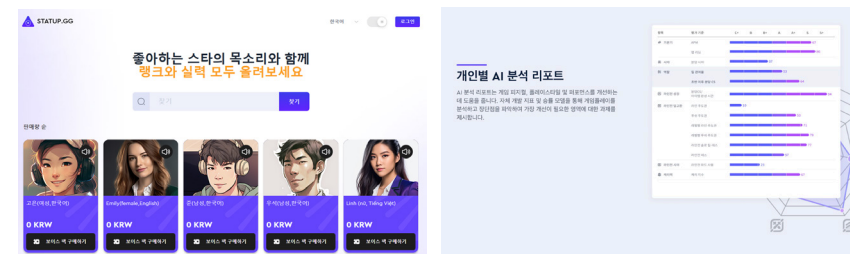
게이머리퍼블릭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탯업지지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코칭 글로벌 테스트 서비스를 10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들의 74%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향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도타2(Dota2) 같은 유사 장르 게임은 물론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같은 슈터 장르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AI 게임 코칭 기능을 자사의 게임에 탑재하기 바라는 게임제작사와 협력해 게임 안에 인공지능 게임 코칭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B2B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게임사는 게임을 다 만든 이후 튜토리얼 제작에 사용하는 몇 달의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고 게임을 시장에 좀 더 빠르게 내놓을 수 있게 될 거란 설명이다.

2년 내에 글로벌 100만 MAU(월간활성이용자수), 0.5% 유료 고객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게임별 플레이어의 10%를 MAU로 확보하는 것과 유료 고객 전환율을 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게이머리퍼블릭의 솔루션 ‘스탯업지지’ 이미지
(사진 제공 : 게이머리퍼블릭)



비전 AI 기술로
신개념 홈트 앱 만든

구스랩스

구스랩스는 홈트레이닝(홈트) 앱
'피바(FIVA)'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비전 AI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11월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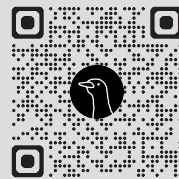
기업명
구스랩스

대표자명
이서희

주요 제품(서비스)
피바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시각지능



gooselabs.io



메타버스 홈트 앱 '피바'

피바는 동작 인식 아바타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운동하는 메타버스 홈트 앱이다. 카메라 영상에서 동작을 인식하는 비전 AI 기술과 실시간 아바타 모션 캡처 기술, 동작 일치도 비교 기술 등이 활용된다. 특히 동작 일치도 비교 기술의 경우 2개의 동작을 비교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분석하는 기술로, 구스랩스는 통상의 기술과 다르게 동작의 세기와 타이밍까지 비교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피바는 실시간으로 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서비스들은 줌 미팅에 참여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켜고 같이 운동하는 형태였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특히 홈트 주요 소비층인 2040 여성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피바는 비전 AI를 활용해 동작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센서가 필요 없다. 콘솔 플랫폼에 종속되는 링피트와 닌텐도 위와 달리 피바는 카메라만 있으면 어떤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 장비나 기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오로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구스랩스의 성과

구스랩스는 CES 2024, SPOEX 2024, STK 2024 등에 참가해 피바 앱을 적극 알렸다.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충남대 카이스트 공동 연구 과제인 '젊은 당뇨인을 위한 자가간호 플랫폼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당뇨 관리를 위해 운동치료와 더불어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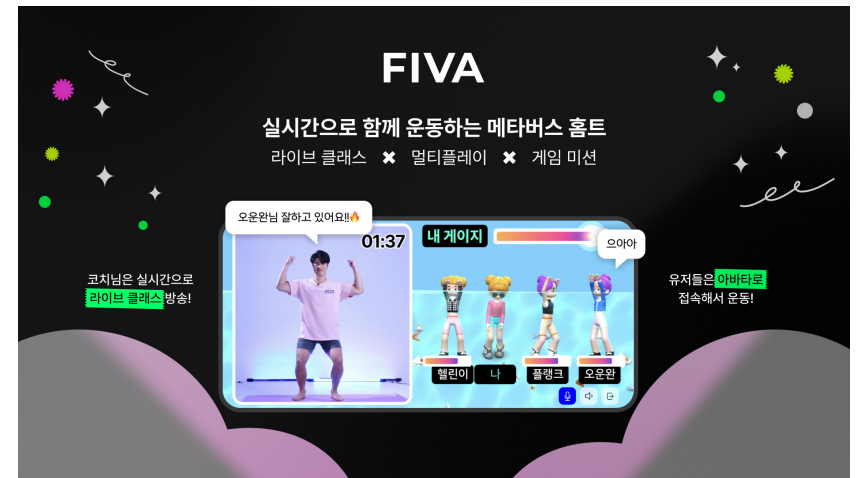
구스랩스의 전망

구스랩스는 운동을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런칭하고 유저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댄스 게임(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리듬 게임)에 대한 파트너십과 유저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스랩스는 피바가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TV, 키오스크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적 장벽이 낮은 피트니스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해외 전시 및 당사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해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스랩스의 홈트 앱 '피바'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구스랩스)



드론·위성 기반의
AI 공간 솔루션 만든

드로미

드로미는 드론·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 데이터 수집과 고객의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AI 모델을 적용해 최적의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17년 9월 설립했다.

기업명
드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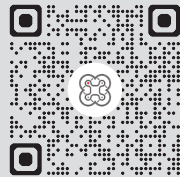
대표자명
이승호

주요 제품(서비스)
K-AQUAS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엣지 컴퓨팅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보안 및 프라이버시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 강화학습 · 머신러닝



new.dromii.com



**AI 기반 공간 데이터
전문 기업
드로미 이야기**

드로미는 드론과 위성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DaaS(Drone as a Service)는 드론 영상으로 만든 2D/3D 및 360 파노라마 결과를 활용해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석 결과와 리포트를 간편한 URL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DTM(Drone Traffic Mapper)은 드론을 활용해 도로 모니터링 및 다양한 객체 인식/추적을 통한 교통 모니터링 솔루션이며, CfSM(Car-free Street Map)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도로 이미지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제거해 깨끗한 도로 지도를 제작하는 솔루션이다.

AfGG(Auto-labeling 5G Geo-spatial Information HDS Map)는 DTM을 사용해 도로 표시(이중 황색 선, 횡단보도, 정지선 등)에 자동으로 레이블을 지정하거나 위험 요소(포트홀, 균열 등)를 자동 감지하고 정량화해 정확한 도로 정밀 안전지도(HDS Map)를 제작하는 솔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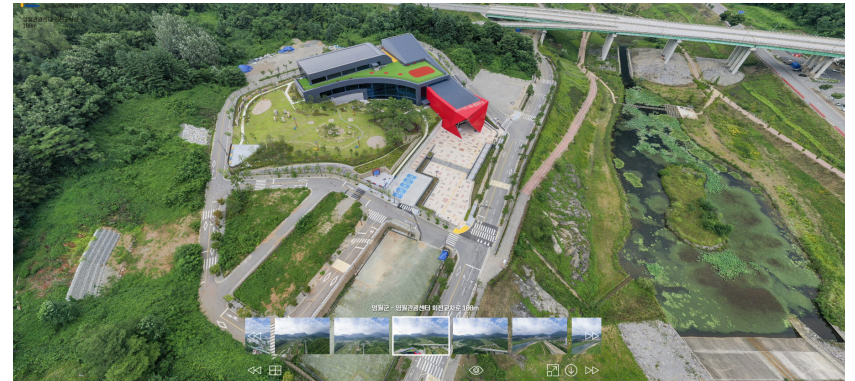
K-AQUAS는 GeoAI 기반의 댐 유역 하천 관리 시스템으로 위성·항공·드론 및 연계 데이터를 활용해 수질 및 토지 오염, 불법 경작지 관리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물산업에 적용되는 AI의 경우 물산업 이해 부족 및 AI 이해 부족 때문에 현실성이 다소 부족한 서비스를 제안되고 있다. 드로미는 환경 및 물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GeoAI의 전문성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드론 운영 및 데이터 전/후 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더욱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용도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드로미의
차별점**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이 자동으로 제거된 도로 지도를 제작했고, 2023년에는 드론 센서를 통한 자동 객체 탐지 및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통해 야간에 위험지역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드로미의 DaaS 적용 이미지 (사진 제공 : 드로미)



**드로미의
성과 그리고 미래**

드로미는 K-AQUAS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장 답사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토지피복도, 하천 주변 오염원 탐지, 불법 경작지 탐지, 수질 모니터링, 우선 관리지역 선정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AI 기반의 안전 보행공간 정보 플랫폼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휴대용 라이더 장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 중심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면도로(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의 위험성 분석,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보도턱, 균열 있는 보도블럭 파악 등의 구체적인 플랫폼 기능을 구상하고 있다.

비전 AI로 반도체 회로
불량 검사 자동화

레졸루션

레졸루션은 시각 인공지능(비전 AI)을 기반으로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4년 8월 설립했다.
1억 5,000만 원의 프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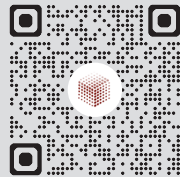
기업명
레졸루션

대표자명
김혁

주요 제품(서비스)
REX1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rexolution.ai



딥러닝 기술로 미세한 불량까지 잡아내는 'REX1'

레졸루션의 PCB 자동 검사 솔루션 REX1의 핵심 기술은 '초해상도(Super Resolution, SR)'와 '소형 객체 탐지(Small Object Detection, SOD)'다. SR은 저해상도 영상을 초고해상도로 복원하는 딥러닝 기술이다. PCB 제조와 같이 미세한 영역의 식별을 돕는다.

SOD는 불량 데이터를 1만 건가량 확보하고 딥러닝을 기반으로 불량 제품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기술이다. PCB 외관 불량 검사에 활용된다. 레졸루션은 이전에 의료산업에서 실증 검사를 거친 SR 및 SOD 기술을 반도체 제조 산업으로 확장했다.

학습 시간, 오류 최소화해 불량 검사 장비·인력 대체

기존 회로 검사 장비는 규칙 기반(Rule-based) 방식을 적용해, 입력된 사례 내에서만 불량을 탐지했고 오류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했다. 반면 REX1은 딥러닝 기반 검사 방식으로, 별도 학습이 불필요하고 검사 오류를 최소화했다. 기존 장비에는 육안 검사자가 추가로 투입돼야 했지만 REX1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레졸루션은 국내 방산용 PCB 전문 업체 현장 라인에 장비를 설치하고 실사용을 시작했다. 그 결과 검수 시간이 기존 대비 44% 줄고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불량 제품까지 검출해냈다.

레졸루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레졸루션은 현재 국내 3개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내 추가로 2곳과 PoC(개념 증명)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베트남 진출까지 노리겠다는 포부다. 2026년까지 베트남 현지 전자 인증(CR인증)을 취득하고 2027년에는 중국 시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불량 데이터를 1만 건 확보해 신제품 'REX2'를 출시할 예정이다. REX2가 출시되면 단순 작업자 검사 보조를 넘어 인라인 장비까지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PCB 불량 검사 장비 'REX1'
(사진 제공 : 레졸루션)

센서 없이 앱 하나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

리티브

리티브는 인공지능·클라우드 기반
스포츠 데이터 플랫폼 '바스탯(Bastat)'을 개발했다.
회사는 2022년 1월 설립했다.

기업명
리티브

대표자명
김지훈

주요 제품(서비스)
바스탯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시각지능



litiv.net



스포츠 영상 분석 특화 플랫폼 '바스탯'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은 선수나 경기의 미흡한 부분을 잡아내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티브는 별도 센서 없이 영상만으로 스포츠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바스탯은 AI를 통해 스포츠 데이터를 기록,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다.

바스탯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는 실내 체육관에서 경기를 즐기는 아마추어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경기 영상 촬영, 하이라이트 장면 제공, 전광판 정보 오버레이 처리 등이 포함된다. 경기 관련 숏폼 클립 영상 생성도 지원한다.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팀을 대상으로는 기본 서비스에 경기 영상과 기록을 연계하고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수 구별 어려운 경기 영상을 클릭 한 번으로 분석·편집

스포츠 경기 영상은 일반적 영상에 비해 유니폼 등으로 선수 구별이 어려워 분석이 까다롭다. 또한 카메라 앵글 상 경기 중 선수들이 서로 가리는 장면이 발생해 통상적인 기술로는 선수 추적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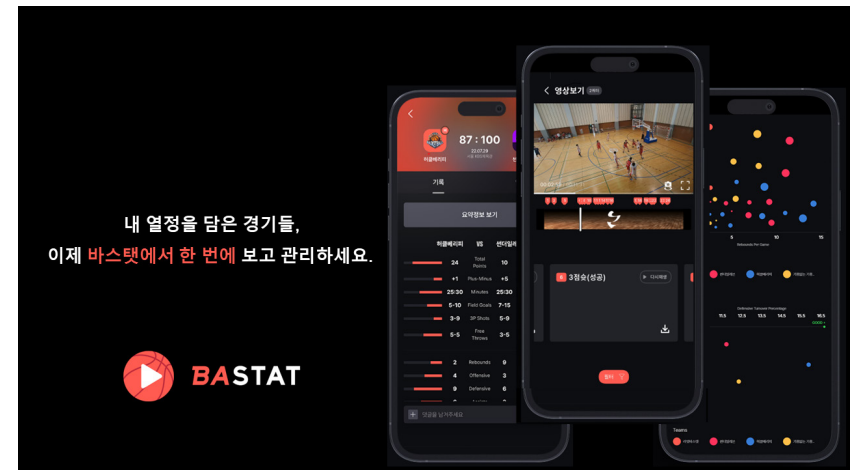
리티브는 스포츠 경기 영상에 특화된 영상 처리 파이프라인 기술을 고안했고 한국 및 미국에서 해당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바스탯은 제휴 체육관에 설치된 공용 장비와 AI 및 클라우드 기술이 집약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들은 바스탯 앱을 이용해 클릭 한 번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를 감상하고 원하는 장면을 숏폼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

리티브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바스탯은 사용자가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 등 번거로운 작업을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등 새로운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선수들 기록 관리 등을 지원 중이다.

리티브는 지역별 거점 실내체육관들과 제휴를 맺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추어 및 유청소년 대회 운영진이 기록을 진행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 데이터를 영상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바스탯'의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 : 리티브)



AI로 안과 질환 진단하는
휴대용 안과 카메라 개발

메라커

메라커는 인공지능 기반 자체 영상특수효과(VFX)
기술을 활용해 안저 카메라와 영상 렌더링 가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3년 11월 설립했다.
현재(2024년 10월)까지 1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메라커

대표자명
김선권

주요 제품(서비스)
AI 안과 카메라
QuuP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엣지 컴퓨팅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 머신러닝



meraker.co.kr

Meraker

눈 질환 잡는 휴대용 안과 카메라와 화질 높여주는 고속 렌더링 SW ‘QuuP’

메라커는 자체 AI 카메라 센서 기술로 눈의 수정체와 망막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안과 카메라를 개발했다. 사람과 외부 서버와의 연결 없이 AI 센서가 자체적으로 병을 진단하고 높은 품질의 안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영상 렌더링 AI 소프트웨어인 QuuP는 렌더링을 가속화하고 해상도를 높여준다. 기존 영상 저작툴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툴을 배울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렌더링 결과물을 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작업으로 고화질 렌더링을 할 수 있다.

휴대용 AI 카메라로 실명 질환 진단

휴대용 AI 안과 카메라는 하나의 제품에서 백내장 진단을 위한 세극빔 현미경 촬영과 망막질환 진단을 위한 망막 촬영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이다. 기존 안저 카메라는 안구 뒷부분의 망막질환만 진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라커의 제품은 실명 유발 안질환 선별 진단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백내장 등 실명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렌더링 가속화 AI인 QuuP는 영화, 드라마 2K 렌더링 결과물을 4K 렌더링 결과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기존 영상 렌더링 과정의 시간과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존 VFX 작업 루틴을 변경하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렌더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라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휴대용 AI 안과 카메라는 캄보디아와 국내 병원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렌더링 가속화 AI는 국내 대형 스튜디오와 함께 연구 개발 중이다. 향후 안과 카메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렌더링 효율화를 넘어 새로운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솔루션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메라커의 AI 안과 카메라 (사진 제공 : 메라커)



(주)이루다, (주)메라커 공동개발

AI 시선 추적 기술
퍼스트무버 꿈꾸는

비주얼캠프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 기반
시선 추적 기술의 글로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모바일 시선 추적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를 교육 분야에
접목해 학생들의 문해력 진단·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기업명
비주얼캠프

대표자명
석윤찬

주요 제품(서비스)

리드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visual.camp



비주얼캠프의 솔루션 이야기

시선 추적 기반 읽기능력 솔루션 리드는 학생이 지문을 읽을 때 시선 패턴을 시가 분석해 학생별 최적의 트레이닝 코스를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AI 코스웨어다.

비주얼캠프의 차별점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내재된 전면 RGB 카메라를 활용해 시선 추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크롬, 엣지, 웨일 등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기존의 특수 제작된 시선 추적장치(Eye-Tracker)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하드웨어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대규모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바일 시선 추적 기술 시장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최근 출시된 애플의 시선 추적 기술(2.5도) 대비 더 높은 정확도(1.55도)를 제공하고 1-point 시선보정(Calibration)이 가능해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비주얼캠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주얼캠프의 기술력은 CES 2022, 2023 혁신상과 MWC 스페인 모바일 혁신부분 수상 등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리드 포 스쿨’의 진단 및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어교육과 교수진과 협력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본 대학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연구해 문해력 진단검사인 ‘RoCAT’(READ Computerized Actualized Testing)를 2024년 7월에 출시했다.

비주얼캠프는 이러한 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리드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언어권의 문해력 증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시선 추적 기반 읽기능력 솔루션 ‘리드’
(사진 제공 : 비주얼캠프)



온라인 커머스 상세페이지
30초 만에 자동 생성 돕는

스튜디오랩

스튜디오랩은 온라인 셀러를 위해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자동 생성하는 '셀러캔버스(Seller Canvas)'와
사진 촬영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포토봇(Photobot)' 등
커머스 콘텐츠 자동 생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6월 설립해 삼성벤처투자·스프링캠프의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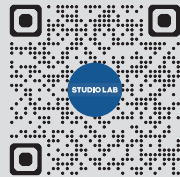
기업명
스튜디오랩

대표자명
강성훈

주요 제품(서비스)
셀러캔버스
포토봇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도구 및 플랫폼



studiolab.ai

STUDIO LAB

온라인 셀러 위한 페이지 자동 생성 AI 툴 ‘셀러캔버스’

스튜디오랩의 셀러캔버스는 이미지와 간단한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30초 정도 만에 상세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형(SaaS) 솔루션이다.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LLM)인 GPT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상세페이지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돕는다.

셀러캔버스는 지금까지 대략 5일 정도 걸리던 상세 페이지 제작을 30초 내외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해 사진 레이아웃 배치부터 제품 설명 문구 작성, 상세페이지 디자인까지 모두 자동화한 점이 특징이다.

포토봇은 사진 촬영 서비스에 지능형 로봇틱스를 결합한 AI 로봇이다. 상품 사진 촬영 과정의 90% 이상을 자동화하고 프로 사진작가를 대신해 스스로 촬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피사체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찾고 카메라 옵션값을 자동 조정할 수 있으며 로봇암과 자율주행부를 이용해 원하는 배경에서 어떠한 구도로도 촬영할 수 있다.

스튜디오랩의 차별점

스튜디오랩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고비용 저효율의 커머스 콘텐츠 제작을 90% 이상 자동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셀러캔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즉시 사용 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토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구도로 자동 촬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피사체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AI 기술과 패션 제품 태그 기술이 적용돼 움직이는 모델부터 대형 가전제품, 소형 주얼리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촬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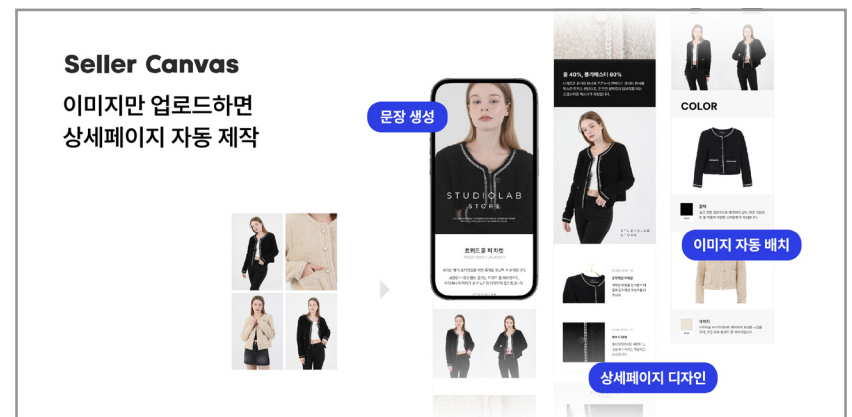
스튜디오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자동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하는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튜디오랩은 2021년 6월 설립돼 삼성벤처투자 및 스프링캠프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기업 졸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2024년에는 ‘CES 2024’ AI 부문 최고혁신상과 e커머스피칭페스타 대상 등을 수상했다. 셀러캔버스는 국내외 패션 대기업들과 PoC(개념 증명) 진행 및 계약 등의 실적을 거뒀고 포토봇도 더현대 서울 개점 3주년 기념 콜라보 팝업을 진행한 바 있다.

스튜디오랩은 연내 셀러캔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패션 산업군을 넘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머스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스튜디오랩의 페이지 자동 생성 AI 툴 ‘셀러캔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스튜디오랩)



고비용 영상 제작
AI로 해결하는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은
AI 영상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고비용을 요구하던 촬영,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I 비디오 기술로 대체한다.
회사는 2023년 6월 설립했다.

기업명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자명
권한솔

주요 제품(서비스)
고퀄리티 AI 영상 제작 서비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studiofreewillusion.com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의 솔루션 이야기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의 솔루션은 기존에 고비용이 요구되던 촬영, CG 작업을 AI 비디오 기술로 대체한다. 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AI 모델을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력, 고퀄리티 AI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은 자체 효과음 생성 AI 모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쳐진 AI 모델을 개발했다. T2I, I2V 등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AI 영화, AI 광고, AI 컨셉티저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의 차별점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은 AI 솜품을 만드는 대중적인 시장과 달리 영화, 드라마, 광고 등 하이엔드 영상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고퀄리티 AI 영상을 제작한다. 다수의 AI 영상 결과물 실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공서 및 대기업 AI 광고 제작,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 및 관객상 2관왕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 받았다. AI 아티스트라는 신직군과 AI 개발자들로 이뤄진 유니크한 팀 구성이 장점이다.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은 최근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관객상 2관왕 등 다수의 국내 및 해외 영화제에 진출했다. 캐나다 퀘백주 스타트업 데이 1위, 서울대학교 벤처투자학회 SNAAC 4기 우수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캐나다 AI 연구소 밀라(Milla)와 연구협력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AI 특허 1건 등록, 상표권 9건 출원, PCT 1건 출원 등의 성과도 거뒀다. 2024년 상반기 AI 콘텐츠 제작 매출액은 누적 3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향후 스튜디오 프리월루전은 AI 콘텐츠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이엔드 AI 영상 제작사로서의 1위를 유지하며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AI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채널(AI-Kive)을 개발해 AI 서비스 위키화 및 커뮤니티화를 넘어 AI를 활용한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로서 스케일업을 한다는 포부다.

AI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채널(AI-Kive)
(사진 제공 : 스튜디오 프리월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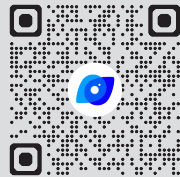


AI 영상 분석으로 도로 분석해
교통 정보 제공

시티아이랩

시티아이랩은 인공지능 기술과 교통공학을 융합해
도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문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1월 설립했다.
2억 1,000만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시티아이랩
대표자명
정종우
주요 제품(서비스)
시티아이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cityeyelab.com

 **CITYEYELAB**

**AI 영상 분석 기술 활용
도로 교통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시티아이’**

시티아이랩이 개발한 시티아이(CITYEYE)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도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검지기와 육안에만 의존했던 도로 교통량 조사를 AI 영상 분석 기술로 효율화했다. 다양도 AI 모델을 적용해 각기 다른 각도, 높이, 화질의 영상에서도 차종, 보행자, 자전거 등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다.

**다양도 AI 모델로
모든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객체 감지**

기존 AI 영상 분석의 경우 고정된 CCTV로 특정 환경에서만 분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시티아이는 다양도 AI 모델로 분석할 수 있는 영상 범위가 넓고 서로 다른 영상에서도 같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시티아이랩은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나아가 신호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데이터 생성 위주의 기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집 결과를 실제 신호 운영에 적용할 목적이다.

**시티아이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시티아이랩은 도로 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을 사용해 전국 3000개 지점에 대해 매년 교통량 조사를 수행 중이다. 도로 차량 통행량 분석 데이터도 엔지니어링 업체 요구 사항에 맞춰 가공해 납품하고 있다.

도로 교통 정보 수집 플랫폼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1차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IP CCTV 주소 및 녹화 영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 특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매장, 자율주행 분야까지 사업 모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로 교통 정보 수집뿐 아니라 교통 전략 시뮬레이션 및 자율주행 인프라 관제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시티아이’ 플랫폼을 통한 도로 교통 정보 분석 화면 (사진 제공 : 시티아이랩)



웹툰 스토리 기획부터
그림까지 AI로 돕는

오노마에이아이

오노마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플랫폼
'투툰(TooToon)'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2년 2월 설립해 현재(2024년 10월)까지
10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오노마에이아이
대표자명
송민
주요 제품(서비스)
투툰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tootoon.ai



ONOMA.AI

AI 기반 콘텐츠 제작·판매 플랫폼 ‘투툰’

투툰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을 위한 종합 창작 생태계를 제공한다. 패블레이터(Fabulator), 엠포리엄(Emporium), 아티팩스(Artifex), 아니마(Anima) 등 총 네 가지 기능으로 구성됐다. 각 기능은 창작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패블레이터는 사용자가 제공한 키워드로부터 줄거리, 시놉시스, 캐릭터 시트 및 전체 시나리오와 같은 글짓기 요소를 AI 알고리즘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제작된 캐릭터 시트는 엠포리엄에서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다.

아티팩스는 텍스트 설명과 참조 이미지를 섬세한 선화로 변환해 창작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마는 사용자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고품질 풀컬러 일러스트를 생성해 웹툰 등 콘텐츠 제작의 토대를 제공한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스토리부터 이미지 생성과 거래까지 지원

기존 플랫폼들은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생성 등 각 과정을 분리해 따로 수행했다. 투툰은 네 가지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속적인 창작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이야기 생성, 고품질 일러스트 제작 등 콘텐츠 창작을 지원해 작품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였다.

투툰은 작품 활동뿐 아니라 창작물 거래도 지원한다. 엠포리엄은 사용자가 캐릭터 모델을 맞춤 설정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글로벌 거래 및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창작자들은 투툰에서 협업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오노마에이아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오노마에이아이는 2024년 CES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인공지능 부문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외 20여 개 웹툰 스튜디오와 협업 중이며 대표적으로 LG U+의 ‘타로’ 작품이 투툰을 활용해 총 16화 분량으로 제작됐다. 2025년 초에 엠포리엄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며 웹소설 원천 IP 제작 서비스인 ‘크레아티오’도 같은 해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투툰은 1인 웹툰작가도 작품을 연재할 수 있도록 돕거나 웹소설 원작을 웹툰 형태로 바꾸는 AI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나아가 웹툰 및 일러스트레이션에 특화된 고유 멀티모달 AI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AI 기반 웹 콘텐츠 제작·판매 플랫폼 ‘투툰’
(사진 제공 : 오노마에이아이)



교육 콘텐츠 디지털 전환 돕는

아이텍솔루션

아이텍솔루션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디지털라이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핵심 솔루션은 'Qn.AI'다.
회사는 2014년 9월 설립했다.

기업명
아이텍솔루션
대표자명
유양상
주요 제품(서비스)
Qn.AI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시각지능



qnai.io

iTeXSolution™

낙서는 빠고 텍스트와 수식만 정확히 인식하고 편집까지 지원 'Qn.AI'

디지털라이징 솔루션인 Qn.AI는 비정형 교육 콘텐츠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등을 한번에 인식하고 편집한다. 형식에 무관하게 필기로 입력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집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해준다.

Qn.AI는 낙서가 포함된 지저분한 원본형 시험지도 활자 부분만 정확히 인식하고 로마·이탤릭체, 대·소문자 등 섬세한 문서 인식을 지원한다. 인식과 동시에 수식과 텍스트를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GUI(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에디터를 제공한다. 인식·편집한 결과물은 한글, 워드 문서로 변환할 수 있다.

복잡한 비정형 교육 콘텐츠 디지털화를 AI 문자 인식 기술로 극복

수학식 인식이 가능하면서 비정형 교육 콘텐츠를 편집 가능한 문서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국내외를 통틀어 Qn.AI가 유일하다. 교육 콘텐츠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식, 복잡한 콘텐츠 레이아웃 문제를 AI 기반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로 극복했다. Qn.AI는 스냅샷, 스캔 이미지, PDF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인식과 편집을 지원한다는 강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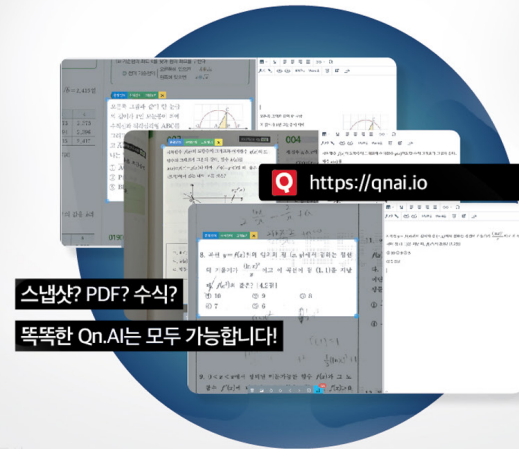
아이텍솔루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이텍솔루션의 수학식 필기 인식 기술은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에 공식 채택됐다. 같은 해 국내 교육업체와 함께 400만 문항 이상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했다. 회사는 완전한 교육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실시간 문서 변환부터 대규모 DB 구축까지 Qn.AI의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를 진행 중이다.

교육 콘텐츠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

Qn.AI

한번에 텍스트, 수식, 그림, 표, 글박스를 인식하는
세계 최초, 수학 문항 Full-Text OCR



iTeXSolution™

아이텍솔루션의 'Qn.AI' 이미지
(사진 제공 : 아이텍솔루션)

소형 물체 특화 비전 AI로
바다 네비게이션 만든

에이브노틱스

도로에서 네비게이션 교통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항해 안전 서비스가 필요하다.

에이브노틱스는 AI 기반 센서를 활용한 항해 안전 정보
시스템인 '코나(CON.AR)'와 'ChatSea'를 개발했다.

회사는 2023년 2월 설립했다.

기업명
에이브노틱스

대표자명
박진형

주요 제품(서비스)
코나
ChatSea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aivenautics.com



AI 기반 ‘코나’로 선박 탐지하고 ‘ChatSea’로 알려줘

에이브노틱스의 핵심 제품군은 B2B 모델을 가진 코나와 B2C 모델을 가진 ChatSea다. 코나는 항해 지원 시스템 제조사, ChatSea 앱은 레저보트 소유자, 해기사, 해운선사를 주 고객으로 한다.

코나는 소형 선박을 주 대상으로 한 타깃 인식 및 추적 시스템이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융합해 자율운항을 지원한다. 대형선 대비 타깃을 추적하기 까다로운 소형 선박을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극복했다. 장거리, 소형 물체 식별에 특화되어 트레이닝된 코나의 비전 AI는 레이더가 지정하는 영역에 집중해 선박과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다.

코나는 탐지한 항해 안전 정보를 다른 선박에게 공유할 수 있다. 공유되는 항해 안전 정보는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한 서비스가 ChatSea다. 세계 최초 국제 표준 기반 항해 전용 개방형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으로, 전 세계 선박들이 안전한 데이터 교환망을 제공한다.

바다 위 티맵 만드는 에이브노틱스

AI를 기반으로 하는 코나는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전 시스템보다 27% 이상 향상된 탐지율과 104% 이상 증가한 탐지거리를 보인다. 야간, 안개 등의 상황에서도 항해자에게 높은 타깃 인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ChatSea 앱은 실제 항해에 나서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지만 그 서버는 전체를 고객으로 한다. ChatSea 서버는 코나와 코나를, 코나와 ChatSea 앱 간에 항해 안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도로 교통 안전 서비스와 같이 육상에서 제공하는 항해 안전 정보의 전달 수단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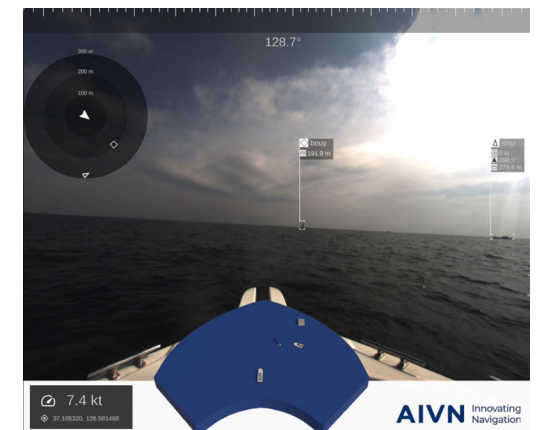
에이브노틱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에이브노틱스는 2024년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컴업 스타(COMEUP Stars) 2024 루키리그 100대 기업, 수자원공사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기업에 연달아 선정되며 같은 해 서울 AI 허브에 입주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8개국(한국,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ChatSea 서버 설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에이브노틱스는 ChatSea 서버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4년 안에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후에 2025년 상반기 ‘코나 나이트 네비게이션’ 버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는 2025년 연말까지 코나 풀버전 출시를 완료하고, ChatSea 앱 30만 다운로드를 목표하고 있다. 이후 2027년까지 코나 풀버전으로 매출 57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에이브노틱스의 항해 안전 정보 시스템
‘코나’ 활용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이브노틱스)



AI 기반 홀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아바타 구현

에이아이다이콤

에이아이다이콤은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홀로그램으로 반려동물의 가상 아바타를 구현하는
장치 '소울큐브(SoulCube)'를 개발한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7월 설립했다.

기업명
에이아이다이콤

대표자명
윤종현

주요 제품(서비스)
소울큐브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시각지능



aidicome.com

iCOMe
에 이 아 이 다 이 콤 (주)

3D 홀로그램 반려동물로 사실적인 상호 작용 ‘소울큐브’

소울큐브는 최첨단 홀로그램 메모리얼 장치로, 반려동물의 3D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반려동물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AI로 특성과 외모를 분석한 생동감 넘치는 맞춤형 가상 아바타를 생성한다.

얼굴 인식과 비접촉 제스처 인식 기술을 결합해 가상 반려동물과 상호 작용도 할 수 있다. 소울큐브가 전면 카메라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반응한다. 다양한 제스처를 개발해 놀아주기, 먹이 주기, 놀리기 등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이는 실제 생전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듯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활용된다.

단순 기억 넘어 반려동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AI 가상 아바타

소울큐브는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AI 기반 맞춤형 가상 아바타로 더욱 현실감 있게 반려동물을 추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의 정적인 추모 방식과 달리 상호 작용성을 더해 사용자가 직접 반려동물과 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활동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접촉 제스처 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동작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감정적 유대감까지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보관을 넘어 반려동물의 존재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솔루션으로써 역할한다.

에이아이다이콤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에이아이다이콤은 2024년 11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울큐브를 출시할 예정이다. 초기 제품 출시 이후 시장 피드백을 반영하고 제품을 개선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다. 반려동물 추모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및 제품군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자사 의료 AI 기술을 활용한 측정 프로그램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및 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의료 기기 인증을 받을 것이라는 목표다. 해당 프로그램을 반려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 상태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D 홀로그램 기반 반려동물 가상 아바타 생성 기기 ‘소울큐브’
(사진 제공 : 에이아이다이콤)



카메라만으로 다인 3D 마커리스
모션 캡처 솔루션 제공

위시

위시는 영상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 관제, 다인 모션 캡처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회사는 2023년 5월 설립했다.

기업명

위시

대표자명

황현

주요 제품(서비스)

위모션

위비전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자연어처리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도구 및 플랫폼
- 시각지능 • 음성 및 언어지능



**AI 무인 관제
'위비전'과
마커리스 모션 캡처
'위모션'**

위시의 핵심 제품은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위비전과 실시간 마커리스 모션 캡처 위모션이다. 위비전은 AI로 CCTV 영상을 분석해 24시간 무인 관제를 수행하는 솔루션이다. 위모션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같이 카메라로 얻은 비정형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3D 모션 캡처를 제공한다.

**카메라와 PC만으로
정밀 모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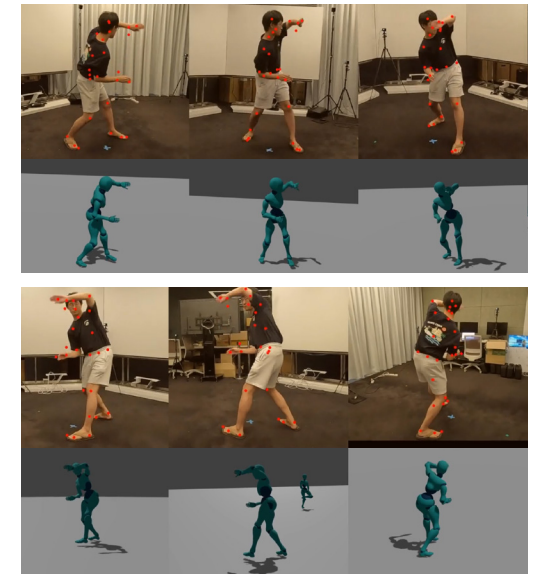
위시의 차별점은 실시간·비실시간 3D 모션 추정 기술에 있다. 기존 모션 캡처는 배우들이 고가의 마커 슈트(Marker Suit)를 입고 특정 환경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해야 해 번거로운 작업으로 꼽힌다. 위모션은 일반 카메라 몇 대와 AI PC 1대만 있으면 구동이 가능하다. 별다른 장비나 의상이 불필요해 3D 모션 캡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위모션은 카메라 등 비전 센서를 통해 얻은 비정형 영상 데이터 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 내 이를 영상 분석 AI로 정형화한다. 실시간 모션 추정은 최대 10인까지 동시에 모션추정이 가능하며, 순수 추정 FPS가 초당 30프레임으로 부드러운 시각적 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 비실시간 정밀 모션 추정은 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사람별 양 손과 얼굴을 포함한 100여 개의 인체 포인트를 설정하고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보정해 프레임 간 동작을 부드럽게 잇는다.

**위시의
성과 그리고 미래**

위시는 이미 상품화가 완료된 위비전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위모션을 고도화해 상품 레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위비전은 현재 5곳 이상에 납품했으며 향후 거대 언어 모델(LLM)이 접목된 CCTV 영상 분석 솔루션 고도화 프로젝트를 고객사와 함께 진행하며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다. 위모션은 현재 버튜버와 함께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등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향후 타깃을 확장해 영화, 드라마, 게임 제작 등에도 진출하겠다는 목표다.

위시는 자사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분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1곳과 파트너십을 맺어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간 마커리스 모션 캡처
'위모션' 구현 이미지
(사진 제공: 위시)

AI 영상 처리로
위험 예방하는
클레버러스

클레버러스는 인공지능 영상 처리 전문 기업이다.
2022년 7월 설립해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상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특허 2건도 등록했다.

기업명
클레버러스

대표자명
배현재

주요 제품(서비스)
Be:Clever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엣지 컴퓨팅
• AI 연구 및 개발



cleverus-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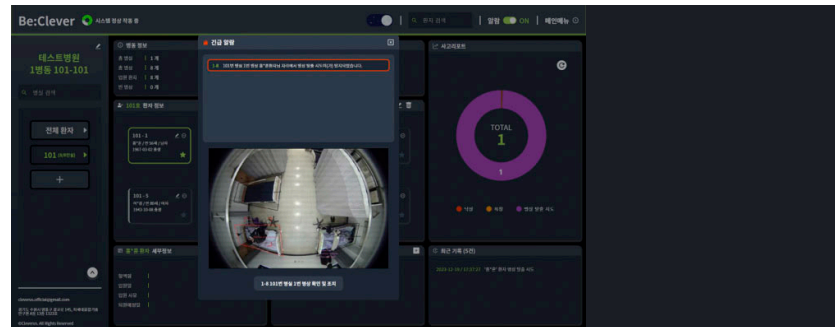


클레버러스의 솔루션 이야기

클레버러스는 엣지 디바이스와 AI를 활용한 지능형 이상탐지 및 예방 솔루션 Be:Clever를 운영하고 있다. 어안렌즈 및 소형 AI PC(엣지 디바이스) 설치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행동 AI 분석으로 관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고가의 서버가 아닌 소형 AI PC로 비용 부담을 줄였고 간편한 설치를 통해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다. 제품 1대당 최대 4곳의 관리 영역을 관리할 수 있다. 비전 AI를 활용해 간호사 혹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알람이 울리지 않는 등의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클레버러스의 차별점

클레버러스는 이상 행동 탐지뿐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어안렌즈 데이터셋을 80만 장 구축했다. 어안렌즈에 자체 데이터 증강기법을 적용해 행동인지 AI를 다양한 배경 및 환경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제한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는 소형 AI PC(엣지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AI 모델 크기는 3분의 1, 전력 소모는 50%까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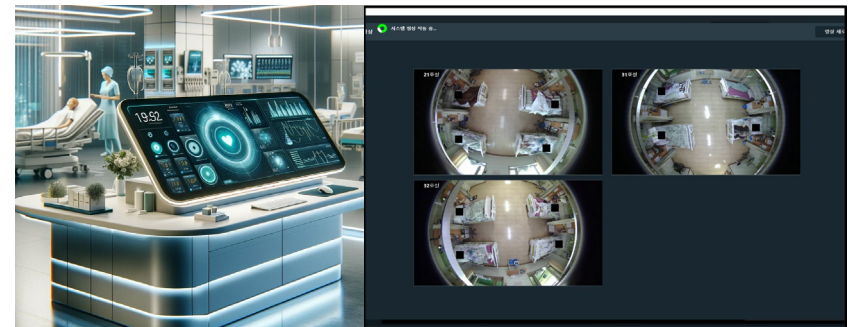
클레버러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클레버러스의 솔루션은 현재 경상북도 포항 세명기독병원, 경기도 수원시 S서울병원, 경기도 수원시 성루카요양원 등 기관 규모별로 다양한 환경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2024년도 K-헬스 국민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AI 융합 시제품(서비스) 제작 기업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클레버러스는 비전 AI 전문 기업으로 솔루션 납품을 진입장벽이 높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추가 도입을 진행해 매년 전년 대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능형 CCTV를 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1차 시장은 의료기관, 2차 시장은 시니어 케어, 3차 시장은 소방청·경찰청과 같은 재난안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I를 활용해 범죄예방(배회,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이상 행동 탐지 및 예방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며 치매 노인과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의료 AI 환자 보조 및 진단 솔루션으로는 R&D 과제를 진행하면서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클레버러스의 실시간 이상 행동 모니터링 CCTV 관제 영상
(사진 제공 : 클레버러스)



성별,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AI 카메라로 분석해주는

트리플렛

트리플렛은 AI 카메라 영상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5년 5월 설립해 시드 투자 5억 원을 유치했다.

기업명
트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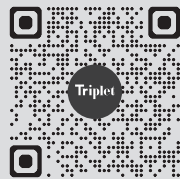
대표자명
신동화

주요 제품(서비스)
딥라운지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엣지 컴퓨팅
- 보안 및 프라이버시
- 시각지능



triplllet.com

Triplett

공간 분석 솔루션 ‘딥라운지’

트리플렛의 핵심 기술은 성별·연령 및 동선 추적 AI 인식 기술이다. 딥라운지(DeepLounge)는 이를 기반으로 한 AI 공간 분석 및 안전 관리 솔루션이다.

딥라운지는 특히 유통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성별, 나이를 AI 카메라가 인지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소비 행동을 분석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간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고객 얼굴 정보는 합성곱 신경망(CNN) 모델로 익명화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도 해결했다.

딥라운지의 AI 공간 분석 기술은 상업시설, 공장 등의 안전 관리에도 적용된다. 화재·연기·기름 유출을 탐지하고 근로자의 이상 행동(쓰러짐, 폭행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감지하는 식이다. 상황 발생 시 연결 기기를 통해 관리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해 사고 대응력과 안전성을 높인다.

트리플렛의 차별점

트리플렛은 5년간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납품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용 AI 모델을 구축했다. 일반적인 상업적 매장뿐 아니라 리조트 내 비디오아트 전시장처럼 넓고 복잡한 실내 공간과 외부 환경 영향이 큰 야외 공간의 솔루션도 상용화했다.

공인인증기관 시험과 대기업 유통사의 교차 검증으로 밝혀진 트리플렛의 솔루션 정확도는 92%에 달한다. 다양한 행동과 상황을 범용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대형 멀티모달 모델(LMM) 기반 AI를 도입해 추가 학습 필요성도 최소화했다.

트리플렛은 현재 GS칼텍스, GS리테일, 현대푸드넷, 한라산국립공원 등 현장에 딥라운지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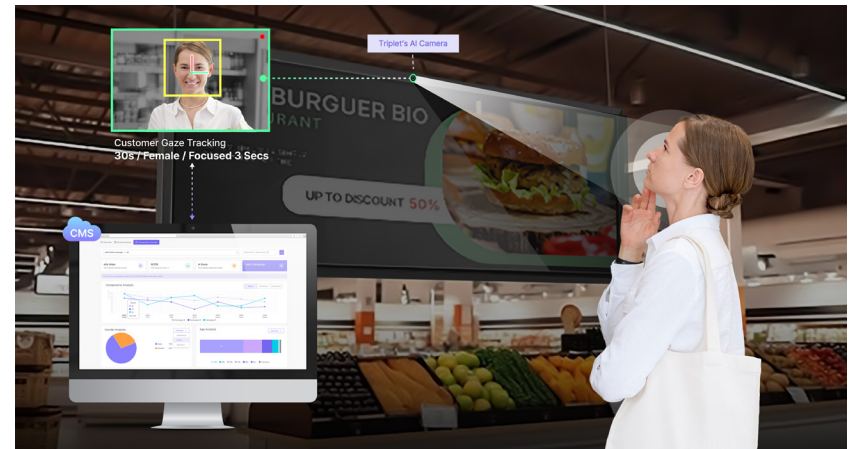
트리플렛의 성과 그리고 미래

트리플렛은 향후 자사 솔루션을 도입할 산업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리테일·패션, 공공시설(도서관, 국립공원) 분야에서 정유, 팝업스토어, 박람회 및 전시장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예정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눈앞이다. 현재 트리플렛은 미국 공간 솔루션 업체인 라이팅 인바이런먼트(LE)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LE의 기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과 트리플렛의 공간 분석 AI를 결합한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사 신규 솔루션인 오프라인 타겟광고 AI도 올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성과 기반 광고 CMS 플랫폼이다. AI 카메라가 부착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광고 효과를 분석해 타겟 고객에 맞는 제품 광고 전략을 지원한다. 2023년 국내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PoC(개념 증명)을 진행해 기술을 검증 받았고 연내 도입을 논의 중이다.

트리플렛의 ‘딥라운지’ 오프라인 타겟 광고 AI 이미지
(사진 제공 : 트리플렛)



공장 내 사람·중장비
실시간 추적하는 AI 카메라 개발

파이미디어랩

파이미디어랩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카메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6월 설립해 틱스(TIPS)
프로그램으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파이미디어랩

대표자명
여병상

주요 제품(서비스)
CAI safe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엣지 컴퓨팅 · 시각지능
· 머신러닝



paimedialab.com

lai media lab

객체 위치 탐지로 작업 현장 내 안전 상황 모니터링 'CAI safe'

파이미디어랩의 핵심 제품은 작업 환경 내 객체 위치 감지에 특화된 카메라 CAI safe다. AI 기반 2D 래핑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나 로봇 중장비 등 객체들의 위치를 마커나 센서 부착 없이 카메라로만 측정할 수 있다. 한 번의 프로세싱으로 최대 16대의 카메라를 병합해 시각지대를 없애고 실시간으로 작업 현장 내 객체들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카메라로만 오탐지율과 사각지대 최소화

CAI safe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마커나 센서 없이 객체 위치를 오차 범위 5cm 이내로 실시간 추적하며 동일한 객체를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Re-ID(재식별) 기술을 개발해 현장의 특정 인원, 설비를 관찰할 수 있다. 작업자와 중장비의 위치와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해 관리자에게 알람 기능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작업자별 ID를 부여해 신체 일부만 보여도 위치 추정이 가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강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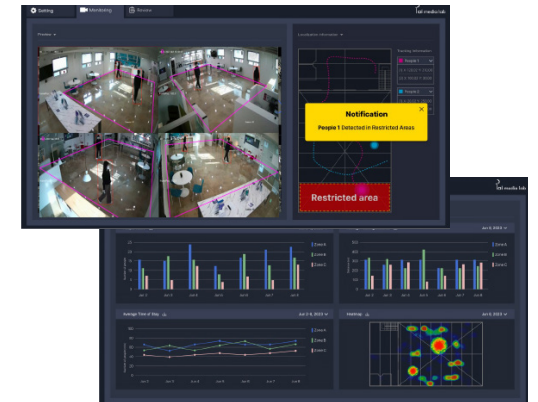
딥러닝 기술로 오탐지율도 최소화한다. 오탐지 데이터를 관리자 계정내 폴더로 자동 분류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고리즘이 재학습을 자동 진행한다. CAI safe는 온디바이스 카메라 세트로 별도 서버 구축없이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공기질, 온도도 측정 역시 가능하다.

파이미디어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파이미디어랩은 기업이 제공하는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오탐지가 없는 실용적인 운영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CAI safe의 핵심 알고리즘과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성능 인종과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실제 현장 데이터 60만 건을 학습시켜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 센터 제조 현장 내 120여 대가 적용 중이다. 2025년부터는 북미, 유럽 진출을 목표로 마케팅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객체 위치 탐지 기반 작업 현장 내
안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CAI safe'
(사진 제공 : 파이미디어랩)



생체 이식 고통 없이
반려견 신원 등록 돕는

파이리코

사람의 홍채, 지문 인식과 달리 동물을 대상으로는
생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파이리코는 비문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18년 9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파이리코
대표자명
양이빈
주요 제품(서비스)
아이디코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AI 연구 및 개발



pireco.org



모바일 비문 인식 기반 간편 동물 등록 서비스 '아이디코'

파이리코의 핵심 제품은 모바일 비문 인식 기반 간편 동물 등록 서비스 아이디코(ID:CO)다. 비문은 강아지마다 고유한 코주름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반려견은 흥채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획득할 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인식 기술로 비문을 자동 검출하고 신원 인증까지 할 수 있다.

아이디코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강아지의 얼굴과 코 부분을 촬영하면 알고리즘이 코주름이 잡히는 순간을 포착해 비문을 인식한다.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이후 카메라를 갖다 대면 곧바로 지문을 포착하는 식이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코주름으로 생체 이식 칩 대체

기존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몸에 심거나 목에 거는 인식 칩으로 객체를 식별했다. 강아지의 비문을 인식할 수 있으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정보를 등록하고 객체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생체 이식 고통 없이 강아지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기견과 분실된 강아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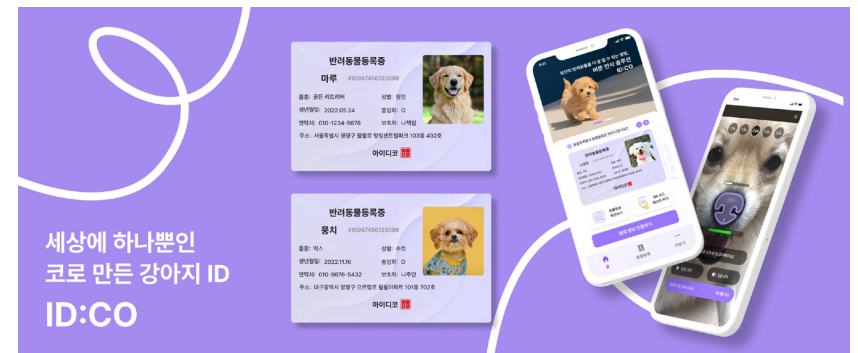
파이리코는 수백만 장의 강아지 코주름 이미지를 분석해 객체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비문 범위와 해상도를 규정했고 세계 최초 반려동물 생체 인식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 이후 2024년부터 동물 등록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파이리코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이디코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간편 동물 등록 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마리가량의 동물이 등록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향후 동물등록제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비문 인식 기반 동물 등록 사업을 활성화한 후 영업망을 글로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비문 인식 기술을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형태로 제공해 반려동물 업계 플랫폼 및 보험사와 펫보험 가입 인증, 멤버십 인증 등 신원 인증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 비문 인식 기반 간편 동물 등록 서비스 '아이디코'
(사진 제공 : 파이리코)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행동, 건강 분석하는 AI 펫캠 서비스

펫페오톡

펫페오톡은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행동 인식·분석 모니터링 플랫폼 ‘도기보기’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2019년 1월 설립했다.
5억 8,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펫페오톡

대표자명
권륜환

주요 제품(서비스)
도기보기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시각지능



dogibo.ai

petpeotalk'

스마트폰 공기계로 반려동물 심리와 건강까지 모니터링하는 ‘도기보기’

도기보기는 반려동물에 특화된 펫캠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공기계를 CCTV로 활용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감지했을 때만 녹화한다. 도기보기는 영상 분석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기보기는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짖음 감지(Barking detection), 자세 추정(Pose estimation)으로 구성된 3가지 AI 모델을 활용해 반려동물 행동을 인식한다. 현재 짖음, 빙글빙글 도는 행동, 굶는 행동 등 11가지 행동 인식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분리불안 및 슬개골 탈구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홈캠 넘어 AI로 소통, 질병 관리 돕는 특화 서비스

원격으로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펫캠 서비스는 시중에 많다. 하지만 기존 홈캠 서비스 수준인 경우가 많다. 도기보기는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에만 특화했으며 행동을 인식해 질병 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CCTV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주인과의 소통을 도와주고 동물이 안정감을 느끼는 ‘도기사운드’ 기능 등으로 원격 케어까지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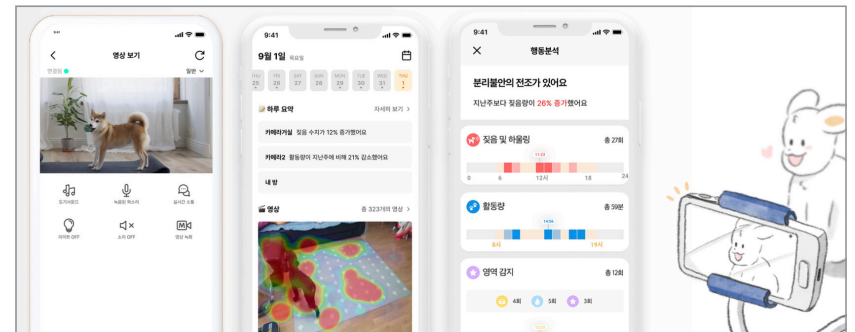
스마트폰 공기계나 태블릿을 활용하기에 기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높였다.

펫페오톡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도기보기의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13만 건, 2023년 출시한 유료 플랜 구독자는 1,600만 명에 달한다. 펫페오톡은 현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수익 전환을 달성하고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도기보기 전용 캠 등 IoT 디바이스 라인업 확장을 통해 북미 및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도 겨냥하고 있다.

펫페오톡은 향후 펫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기존 분리불안증 및 슬개골 탈구 케어를 개선하고 피부병 질환 케어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펫 헬스케어 영역에서 확보한 경쟁력으로 펫보험 및 동물병원과 연계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반려동물 행동 인식 및 분석 모니터링 플랫폼 ‘도기보기’ 모바일 앱 화면
(사진 제공 : 펫페오톡)



AI 3D 비전 센서로
무인화 솔루션 제공

포디아이비전

제조업계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완전 무인화 공정을 위한 고정밀 정확도와 시각지능을 갖춘 로봇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디아이비전은 이러한 로봇팔에 장착되는 온센서 AI 기반 3D 스캐너 '테세라뷰(TesseraVue)'를 개발했다. 회사는 2023년 8월 설립했다.

기업명
포디아이비전

대표자명
이희공

주요 제품(서비스)
테세라뷰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엣지 컴퓨팅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시각지능



4division.co.kr



4DiVISION

온디바이스 AI 기반 3D 스캐너 '테세라뷰'

포디아이버전은 광학 기반 3D 센서와 로봇 및 공장 자동화를 위한 시각지능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핵심 제품인 테세라뷰는 물체 표면을 3차원으로 고정밀 스캔해 로봇 팔 랜덤 반피킹 솔루션, 표면 불량 검출 솔루션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별다른 PC나 연산장치 없이 배경 구분이 힘든 대상 표면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제어 자동화와 형상 및 표면 불량 검사에 활용된다.

딥러닝 학습 모델 장착한 1kg짜리 3D 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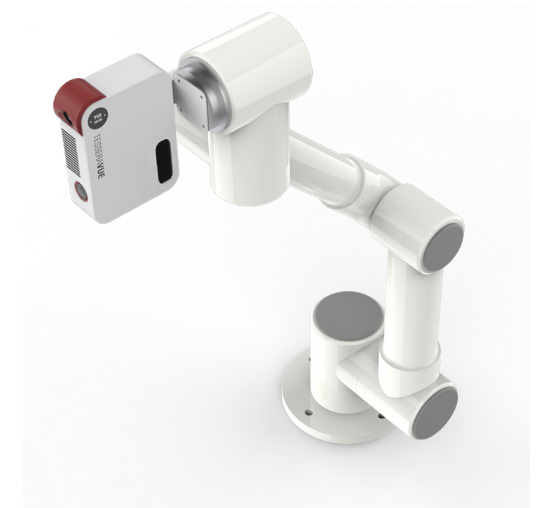
테세라뷰는 무게 1kg 내외의 구조광 방식의 3차원 스캐너로 로봇팔에 장착해 작업이 가능하다. 광학 기구부를 모듈화함으로써 가시광 외에도 근적외선, 자외선을 이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딥러닝 학습 모델을 내장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객체 인식 기능 및 불량 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정 과정의 시간과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내장해 실시간 연산 처리로 초당 2번의 스캔이 가능하다. 3D 포인트클라우드 연산과 2D 영상의 결합으로 대상체 인식 및 포즈 계산을 센서 내 결과만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해 PC 없이 제어한다. 때문에 설치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통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디아이버전의 성과 그리고 미래

포디아이버전의 2D 및 3D 센서 기술은 자동화 공정뿐 아니라 철도·도로 표면 안전 검사, AI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부대 출입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24년까지 누적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고, 70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주했다. 향후 포디아이버전은 중소 규모 공장에 보급된 로봇팔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공장의 무인화 공정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층 확장에도 열심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세계적 AI 연구기관인 밀라(Mila)와 소형 거대 언어 모델(sLLM) 특화 무인 자동 행위 생성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비전문가도 로봇팔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 로우코딩 툴을 제공해 차별점을 도모할 방침이다. 향후 노코딩 툴을 개발해 일반인도 로봇 프로그래밍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 폭넓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온디바이스 AI 기반 3D 스캐너
'테세라뷰'를 로봇팔에 장착한 모습
(사진 제공 : 포디아이버전)

멀티모달 AI 활용한
CCTV 솔루션 제공하는

피아스페이스

피아스페이스는 멀티모달(Multi-modal)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사는 2021년 4월 설립했다.

34억 3,000만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피아스페이스

대표자명
유현수

주요 제품(서비스)
MACS

사업 분야
시각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AI 도구 및 플랫폼
• 시각지능



pia.space



멀티모달 AI 기반 CCTV-영상 분석 솔루션 'MACS'

피아스페이스의 주요 솔루션은 MACS(Multi-modal AI for CCTV Safety solution)다. MACS는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CCTV에 찍힌 영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MACS는 영상을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시각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한 프롬프트와 유사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폭력, 흡연, 위험 상황 예측, 중장비 간섭, 범람, 화재, 쓰러짐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자동 경고한다. 솔루션은 API, 클라우드 서버, 온프레미스 등으로 연동해 사용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잡은 솔루션

기존 컴퓨터 비전 AI 기반 지능형 CCTV 솔루션은 탐지 가능한 상황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일부 사람이 직접 관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MACS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도입해 이러한 탐지 오류 및 미탐지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이다.

피아스페이스는 MACS에 언어지능과 영상인식지능을 융합한 멀티모달 AI 모델을 활용해 상황 분석 수준을 향상시켰다. MACS는 추천 시스템 성능 평가에서 오픈 AI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가격 경쟁력도 이점이 있다. 기존 지능형 CCTV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취급해 비용 구조가 높았다. 반면 MACS는 소프트웨어만을 판매해 기존 솔루션보다 저렴하다. MACS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하드웨어와 호환 가능하다.

피아스페이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MACS는 공공기관과 기업 내 통합 관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밀입국자 감시 솔루션으로 항만 보안 효율성을 향상했다. 예코프로, 금양과 같은 제조기업 공장에서는 화재 감지 솔루션으로 활용 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는 무단 취식, 절도, 안전 수칙 위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현장 운영 효율성과 직원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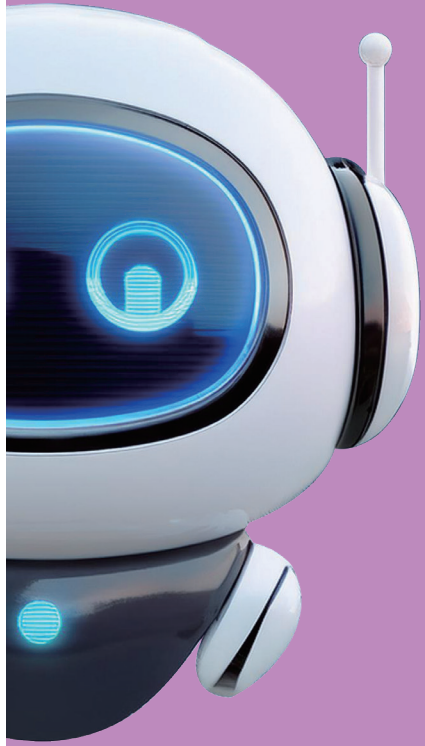
해외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로봇 기업 카밤 로보틱스와 협력해 창이공항 내 무인 로봇에 MACS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리업체와 연계해 부동산 자산 관리 AI 솔루션을 위한 실증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피아스페이스는 향후 MACS의 온프레미스 방식을 시스템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aaS 서비스로 산업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가정용 CCTV, 드론, 로봇 등으로 솔루션을 확장할 목적이다.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한 CCTV를 개발할 목적으로 AI 반도체 기업과 협업 중에 있다.

멀티모달 AI 기반 CCTV 및 영상 분석 솔루션 'MACS'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피아스페이스)



이것이 AI입니다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데이터비
보다비

스웨번즈
아드바크

언제 어디서나 원어민 같은
영작 실력 돕는

데이터비

데이터비는 번역기와 영어 문법 검사기,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합친 올인원 AI 영작 도구 '엔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8월 설립했다.

하나벤처스, 스트롱벤처스, 벤처스퀘어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데이터비

대표자명
오승현

주요 제품(서비스)
엔그램

사업 분야
언어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 음성 및 언어지능
• 머신러닝



engram.us

n Engram

번역 넘어선 올인원 AI 영작 도구 '엔그램'

데이터비의 엔그램은 번역기와 영어 문법 검사기, 패러프레이징 기능을 합친 올인원 AI 영작 도구를 표방한다. 특히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번역된 초안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영문 교정 기능과 패러프레이징 기능까지 갖춘 점이 특징이다.

엔그램은 이미 영어 의사 소통이 필요한 6만 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교육 기관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제품의 근간에는 AI 기반 번역 기술과 영문 교정 기술, 영문 패러프레이징 기술이 있다. 이 중 AI 번역 기술은 사용자가 입력한 글이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사용자가 설정한 언어로 번역한다.

AI 영문 교정 기술은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된 문장에서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판별하고 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 생성형 모델이 대안을 제시한다. AI 영문 패러프레이징 기술은 생성형 모델이 입력된 문장을 사용자가 설정한 문체에 맞게 변형해준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7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비의 차별점

엔그램은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은 물론 번역된 초안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영문 교정 기능과 패러프레이징 기능까지 함께 갖춘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때 영문 교정 기능은 사용자가 글의 세세한 부분을 수정한 후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고칠 때 유용하다. 또한 패러프레이징 기능은 목적에 맞게 문장을 학술적으로 바꾸거나 문장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정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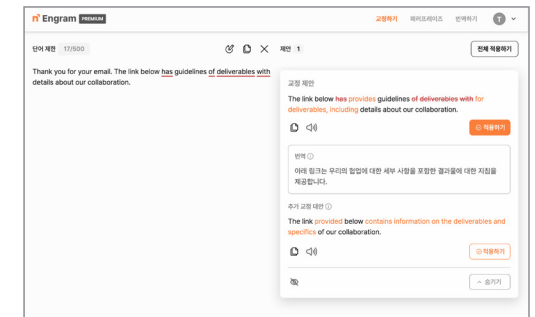
데이터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민에 최적화됐다는 점도 엔그램의 특징이다. 엔그램은 자체 개발한 딥러닝 모델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알고리즘을 통해 비영어민이 자주 틀리는 문법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더 잘 잡아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공한다.

데이터비는 2021년 AI 영문 교정 서비스 '엔그램'을 출시하고 하나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2022년에는 스트롱벤처스와 벤처스퀘어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에 선정됐다. 2023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데이터비는 향후 제품 개선과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핵심 역량인 영문 번역과 교정, 패러프레이징 성능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앞으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중남미 국가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비의 올인원 AI 영작 도구 '엔그램' 화면
(사진 제공: 데이터비)



세일즈 성과 올리는
대화 분석 서비스 개발

보다비

보다비는 인공지능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 기술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2020년 1월 설립했다.
2023년 3억 5,000만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기업명
보다비

대표자명
이진국

주요 제품(서비스)
보다비

사업 분야
언어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 음성 및 언어지능



vodabi.com

VODA Bi

AI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점수화 서비스 ‘보다비’

보다비(VODABI) 서비스는 콜센터 및 챗봇의 대화 내용 분석, 세일즈 대화의 충실도 평가, 세일즈 성사 가능성 점수를 제공하는 분석 알고리즘 모델 및 솔루션이다. 실제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나 세일즈팀 운영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다비의 핵심 기술은 AI를 활용한 대화 추적이다. 자사 분석 프레임 특히 기술인 ‘BANTCQ’를 활용해 스마트폰 통화, 화상회의 대화, 메신저 대화 등 고객과 진행한 여러 방식의 대화를 분석한다. 대화 중 세일즈 성사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식으로 세일즈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요약해 계약 성사 가능성을 점수화해 알려준다. 상담 스크립트 정도만 입력하면 세일즈 대화 데이터셋을 활용해 대화를 생성해주기도 한다.

계약 성사 가능성 알려 주고 상담원 코칭까지

기업들이 고객과 많은 세일즈 대화를 나눠도 고객 상담원마다 역량과 경험 차이 때문에 계약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고객센터나 영업팀은 랜덤콜을 듣고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코칭 포인트를 찾아야 했다.

보다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성과 개선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발견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상담 코칭 과정을 자동화해 비용 효율적으로 영업팀·고객센터 운영이 가능하다. 자사 특히 기술인 BANTCQ 프레임워크 라이선싱을 통해 북미 시장 경쟁사들을 고객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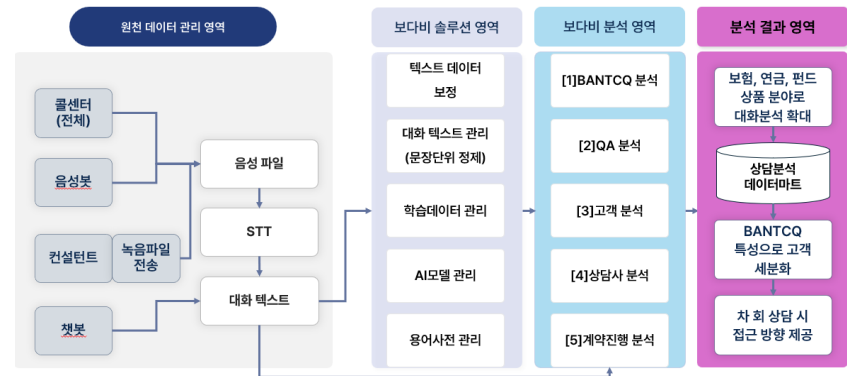
최근에는 시장에서 적극 도입 중인 AI 기반 상담 챗봇의 성과와 실제 상담 효과에 대한 검증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보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보다비는 현재 다양한 고객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 DB손해보험과는 AI 허브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협업을 맺고 대화 분석 스코어링으로 상담 대화 점수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DB손해보험의 내부 대화 상담 및 평가 방향성을 수립했다. AJ그룹 자회사 AJ ICT와는 콜센터에 보다비 솔루션을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보다비는 특히 금융권 업무 모델을 고도화해 2024년까지 중견·중소 금융기관 대상 대화 분석 솔루션 공급을 확장할 계획이다. 각 금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후 해외 시장 진출도 노린다. 향후 지역별, 언어별 대화 분석 스코어링 솔루션을 출시해 2025년까지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AI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 및 점수화 서비스 ‘보다비’의 주요 특징
(사진 제공 : 보다비)



소비자 검색 키워드 시로 분석해
마케팅 인사이트 제공

스웨번즈

스웨번즈는 소비자 검색 의도 기반 인공지능
마케팅 인텔리전스 서비스 플랫폼
‘컨슈머인서치(ConsumerInSearch)’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2년 8월 설립했다.

기업명
스웨번즈

대표자명
이우진

주요 제품(서비스)
컨슈머인서치

사업 분야
언어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연구 및 개발



swevenz.com



생성형 AI로 트렌드 파악해 마케팅 전략 지원하는 ‘컨슈머인서치’

컨슈머인서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데이터 생성 자동화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데이터 수집, 정제, 의미 기반 검색 통계량 및 트렌드 특성 파악 등을 자동화했다.

컨슈머인서치는 5가지 핵심 기능으로 브랜드·제품 마케팅 전략 방향을 도출한다. 브랜드 지수(BRAND INDEX)의 경우 경쟁 브랜드와의 검색량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각 브랜드의 비중과 구매 과정에서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역할이다. 급증하는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 수요 변화 및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HOT TREND)하고 고객 구매 여정 단계별 주요 비교 속성을 분석해 소비자 니즈를 분석(INSIGHT)한다.

이외에도 주요 속성, 여정 단계별 경쟁 브랜드와 검색량 비교를 통해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COMPETITION)한다. 과거 마케팅 활동의 성과와 시장 이슈를 분석해 향후 마케팅 전략에 반영(TRACKING)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2가지 검색어 데이터 분류해 소비자 기호 추적

기존 마케팅 전략 서비스는 개별 상품 키워드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스웨번즈는 생성형 AI로 검색 키워드와 검색량을 분석해 트렌드를 다각도로 생성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총 12가지 고객 구매 여정 검색어 데이터를 의미 기반으로 자동 분류해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및 제품 탐색 행위를 세밀하게 분석 가능하다. 브랜드 지수를

스웨번즈의 성과 그리고 미래

통해 경쟁력을 수치로 가시화해 제공하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마케팅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존 마케팅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장시간에 걸쳐 수행하던 업무를 수십 분 내에 수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웨번즈는 현재 커피 캡슐 글로벌 브랜드를 첫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 외 구글, 인스타그램 등 해외 고객이 활용하는 채널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영어권 국가 외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를 런칭해 글로벌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해 소셜 미디어, 뉴스, 온라인 쇼핑 트렌드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기반 자동 전략 추천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이다.

스웨번즈의 마케팅 인사이트 도출 플랫폼 ‘컨슈머인서치’의 주요 특징 (사진 제공 : 스웨번즈)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오답 선지까지 만드는 AI

아드바크

아드바크는 수능형 영어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모델 '큐파일럿'을
개발한 기업이다.
회사는 2024년 5월 설립했다.

기업명
아드바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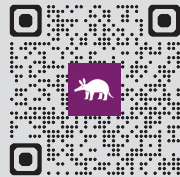
대표자명
이재윤

주요 제품(서비스)
큐파일럿

사업 분야
언어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음성 및 언어지능
- 강화학습 · 머신러닝



aardvark.co.kr

Aardvark 

**AI가 출제 확률 높은
지문 유형 골라 문제
만들어주는 ‘큐파일럿’**

큐파일럿은 입시학원,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연구소가 영어 모의고사 등 문제를 다양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문항 제작 시드. 큐파일럿은 시험 범위와 영어 원서 등을 입력하면 자체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능 영어 문항에 적합한 문단을 고르고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 유형을 예측한다.

이렇게 발췌한 지문을 활용해 적절한 문항 유형을 선택하고 문제로 만드는 문제화 작업을 진행한다. 빈칸, 순서, 삽입, 합의 등 수능 유형별로 특화된 모델을 훈련시켜 기성 텍스트 생성 AI보다 높은 정확도를 지닌다.

문제뿐 아니라 정답 및 오답 선지를 만드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어 수 조정, 선지 생성 방식 지정 등 특화 기능을 갖춘 선지 생성 에이전트로 난이도와 학생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선지를 만든다.

**평가원 로직을
그대로 담아
한국 수능 문항에 특화**

챗GPT와 같은 기성 AI 모델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 글을 쓰지 않도록 학습됐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출제 기초를 반영하지도 못했다. 아드바크는 이러한 기성 AI 모델의 문제점이 없는 수능 영어에 특화된 문제 생성 AI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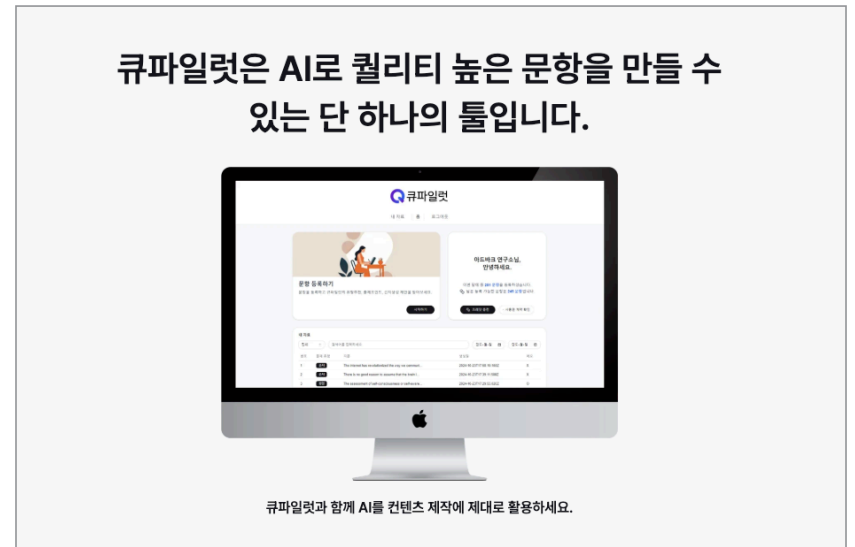
큐파일럿은 국립교육과정평가원의 로직을 AI에 적용해 별도의 프롬프팅 없이도 일치도가 높은 선지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인과관계 역전, 과한 추론 등 평가원 출제 포인트인 유형을 생성한다. 직관적인 UI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아드바크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드바크는 2024년 6월부터 큐파일럿 베타 버전을 개발해 대형 입시 교육 업체 및 대치동 학원가와 유료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아드바크는 수능 영어를 넘어 타 과목, 시험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어 과목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픽, 공무원 시험 등 성인 교육 문항 제작으로도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수능형 영어 문제 자동 생성 AI 모델인 ‘큐파일럿’의 주요 특징
(사진 제공 : 아드바크)



이 가 가 가 가 가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더플랜지
마고

AI 캐릭터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영어회화 학습 앱 개발

더플랜지

더플랜지는 가르치기 학습법을 적용한
교육학 이론·인공지능 기반 초등 영어회화 앱
‘오딩가 잉글리시’를 개발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2016년 2월 설립해 2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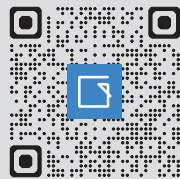
기업명
더플랜지

대표자명
이경아

주요 제품(서비스)
오딩가 잉글리시

사업 분야
음성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음성 및 언어지능
• 머신러닝



theplang.com

THE PLANG

AI 캐릭터와 수준별 자유 대화로 영어 배우는 ‘오딩가 잉글리시’

오딩가 잉글리시는 학습자인 아이가 선생님으로서 AI 캐릭터 ‘오딩가’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초등 영어회화 앱이다. 아이가 앱에서 영어 교수 ‘노아 박사’의 도움을 받아 오딩가를 가르치며 게임하듯이 자기 주도적 영어를 익히는 식이다.

구글 API를 활용해 사용자의 발화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AI 캐릭터가 이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해 발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자별 문장 점수를 데이터화한다. 때문에 캐릭터와 수준별 자유 대화가 가능하다.

말하기 기피하는 아이도 게임하듯 영어회화 학습

오딩가 잉글리시는 메타인지 학습법, 제자 학습법 등 검증된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 말하기에 소극적인 아이도 효과적으로 회화를 배우게 한다. 강의식이 아닌 게임 방식의 역할 놀이로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캐릭터 학습 짝공과 함께 영어 말하기를 반복하고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더플랜지의 성과 그리고 미래

더플랜지는 2024년 에듀테크 공교육 적합 판정을 받아 초등학교 정규 수업 교재로 채택됐다. 앱스토어 내 다운로드 누적 15만 회에 달한다.

더플랜지는 해외 교육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2018년 인도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24년 인도 공교육에 진출해 현지 정규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더플랜지는 향후 오딩가 한국어와 오프라인 버전을 개발해 K-에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오딩가 잉글리시’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더플랜지)



**Learn.
Share.
Live together.**

Team THE PLAN G fosters future talent. We dedicat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nd motivate children in learning with adaptive steam learning solutions.

See our work



AI 기반 음성 분석 기술로
정신건강 관리

마고

마고는 음성 AI 빌더 '오디온'과 음성 AI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 '카세트'를 개발한 기업이다.
2022년 5월 설립해 현재 시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명
마고

대표자명
고현웅

주요 제품(서비스)
오디온
카세트

사업 분야
음성지능

기술 분야
• 음성 및 언어지능



holamago.com

MAGO

**음성 AI 분석 통합 웹
‘오디온’과 음성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 ‘카세트’**

오디온은 마고의 음성 AI 모델을 모아 놓은 통합 웹이다.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음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오디온에는 음성 인식, 합성뿐 아니라 음성의 시작, 종료 등을 탐지하는 AI 모델이 있다. 음성으로부터 비음성, 소음을 분리하거나 음성과 자막의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마고의 핵심 기술은 음성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감정 인식 기술이다. 음성으로부터 건강 상태와 감정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고는 이를 활용해 음성 AI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인 카세트를 구축했다.

**미디어 산업 돕고
감정과 건강 분석하는
음성 AI**

마고는 ‘음성을 음성답게 분석’하자는 아이디어로 AI를 활용하 통합 음성 분석 웹을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방대한 음성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미디어 콘텐츠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다. 콘텐츠 생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밀하게 음성을 분석하는 기술은 음성 속 감정과 정신건강까지 파악하는 데 이르렀다. 현재 마고는 카세트 플랫폼에 대해 지자체 및 기업 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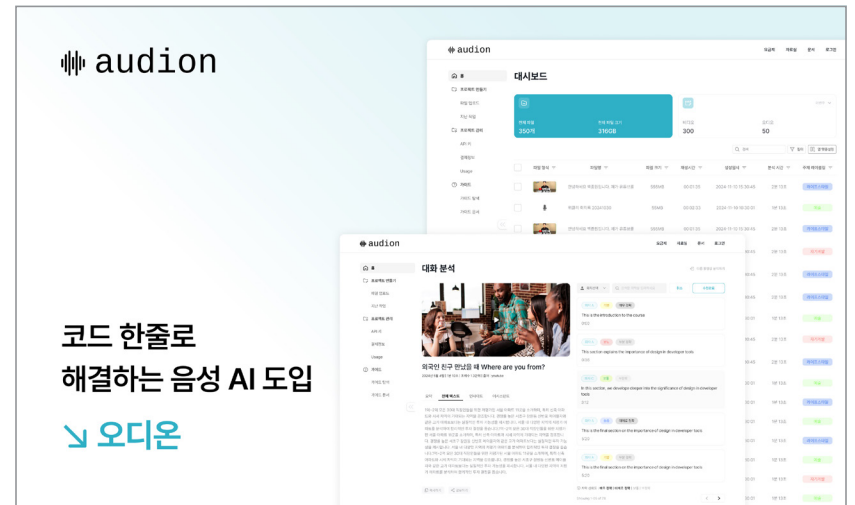
**마고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마고는 2024년까지 음성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 추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내에 미디어 콘텐츠 분석 및 음성 대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음성으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는 식이다.

감정과 건강 탐지 서비스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마고는 현재 네이버의 음성 돌봄 서비스인 ‘글로벌 케어콜’과 협업해 전화 통화로 우울 및 치매를 선별할 서비스에 대한 PoC(개념 증명)을 진행 중이다.

마고는 단순히 정신건강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치료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개발해 사람과 AI 간의 감성적 교감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돌봄 로봇에 적용하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향상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음성 AI 분석 통합 웹 ‘오디온’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마고)



디지털 가공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맞추다

바이브존

에스앤이컴퍼니

에스앤피랩

에이뉴트

온잇코리아

웍스비

임팩티브AI

큐빅

크로프트

트라이피프티

플라스크

하이퍼이지

AI 구루

효율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만드는

맞추다

맞추다는 자격증, 공무원 수험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기술 문제를 풀이하며 학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온전히 디지털화하는 기술적 시도들을 하고 있다.

2022년에 설립해 1억 5,000만 원의 시드 투자와
팁스(TIPS)에 선정돼 7억 원의 지원금을 유치했다.

기업명
맞추다

대표자명
이윤규

주요 제품(서비스)
맞추다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machuda.kr



맞추다의 솔루션 이야기

디지털 기출 문제 풀이 서비스 맞추다는 e북(e-book) 형태에서 나아가 문제를 풀면 자동 채점, 오답 노트 생성을 지원한다. 수험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추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본인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학습만을 진행해 효율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증 위주로 55개 종목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맞추다의 차별점

맞추다는 출판사의 학습 콘텐츠를 읽고 디테일하게 쪼개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출판사에서 직접 타이핑하는 작업에 비해 99% 리소스를 감축시킬 수 있다.

또한 맞추다는 확장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돼 있다. 모듈형 개발, 확장 자동화 시스템 등의 기술을 보유해 하루 만에 새로운 종목 확장이 가능하다. 기존 시장의 플레이어인 출판사와 협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더욱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력 덕에 2023년 한 해 동안 40개 이상의 종목을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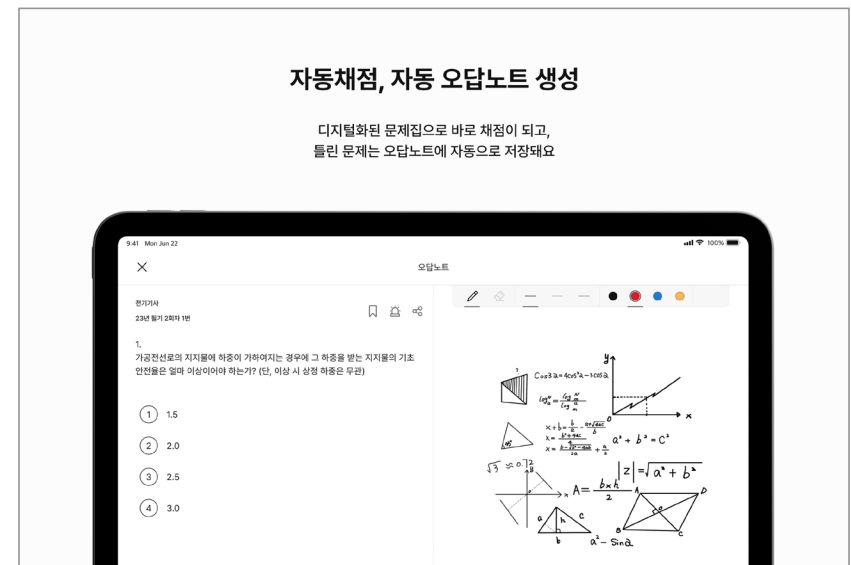
맞추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맞추다는 누적 36만 명, 월 8만 명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맞추다 서비스에서는 한 주에 약 100만 개 이상의 문제가 풀이되고 있으며 약 5만 번의 모의고사가 치러졌다.

맞추다는 최근 이러한 모의고사 시스템 노하우를 활용해 B2B·B2G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치러지는 시험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해주는 ‘테스핏(Tesfit)’ 솔루션을 런칭했다. 2024년에는 IBK 기업은행, LH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모의고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맞추다는 디지털화되고 있는 학습 시장에서 최적화된 학습의 형태를 갖추기에 나선다. 성인 교육 시장, 더 나아가 교육 시장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기출 문제 서비스 ‘맞추다’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맞추다)



좋아하는 가수의 옷차림, 무대
검색하면 이미지 찾아주는

바이브존

바이브존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확보 시스템을 활용해
K팝 콘텐츠 아카이브 플랫폼 '바이브러리(Vibrary)'를
운영한다. 회사는 2020년 11월 설립했다.
26억 원 규모의 프리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기업명
바이브존
대표자명
박상범
주요 제품(서비스)
바이브러리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vibezone.kr

vibezone

**AI 분석 기반
아티스트 이미지
아카이브 플랫폼
'바이브러리'**

바이브러리는 팬들이 원하는 K팝 아티스트 이미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K팝 팬덤 콘텐츠에 메타 이미지를 입혀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는 식이다. AI 이미지 분석으로 사용자 콘텐츠 자동 태그 생성 기술도 탑재했다. K팝 팬들은 바이브러리의 검색 엔진을 활용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특정 옷차림, 출연 날짜, 공연 등의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바이브러리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디지털 굿즈다. 소속사와 같은 IP(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디지털 LP, 콘텐츠 카드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준다. 굿즈들에 탑재된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태깅하면 해당 아티스트의 음원,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TV에서
누리는 팬덤 콘텐츠**

바이브러리는 50만 장 이상의 방대한 K팝 팬덤 콘텐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팬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AI 이미지 분석 기술로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태그를 생성해줘 콘텐츠 탐색 효율도 강화했다. 바이브러리는 삼성 스마트TV 2024년 출시 모델부터 기본 앱으로 탑재돼 스마트TV, 스피커 등과 연동한 통합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국내 신인 아이돌뿐 아니라 J팝 가수들도 바이브러리 앱서비스에 입점해 콘텐츠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민호 트로트 가수, 페리블루 아이돌의 경우 바이브러리의 디지털 굿즈로 팬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본의 일부 아티스트는 바이브러리 디지털 굿즈를 주문해 공연 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했다.

**바이브존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바이브러리는 가입자 150만 명 중 90%가 해외 사용자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다. 2024년까지 국내 IP 에이전시 1곳, 일본 IP 에이전시 2곳과 계약을 맺었다. 향후 바이브존은 타깃 국가를 확대하고 IP 카테고리도 배우, 모델, 스포츠 스타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타깃 고객도 확장할 계획이다. 바이브러리는 현재 모바일 서비스 2.0 개발을 앞두고 있다. 기존 1.0 서비스는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일반 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였지만 2.0에서는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소통 중심의 경험을 강화해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팝 콘텐츠 아카이브 플랫폼 '바이브러리' 이미지 (사진 제공 : 바이브존)



농산물 작황부터 가격까지
AI 예측 시스템

에스앤이컴퍼니

에스앤이컴퍼니는 인공지능 가격 예측 기반
농산물 B2B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B-good)'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0년 8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누적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에스앤이컴퍼니

대표자명
장세훈

주요 제품(서비스)

비굿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bgood.co.kr



에스앤이컴퍼니

AI 기반 B2B 농산물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

비굿은 농가와 식품제조가공기업 간 선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선도거래는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을 예측해야 한다.

비굿은 정형 데이터는 물론 농작물 생육 이미지, 위성 영상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전처리·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가격 예측력을 지닌다. 기업과 계약 체결 후 농가에 주문해 수확물을 직배송하는 유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못난이 농산물도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예측해 거래 지원

비굿은 빅데이터 및 AI 기반으로 생육, 작황, 가격, 수요 등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예측 체계를 지닌다. 구매자가 원하는 농작물의 스펙, 물량 거래에 유리해 특히 모양이나 크기가 불규칙한 '못난이 농산물' 거래에 특화됐다.

기존에는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경매시장 특성상 구매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B2B 구매 시스템에 선주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보통 수확량 전체를 구매하는 계약 재배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비굿은 자사 기술을 토대로 기존 농산물 유통의 선매입 방식이 아닌 선주문 구조로 유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도 체계를 만들었다. 비굿의 농산물 생육 및 가격 예측 시스템으로 못난이 농산물과 같은 필요한 상품성, 물량을 정해 구매할 수 있다. 자체 직배송 유통 구조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해 농사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에스앤이컴퍼니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굿은 2021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3,000톤에 이르는 못난이 농산물 거래를 도왔다. 거래 기업은 600 곳을 넘어섰다. 에스앤이컴퍼니는 증가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1만 7,000여 곳의 농가와 산지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국내 전체 농가의 2%에 달한다. 회사는 매출과 이익률을 더욱 개선해 2025년에는 수익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프리 B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와 베트남 등에 현지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고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최적작물 추천 솔루션을 제공할 목표다. 국내 농가 및 식품제조가공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농식품 수출 사업 역시 확장 방침이다.

AI 가격 예측 기반 농산물 B2B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 모바일 앱 화면
(사진 제공 : 에스앤이컴퍼니)



보안 걱정 없는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저장 플랫폼 제공

에스엔피랩

에스엔피랩은 온디바이스 기반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 '마이디(my:D)'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12월 설립해 현재까지 28억 3,0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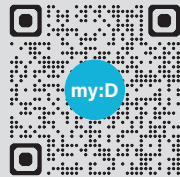
기업명
에스엔피랩

대표자명
이재영

주요 제품(서비스)
마이디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보안 및 프라이버시



snplab.io

SNP LAB
Security & Privacy Laboratory

**온디바이스 기반
마이데이터 1인
마켓플레이스 ‘마이디’**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할 주도권이 기업이나 플랫폼이 아닌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한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에스엔피랩의 마이디 플랫폼은 개인 데이터 수집·관리 및 데이터 활용·보상 기능을 탑재한 마이데이터 1인 마켓플레이스다. 핵심 기술은 온디바이스 기반 마이데이터 저장 기술로 개인은 디바이스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마이데이터를 개인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저장 및 조회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의 수요기 관련 기업은 이종 산업 간 결합된 마이데이터를 컴플라이언스 문제 없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이디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계약을 선 수행하면 기업은 승인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식이다. 에스엔피랩은 미인가 마이데이터 기업이나 별도 플랫폼이 없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ODM 패스’도 제공 중이다.

**보안 걱정 없이
개인 단말로 이루는
개인 데이터 자산화**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종 간 데이터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에스엔피랩은 온디바이스 모델로 수집형 개인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 산업 간 결합으로 마이데이터 가치 증대와 데이터 자산화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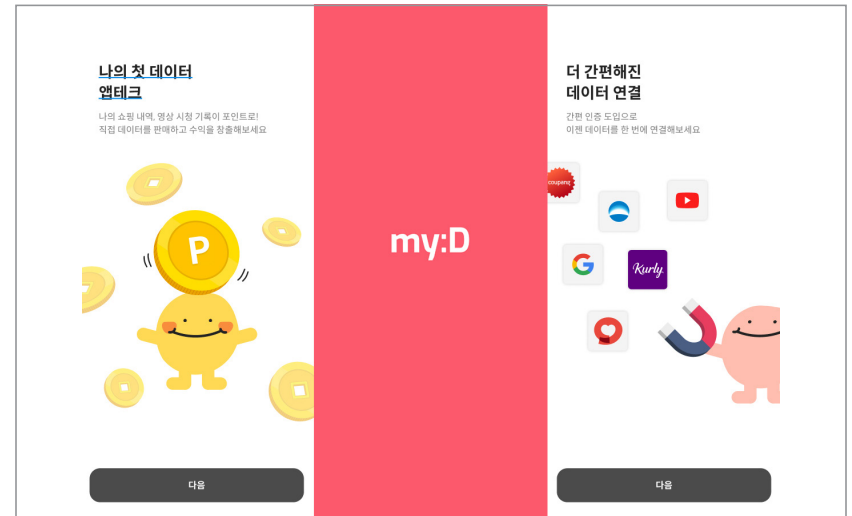
특히 데이터 이용과 결합이 제3기관이 아닌 개인 단말에서 이뤄져 보안에 강점을 지닌다. 단말 보안만으로도 개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에스엔피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마이디 앱은 2023년 기준 누적 이용자 23만 명을 달성했다. 경기도에 고독사 방지 알람 모델 ‘경기톡D’, 서울시에 마이데이터 기반 이사 서비스 ‘이사on’ 등을 납품하는 등 40억 원 이상의 정부 과제를 수행했다. 일본에 현지 지사를 설립해 해외로도 발을 넓혔으며 캐나다와 핀란드 진출을 준비 중이다.

향후 에스엔피랩은 마이디 내 추가 기능(만보기 기능 도입, 빗썸의 거래 내역 연동 등)을 개발하고 추후 데이터 분석 서비스, 타겟 텔레마케팅을 위한 VoIP(음성 통화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마이디’ 모바일 앱 화면
(사진 제공 : 에스엔피랩)



데이터 품질 검수와 고속 검색으로
AI 모델 성능 최적화

에이뉴트

에이뉴트는 데이터 검수부터 고속 검색까지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활용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3월 설립했다.
22억 6,2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에이뉴트

대표자명

박상현

주요 제품(서비스)

DA

Qdrant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학습용 데이터셋 품질검사 솔루션
- 맞춤형 sLLM



ainewt.ai



데이터 품질 검수 자동화 'DA'와 벡터 기반 고속 데이터 처리 'Qdrant'

에이뉴트의 데이터 품질 검수 자동화 시스템인 DA(Data Analyzer)는 AI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수하고 검증하는 도구다. 통계적 분석과 의미·구문 정확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하는 강점을 지닌다. DA는 전체 데이터를 빠르게 전수 검사하거나 통계적 특성에 맞춰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리포트 제공 등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AI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관리 기능도 있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인 Qdrant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벡터 기반의 고속 데이터 검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실시간 추천 시스템이나 AI 모델 고속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고성능 검색과 추천 시스템을 운영해 빠른 데이터 처리와 분석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DA와 Qdrant의 결합으로 시너지 창출

DA의 자동화 기능은 데이터 정제 및 품질 검증 자원 소모를 줄이며 Qdrant는 다양한 임베딩 기술과 연동돼 데이터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높인다. 에이뉴트는 DA와 Qdrant의 결합으로 AI 데이터 관리를 최적화했다.

DA가 검수한 고품질 데이터에 Qdrant의 실시간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AI 모델이 학습 및 추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처리 속도 모두 최적화할 수 있다. 에이뉴트는 두 솔루션의 결합으로 확장성을 높여 의료, MLOps(머신러닝 운영),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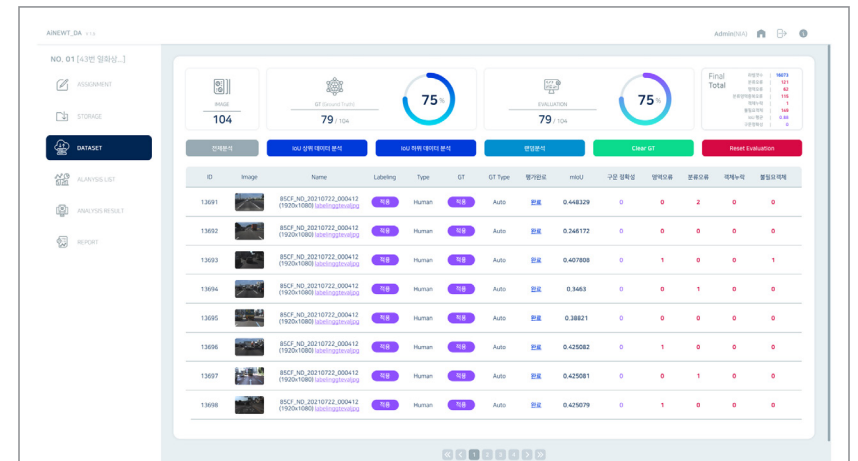
에이뉴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에이뉴트는 DA 솔루션을 단순히 데이터 검증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데이터 처리 전체 과정과 AI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모두(MO DU) 다(DA) 하다(HA DA)'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모두(MO DU)'는 데이터 처리 전체 과정을 위한 솔루션으로 문서, 영상, 음성 등을 목적에 맞게 가공해주는 기술을 제공한다. '다(DA)'는 MO DU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을 수행하며 AI를 위한 합성 데이터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하다(HA DA)'는 에이뉴트의 서비스들이 실행되는 플랫폼 기술로 크루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뉴트는 하나의 과제로 한 종류 이상의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1=111' 수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데이터 품질 검수 자동화 시스템 'DA' 모니터링 화면 (사진 제공 : 에이뉴트)



AI 알고리즘으로 이사·화물 운송
최적화 플랫폼 개발

온잇코리아

온잇코리아는 이사·화물 운송 전문 서비스
‘짐랄라(ZIMLALA)’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0년 5월 설립했다. 프리 A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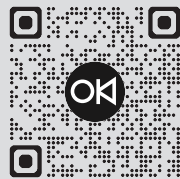
기업명
온잇코리아

대표자명
정승범

주요 제품(서비스)
짐랄라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AI 도구 및 플랫폼
• 강화학습



zimlala.com



**AI 알고리즘으로
비용·거리 최적화
화물 운송 서비스
'짐랄라'**

짐랄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사 및 화물 운송 과정을 최적화해주는 플랫폼이다. 화물 부피를 계산해 적재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차량을 추천한다. 또한 운송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차 운송 거리를 최소화하고 화물 상차 및 하차 일정을 고려해 최적화된 경로를 설계해준다. 사회 초년생, 임산부 및 신생아, 반려인 등 고객과 화물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 배차와 기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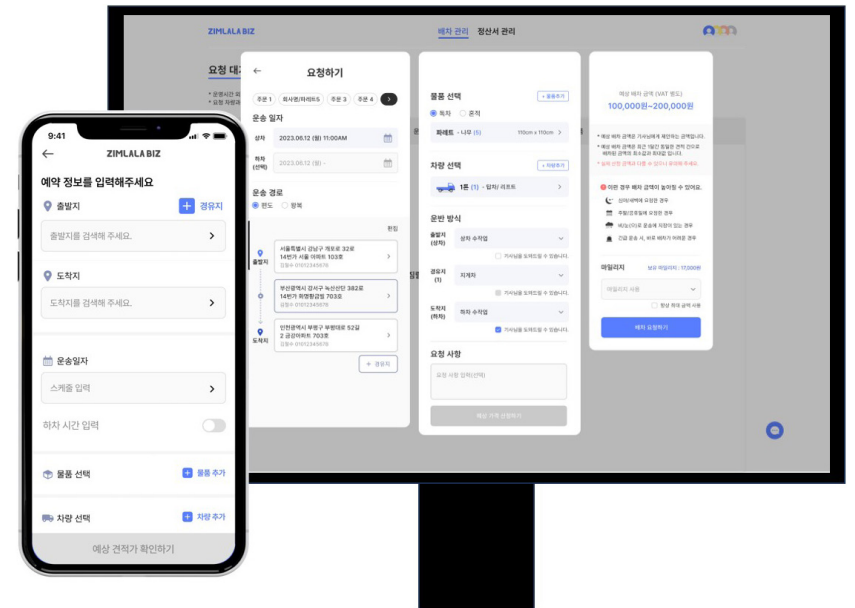
짐랄라는 데이터 기반 화물 차량 및 기사 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맞춤 AI 배차 서비스로 운송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용달, 고정, 소량 화물 등 화물 종류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한 차량을 배차한다. 급속 화물의 경우 다마스, 오토바이 등 배차를 통해 빠른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온잇코리아의 경로·기사 추천 알고리즘은 기업용 화물 운송 시장에서도 '짐랄라 BIZ' 서비스로 활용된다. 2023년 10월 베타 버전을 출시한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운송업자와 화물 운송 파트너십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온잇코리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온잇코리아는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 시장 점유율 높이기엔 나서고 있다. 다중 경로 배차, 기사 친절도 관리, 정산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삿짐 운송 서비스 외에 도소매, 상품 중개업, 가전·가구 제조사 등 신규 영역으로도 영역을 넓힐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잇코리아의 '짐랄라 BIZ'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온잇코리아)



클릭으로 간편하게
구인·구직 최적 매칭 돕는

웍스비

웍스비는 인공지능 기반 OBC(최적 매칭 검색엔진)를
활용해 단시간 일자리 매칭 플랫폼
'더벌자'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2019년 2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18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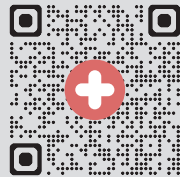
기업명
웍스비

대표자명
김현호

주요 제품(서비스)
더벌자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 강화학습 · 머신러닝



worksbe.com

WorksBe.

**일자리 매칭부터
사후 급여 정산과
인사 관리까지
'더벌자'**

웍스비가 운영하는 더벌자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잡 내비게이션(Job Navigation)'이다. 내비게이션과 같이 시간제 구직자들이 원하는 스케줄로 원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자리 경로를 한 번의 클릭으로 안내해주는 솔루션이다.

매칭 상호 간 조건 불일치를 연쇄 분할 및 조합으로 해소한 매칭 엔진으로 원하는 구인·구직 조건, 희망 급여에 따라 일자리를 안내해준다. 구직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인근 지역 2~3곳 이상 찾을 수 있다. 구인자는 적절한 인건비 예산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잡 내비게이션은 구인·구직 과정에서 목표 조건을 알아서 찾아줘 유저의 탐색 과정 전반을 없애고 시간과 동선에 따라 최적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칭 후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SMRP(Schedule Management Resource Planner) 솔루션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급여 예측 및 정산, 각종 수당에 대한 자동 정산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 역시 한 번의 클릭으로 최적화된 근무 스케줄을 제시하고 인력 배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원하는 일자리와 근로자를
최적의 경로로 찾아주는
구인·구직 내비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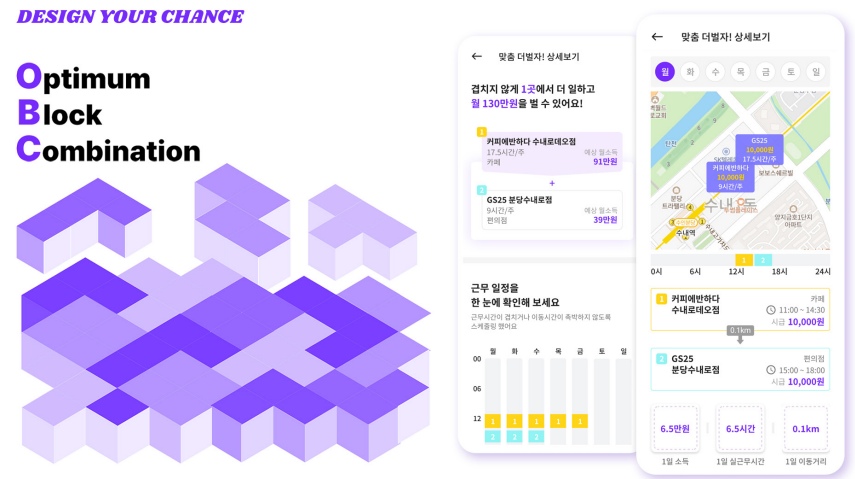
웍스비의 핵심 기술은 AI 최적 조합 매칭엔진 OBC (Optimum Block Combination)다. OBC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수량, 금액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조합해 찾아내고 예측된 각자의 선호에 따라 개인화된 최적의 매칭 결과를 제공한다.

**웍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기존 서비스는 수많은 일자리 정보와 구직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생성했고 양측 이해관계자를 완벽하게 매칭해줄 기능이 없었다. 웍스비의 AI-OBC 기반 매칭엔진은 스케줄과 동선에 따라 정보를 분할·조합해 목표 조건을 완성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타 플랫폼 대비 유저 탐색 시간을 99% 절감하고 조건 완성은 10배 이상 늘렸다. SMRP 솔루션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더벌자 플랫폼의 유저는 30만 명이고 누적 기업 회원은 2만 곳에 달한다. SMRP 솔루션은 개발을 완료했고 2024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및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인력 관리, 급여 정산을 위한 HR 솔루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웍스비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 '더벌자' 이미지 (사진 제공 : 웍스비)



AI 수요 예측으로
재고 관리 돕는

임팩티브AI

임팩티브AI는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에게 신제품 성과 예측과 제품 수요 예측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 극대화를 돕는다. 2021년 7월 설립해
매해 3배 이상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프리 시리즈 A 단계의 펀딩 라운드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26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2024년에는 딥테크 팀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기업명
임팩티브AI

대표자명
정두희

주요 제품(서비스)
딥플로우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impactive-ai.com



임팩티브AI의 솔루션 이야기

임팩티브AI는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솔루션 ‘딥플로우(Deep Flow)’를 운영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와 고도화된 예측 모델을 통해 향후 판매량이나 가격 등 수요를 예측하는 기술을 재고/생산 관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 기능은 향후 판매량을 예측해 판매 및 재고를 최적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예측적 신제품 출시 기능’을 개발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제품 출시 전 성공 여부를 예측, 잘 팔릴 제품을 전략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측적 판매·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을 통해서도 제품의 최적 판매가격을 예측해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예측 기반의 의사 결정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팩티브AI의 차별점

임팩티브AI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AI 예측 정확도를 필두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조성하고 있다. 임팩티브AI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인정 받은 우수 모델을 포함해 총 224개 이상의 고급 머신러닝(ML) 예측 모델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 가능한 폭넓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관련 특허 출원 31개, 미국특허출원 5개, 특허등록 3개 달성이란 성과를 거뒀다. 600백만 건의 데이터와 300개 이상의 고도화된 예측 모델을 통해 기술적 차별화도 만들어가고 있다. 딥플로우는 고객사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데이터뿐 아니라 5만 개 이상의 외부 환경 데이터를 자체 크롤링해 수집함으로써 방대한 데이터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한 고정밀 예측 모델링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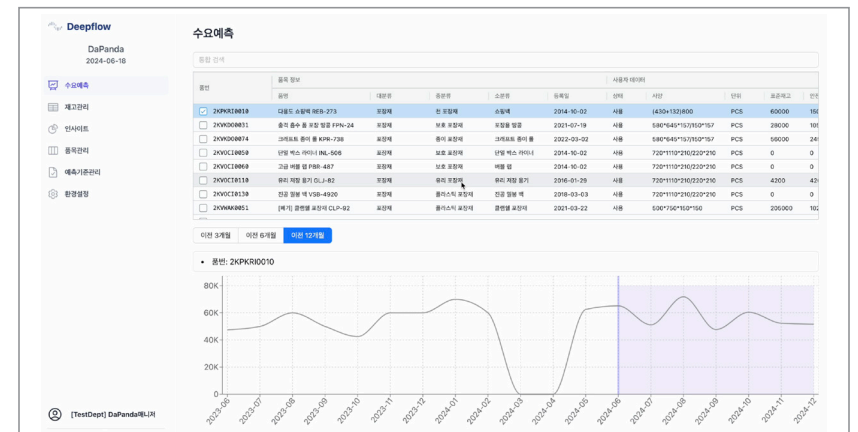
임팩티브AI의 성과 그리고 미래

임팩티브AI는 현재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에 솔루션을 납품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임팩티브AI는 기술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집중되고 그 적용 범위는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AI 수요 예측에 기반한 재고 관리 최적화 영역에 집중하지만 이미 원자재의 소요량 예측, 가격 예측, ML 기반의 다이나믹 프라이싱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예측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의약품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확장에 나선다.

임팩티브AI는 향후 5년간은 집중적인 R&D를 통해 수요 예측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기술 격차를 벌려나갈 계획이다. 해외 진출 또한 12개 국가로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솔루션 ‘딥플로우’의 수요 예측 화면 (사진 제공 : 임팩티브AI)



의미 유지·안전 보장된
보안 합성 데이터 생성

큐빅

큐빅은 보안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
'DTS(Data Transform System)'와
합성 데이터 종합 솔루션 'azoo'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9월 설립했다.

기업명
주식회사 큐빅

대표자명
배호, 정민찬

주요 제품(서비스)

DTS
azoo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보안 및 프라이버시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합성데이터/재현데이터



cubig.ai



합성 데이터 생성하는 ‘DTS’와 합성 데이터 종합 솔루션 ‘azoo’

큐빅의 보안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 DTS는 원본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필요 없이 로컬에서 원본 데이터와 최대 99%까지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보안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코딩이나 AI 지식 없이도 쉽게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DTS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와 PoC(개념 증명)와 기본 계약을 완료했다. 공군, SK텔레콤 등과도 PoC를 진행하고 있다.

합성 데이터 종합 솔루션 ‘azoo’는 합성 데이터 기반 결합 서비스 ‘SynFlow’, 합성 데이터 거래 플랫폼 ‘azoo 데이터 마켓’, 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 합성 데이터 분석 도구 ‘DataXpert’ 등의 도구로 구성됐다. 랩지노믹스, 웰티즌, 이대목동병원 등과 데이터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큐빅의 차별점

큐빅의 합성 데이터 솔루션은 경쟁 제품들 대비 ‘데이터 비접근 기술’에서 차별화된다. 주요 경쟁 합성 데이터 생성 플랫폼들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원본 데이터를 공유해야 했지만 DTS는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로컬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원본과 99%까지 유사한 성능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높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알고리즘 성능을 갖춘 점도 차별화된다.

금융이나 의료, 방산, 물류,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자 맞춤형 합성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시계열,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합성 데이터 내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도입해 윤리적으로도 알맞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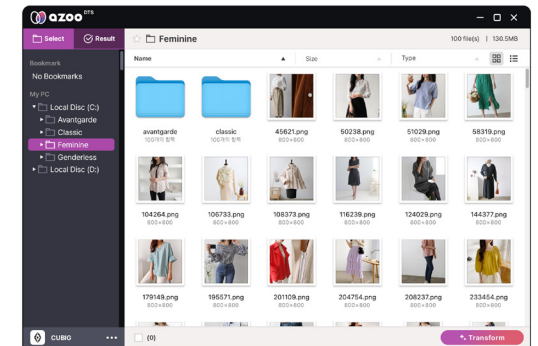
큐빅의 성과 그리고 미래

큐빅은 2023년 네이버 D2SF, 브이엔티지(VNTG)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2024년 7월 씨엔티테크와 산업은행의 프리 A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TIPS에는 2023년 9월 선정됐고, 2024년 6월 추가 선정됐다. 서울 AI 허브에는 2023년 12월 입주 기업으로 선정됐다.

큐빅은 향후 보안 합성 데이터 솔루션의 가치를 고객에 명확히 전달하며 시장에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PoC와 협업 등을 통해 AI 발전과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임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보안 합성 데이터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생성에서 나아가 데이터 결합과 분석까지 가능한 웹 솔루션을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고객에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큐빅의 보안 합성 데이터 생성 솔루션 ‘DTS’ 이미지
(사진 제공: 큐빅)



온실 최적화 솔루션으로
농업 패러다임 변화 나선

크로프트

크로프트는 인공지능 기반 온실 관리 솔루션
'크로프트오에스(CroftOS)'를 개발했다. 크로프트오에스는
작물 모니터링 AI, 재배 전략 AI, 환경 제어 AI로 구성해
온실 자동화·최적화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사는 2022년 6월 설립했다.

2023년 4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

대표자명
류희경, 이우람

주요 제품(서비스)
크로프트오에스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엣지 컴퓨팅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croft-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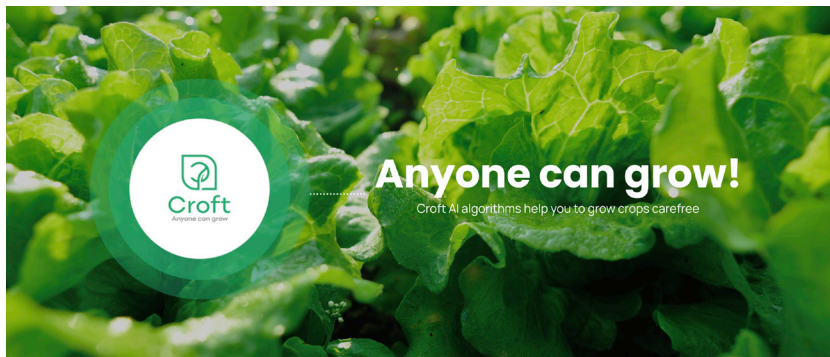
AI 기술로 농업 패러다임 바꿀 ‘크로프트오에스’

크로프트오에스의 핵심 기술은 AI 기반으로 온실 환경과 생산량을 향상하며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작물 모니터링 AI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단하며 재배 전략 AI로 최적의 재배 조건을 설정한다. 이를 환경 제어 AI가 온실 장치를 자동으로 조정해 설정된 재배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단순 모니터링 한계 극복한 스마트 농업

크로프트오에스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온실 환경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제공한다. 실제 상용 온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최소화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크로프트의 AI 알고리즘은 실제 온실 재배사만큼 전문적 판단을 제공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크로프트오에스는 연구 및 시험 온실에서 활용되고 있다. 센서 회사 및 농업 테크 파트너와도 협업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크로프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크로프트는 설립 후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 챌린지 (AGC)에 참가해 엽채소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해커톤 1위를 수상했다. 2024년에는 글로벌 센서 회사인 아라넷의 모회사 SAF 테니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Vivent, COSMOS 등 농업 테크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재배사를 모사할 수 있는 온실 환경 제어 알고리즘을 지속 개발 중이다.

크로프트는 2025년부터 AI 기반 스마트 온실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해 실질적인 상업 생산과 운영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크로프트오에스를 AI 시스템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모듈화해 농업 종사자들이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로프트의 온실 모니터링
장비 설치 이미지
(사진 제공 : 크로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 돕는
트라이피프티

트라이피프티는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획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2년 10월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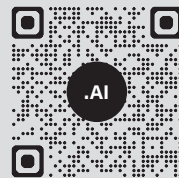
기업명
트라이피프티

대표자명
이현우

주요 제품(서비스)
맥달
런치바운드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생성형 AI



tryfifty.com

Tryfifty

**소프트웨어
개발·기획 돕는
'맥달'과 '런치바운드'**

트라이피프티의 핵심 솔루션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어시스턴트인 맥달(Macdal)과 LLM 기반 소프트웨어 기획 서비스 런치바운드(LaunchBound)다.

맥달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위한 AI 기반 통합 검색 및 협업 플랫폼이다. 연동된 툴 내 정보를 맥달에서 채팅, 검색창 형식을 통해 통합적 검색이 가능하며 시중의 다양한 LLM 기반 AI 서비스에 맥달을 초대하면 맥락을 대신 제공해준다. 또 팀 내 정보를 알고 있는 맥달을 활용해 원하는 문서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런치바운드는 소프트웨어 기획자를 위한 서비스로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추천, 정리, 보완을 돕고 이를 통해 개발 혹은 디자인이 가능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계획 수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를 위한 '아노테(Annote)' 피그마 플러그인도 제공한다.

**LLM 기반 데이터 분석과
지식 그래프 구현으로
통합 설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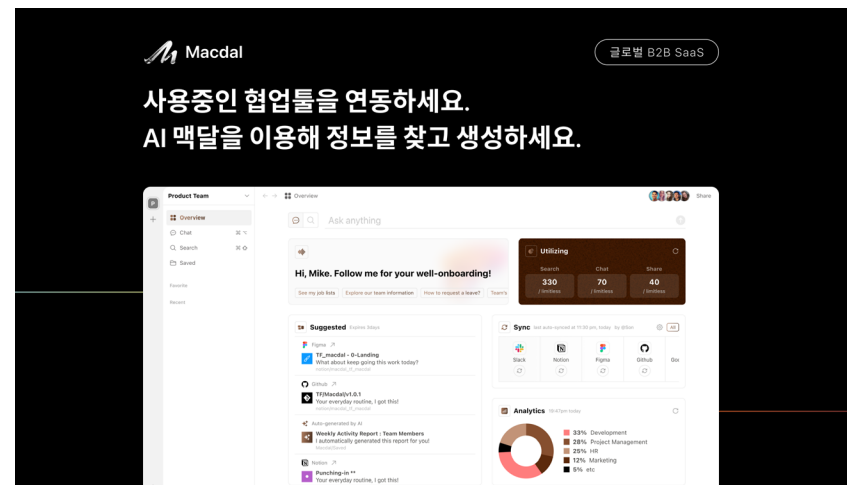
맥달은 기업용 AI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경쟁사와 유사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타깃을 한정해 특화된 자원과 자동화된 작업 흐름을 제공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LLM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지식 그래프 구현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검색, 맥락 제공, 문서 생성 등 통합적인 소프트웨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라이피프티의
성과 그리고 미래**

트라이피프티는 맥달 서비스를 2024년 11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사용자 피드백을 확보해 2025년까지 시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도 목표하고 있다.

프로덕션 레벨의 검색 증강 생성(RAG) 구축을 위한 기술도 연구 중이다. RAG 기술은 기존의 LLM 모델에 장기 기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개발팀이 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연동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검색과 추가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어시스턴트 '맥달'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트라이피프티)



3D 애니메이션
제작 장벽 낮춘

플라스크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존에 복잡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웹캠과 브라우저만으로 쉽게 할 수 있다.
플라스크는 AI 모션 캡처 3D 애니메이션 제작 툴을 개발했다.

회사는 2020년 2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4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플라스크
대표자명
이준호
주요 제품(서비스)
PLASK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plask.ai



**장비, 스튜디오 없이
AI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PLASK’**

플라스크가 개발한 PLASK는 AI 기반 모션 캡처 기술로 3D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3D 콘텐츠 제작 툴이다. 브라우저를 단지 열고 프로젝트를 기록 및 편집할 수 있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 AI가 영상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캐릭터를 애니메이션할 수 있다.

PLASK를 통한 작업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공유, 검토 및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개발자 간 실시간 협업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으며 AI로 3D 장면 제작 과정을 자동화해 리깅, 모델링, 렌더링 등의 작업을 간소화했다.

**비용, 시간 줄인 AI 기반
3D 콘텐츠 제작 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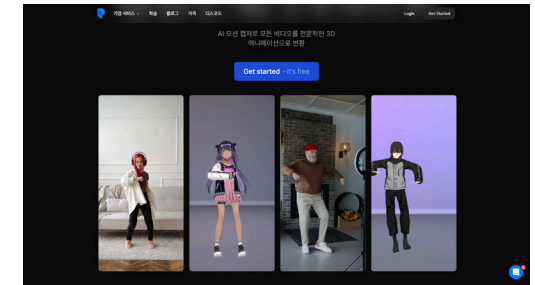
PLASK의 핵심은 고가의 전문 모션 캡처 장비와 촬영 스튜디오 없이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AI가 애니메이션에 쓸 빠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식이다.

실제 움직임을 빠르게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게임과 영화 등 산업에 유용하다.

모션 캡처를 만드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작에 앞서 스케치 등 초기 콘셉트, 구도를 잡는 과정에서 강점이 있다.

**플라스크의
성과 그리고 미래**

플라스크는 설립 후 2021년 네이버, KT 등으로부터 30억 원의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 2023년 출시한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AI 이미지 생성 도구 ‘플라스크 제너러티브 AI’는 출시 나올 만에 사용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향후 플라스크는 사전 시각화 툴을 시스템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개발해 웹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 ‘PLASK’ 이미지
(사진 제공 : 플라스크)

3D 모델 데이터
기획부터 공급까지 지원

하이퍼이지

하이퍼이지는 공간 정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제작·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2023년 4월 설립했다.

기업명
하이퍼이지
대표자명
윤상석, 윤예림

주요 제품(서비스)
하이퍼이지
파이3D
핀치3D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hyperEZ.io



8만 개 이상 데이터로 3D 모델 만들고 판매하는 하이퍼이지 솔루션

하이퍼이지의 핵심 솔루션인 하이퍼이지(Hyper EZ)는 3D 모델링 및 디자인, 공간 기획, 3D·XR(혼합 현실) 콘텐츠 제작, 시뮬레이션 개발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이퍼이지는 8만 개 이상의 3D 데이터를 조립 생성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D 데이터 스토어 파이3D와 웹 기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핀치3D도 운영하고 있다. 파이3D는 AI 학습에 필요한 3D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스토어다. 디지털 자산으로써 디지털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현했다.

핀치3D는 기업 요청 시 맞춤형 3D 모델링을 제작해 준다. 파이3D에서 구매한 에셋(3D 콘텐츠 제작 재료)을 웹상에서 쉽게 조립해 완성할 수 있고 후작업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에듀테크 분야의 다양한 회사에서 3D 디자인 교육 도구로 핀치3D를 활용하고 있다.

하이퍼이지의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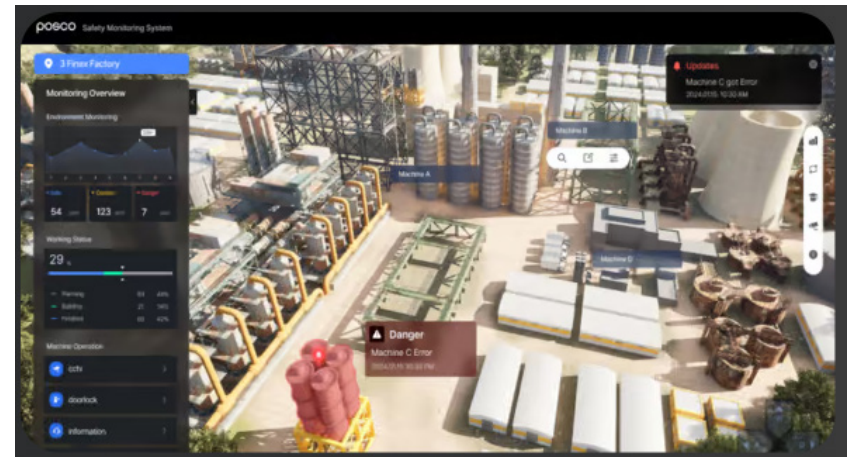
하이퍼이지는 낮은 단가로 높은 퀄리티의 3D 데이터 디자인을 공급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3D 데이터를 파이3D로 짧은 시간에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실감형 미디어 아트워크의 경우 제작 리소스를 절감해준다. 10만 개 이상의 3D 가공 데이터, 자체 3D 디자인 엔진이 이러한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하이퍼이지의 성과 그리고 미래

하이퍼이지는 3D 렌더링과 관련된 기술 R&D를 다수 진행해 다양한 산업의 문제를 3D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 하이퍼이지의 솔루션은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 콘텐츠에 활용 중이다. 포스코DX와 같은 IT 기업에는 3D 비주얼라이징 기술을 제공한다. 국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40여 건의 3D 프로젝트 솔루션을 개발 및 납품하며 높은 적중률을 자랑한다.

하이퍼이지는 현재 VR(가상 현실) 콘텐츠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AI 에이전트 기반 동물 임상 실습 VR 솔루션인 ‘심데미 VR(Simdemy VR)’을 선보였다. VR 기반 수의 해부학 교육 플랫폼으로 기존 교재, 영상 자료 등의 교육 한계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향후 VR 콘텐츠 제작 기술을 고도화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하이퍼이지 3D 모델링 솔루션 (사진 제공 : 하이퍼이지)



제조업에 AI 도입 돕는

AI 구루

AI 구루는 스마트 팩토리 지능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2023년 7월 설립했다.
기업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는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간 기준의
AI 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업명
AI 구루

대표자명
박재영

주요 제품(서비스)
구루 인사이트
구루 인스펙트
구루 오퍼레이트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머신러닝



aigurucorp.com

AIGuru

AI 구루의 솔루션 이야기

AI 구루는 기업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 이때 머신러닝 및 딥러닝,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공장 최적화 기술 등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구루 인사이트, 구루 인스펙트, 구루 오퍼레이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구루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제품의 최종 수율을 예측해 초기 또는 추가 투입량을 계산하고 적시 생산의 달성과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 이물 추적 AI 개발도 가능해 이물 분석 데이터를 입력 시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사한 이물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구루 인스펙트는 불량 제품 선별 AI, 데이터 오입력 방지 AI로 확장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루 오프레이트 솔루션은 AI 기반의 공정 레시피 최적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관리’, 설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제안하는 ‘안전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AI 구루의 차별점

AI 구루가 지닌 차별점은 제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경험으로 제조업 현장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고객사의 도메인과 문제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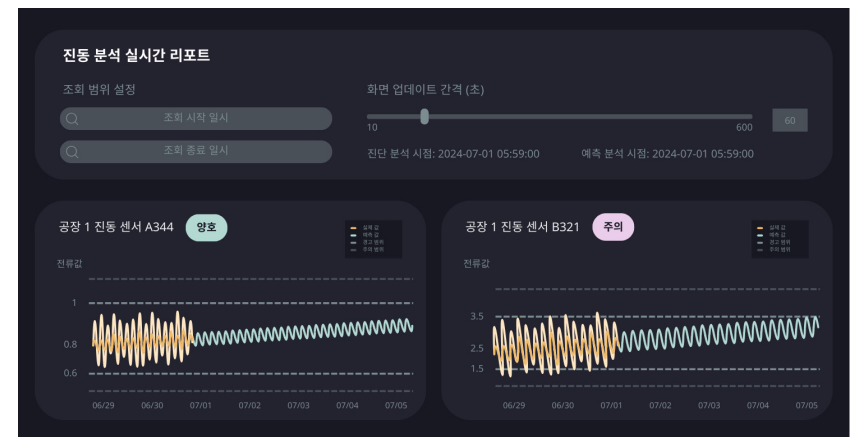
솔루션을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와 투자 수익률(ROI) 달성을 돕는다. 머신러닝 운영(MLOps) 기반의 AI 솔루션과 유지 보수 지원을 통해 AI 모델의 안정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AI 구루의 성과 그리고 미래

AI 구루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창업 1년차인 현재는 투자 유치 및 R&D 인력 추가 확보, 레퍼런스 기반 솔루션 추가 확보, 수익 모델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제조 산업으로의 고객군을 확장하고 AI 적용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부터 인프라 구축, AI 솔루션에 이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으로의 서비스 확장에도 나선다.

향후에는 구루 오피스, 구루 디자인 솔루션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루 오피스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루 디자인 솔루션은 설계 프로세스에서 AI를 활용해 주어진 설계 목표와 제약 조건에 따라 여러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구루 오퍼레이트’의 모터 진동 이상 탐지 화면 (사진 제공 : AI 구루)



한강 인공지능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 | | |
|----------|-------|
| 그라운드원 | 주피터랩스 |
| 네이션에이 | 카이어 |
| 넷록스 | 캐치플로우 |
| 모빅랩 | 테디섬 |
| 바비디 | 투와이 |
| 바이브에이아이 | 툰스퀘어 |
| 쓰리알이노베이션 | 틸다 |
| 어크로스비 | 피노랩 |
| 에이엠스퀘어 | 필로토 |
| 인절미 | |

건축물 에너지 사용 분석해
효율 최적화

그라운드원

그라운드원은 인공지능으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2년 11월에 설립했다.

기업명
그라운드원

대표자명
홍윤정

주요 제품(서비스)
아크플로우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시각지능 • 머신러닝



archflow.ai



에너지 분석 기술 기반 건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솔루션 ‘아크플로우’

그라운드원은 AI 기반 에너지 분석 및 최적화 기술로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관련 솔루션 아크플로우를 제공한다. 아크플로우는 AI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조건을 찾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건물 설계 및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개선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로 복잡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자동화했다. 기존 건축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을 인식하고 3D 모델로 변환해 건물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환경적 영향 및 에너지 소비를 시뮬레이션한다.

건물 설계에서부터 탄소 배출량 최소화 방안 제시

기존 에너지 분석 도구들은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아크플로우는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자이너 등 현장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였다는 강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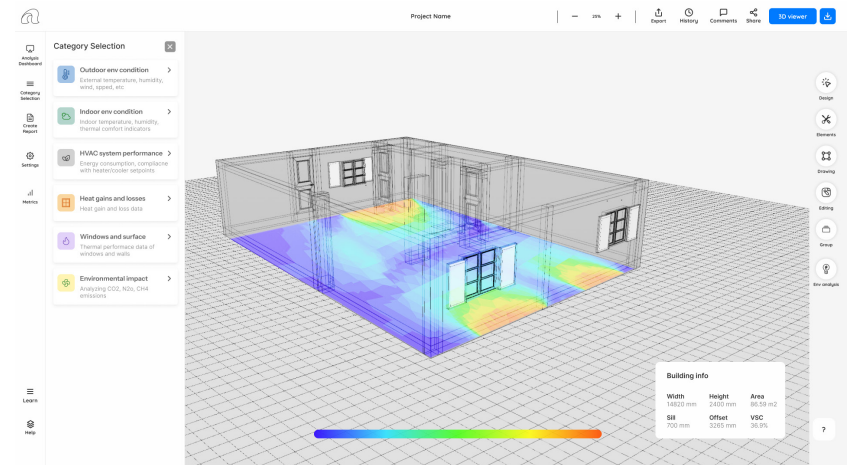
아크플로우를 활용하면 초기 건물 및 시설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 단기 프로젝트의 경우 3개월 이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라운드원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아크플로우는 프랑스 부동산 회사와 함께 PoC(개념 증명)를 진행 중이며 주거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PoC 결과 20%의 에너지 절감 가능성과 25%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보였다.

그라운드원은 현재 제품을 고도화하고 주거용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SaaS 솔루션을 개발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발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시장을 발판 삼아 각국 규제에 맞춘 솔루션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분석과 최적화를 점차 간소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건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솔루션 ‘아크플로우’ 웹 화면
(사진 제공 : 그라운드원)



맥락 이해해 생성형 AI로
모션 데이터 만드는

네이션에이

네이션에이는 생성형 AI 기반의 3D 모션 콘텐츠
제작 서비스 '뉴로이드(Neuroid)'를 서비스형(SaaS)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설립했다.
20억 원 규모의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네이션에이

대표자명
유수연

주요 제품(서비스)
뉴로이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nation-a.com

NATION A

생성형 AI 기반 3D 모션 콘텐츠 제작 서비스 '뉴로이드'

네이션에이의 뉴로이드는 생성형 AI 기반의 3D 모션 콘텐츠 제작 서비스다. 사용자가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프롬프트의 맥락에 맞게 3D 모션 콘텐츠를 만들어준다. 증강/가상 현실(AR/VR), 로봇 모션은 물론 3D 콘텐츠, 산업용 3D 데이터까지 제작할 수 있다. SaaS 서비스를 통해 단 몇 초 안에 모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뉴로이드 서비스는 3D 게임 개발자나 마케팅 콘텐츠를 다루는 3D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쉽고 빠르게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이미 2023년 10월 뉴로이드 서비스의 오픈 한 달 만에 글로벌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CES 2024서는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크래프톤, 제페토와 같은 팀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어도비, LG전자, LG유플러스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3D 모션 콘텐츠 생성 위한 기본 기술 자체 구현

네이션에이의 강점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3D 모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체 구현했다는 점이다. 2억 5,000만 개가 넘는 모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구현한 텍스트 기반 3D 모션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롯해 3D 모션 데이터셋 구축부터 생성 모델까지 자체 구현해 차별화된 모델과 제품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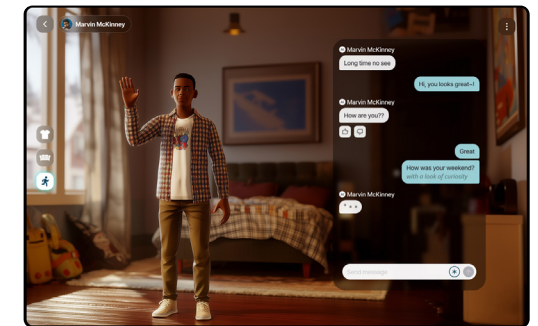
텍스트나 음성을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3D/4D 모션 콘텐츠 제작 솔루션이라는 점도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맥락을 이해하고 모션 콘텐츠를 만드는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다.

네이션에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네이션에이는 2023년 중기부 도전 K-스타트업 과기정통부장관상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극초기기업 IR 데모데이 1등상, SBA 창업허브 피칭&콘테스트 1등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갖췄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뉴로이드뿐 아니라 대중 사용자를 위한, 누구나 쉽게 3D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 3D AI 챗 서비스를 '헤이디(Hey.D)'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소형 거대 언어 모델(sLLM)과 3D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몰입감 높은 3D 캐릭터와 함께 하는 챗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네이션에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3D 콘텐츠 제작 시장 혁신과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3D 콘텐츠 제작 도구를 출시하고 대중화하는 데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AI-3D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2029년에는 글로벌 선도 AI-3D 테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3D 모션 콘텐츠 제작 서비스 '뉴로이드' 실행 화면
(사진 제공 : 네이션에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개 SW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넷록스

넷록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0년 7월 설립했다.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넷록스

대표자명
공석환

주요 제품(서비스)
록시로드밸런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엣지 컴퓨팅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보안 및 프라이버시



netlox.io

NETLOX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개 소프트웨어
'룩시로드밸런서'**

룩시로드밸런서(LoxiLB)는 넷록스의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서비스의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시킨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제공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룩시로드밸런서는 eBPF라는 차세대 커널(컴퓨터 운영 체제 제어) 기술을 활용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기업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호환성 문제 없이
효율적인 기업 네트워크
구축 솔루션 제공**

룩시로드밸런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AI 서비스와의 표준 연동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없다. 또한 지능형 텔레메트리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의 전체 가시성 및 보안성을 확보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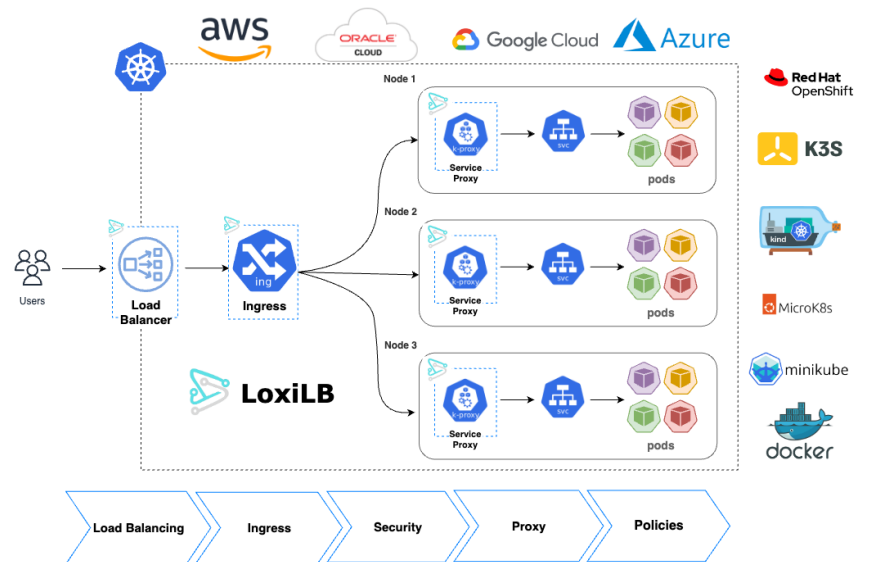
확장형 커널 버추얼 머신인 eBPF를 도입했다. SCTP 기능으로 멀티호밍을 제공하거나 두 개 이상 서버를 운영하는 HA(서버 이중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네트워크를 안정화해 서비스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넷록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룩시로드밸런서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업장 내 5G 서비스 클라우드 구성이나 IT 기업의 CNDRA(클라우드 네이티브 다이어미터 라우팅 에이전트)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CNCF(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의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넷록스는 향후 CNCF의 지원으로 자사 기술을 검증하고 업계 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샌드박스를 넘어 인큐베이팅(사업 속성지원)을 통해 글로벌 표준 네이티브 기술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다.

넷록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개 소프트웨어 '룩시로드밸런서' 이미지
(사진 제공 : 넷록스)



초음파 음향 데이터로
제조 설비 고장 진단·예측

모빅랩

모빅랩은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초음파
대역의 음향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설비의 고장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 설립했다.

15억 원 규모의 프리 A 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모빅랩

대표자명
이원근

주요 제품(서비스)
와치벳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moviclab.com/en



**초음파만 분석해
물리적, 전기적 결함
모두 진단하고 예측까지**

모빅랩의 와치뱃(WatchBAT)은 AI 기반으로 장비가 내는 초음파 음향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솔루션이다. 이를 활용해 설비 이상 신호 감지, 설비 이상 원인을 판별하고 잔여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마련할 수 있다.

와치뱃은 설비에서 초음파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고 해당 초음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설비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초음파 음향 분석 AI 알고리즘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설비 진단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동, 전류 데이터 대비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력도 보유했다.

**비접촉식 센서로
접근성 높여**

기존 설비 진단 솔루션들은 접촉식 센서(진동 센서)라 설비 표면 모양, 상태에 따라 물리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와치뱃은 초음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센서로 기존 솔루션이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설비에 적용되고 물리적 결함뿐 아니라 전기적 결함도 진단 가능하다. 초음파 데이터는 고정밀 데이터로 기존 진동, 전류 데이터보다 앞선 시점에 고장 예측이 가능하고 진단의 정밀성 역시 높였다.

일부 제조 기기는 기존 진동, 전류 데이터로 상태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초음파 분석 솔루션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원자재를 자르는 기기는 초음파로 칼날의 마모도를 측정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교체 주기를 제시한다. 모터 내 베어링은 초음파로만 윤활유 부족, 크랙 등을 진단할 수 있다.

**모빅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모빅랩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과 PoC(개념 증명)를 진행해왔다. 진공 펌프, 노칭, 모터 등 초음파로만 진단이 가능한 설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 항공 내 기계 등 비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빅랩은 작년 프리 A 투자 유치에 이어 추가로 투자 유치 중이다. 이후 제조 설비가 집중된 아시아, 미주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하고 있다.

모빅랩의 초음파 음향 데이터 기반 고장 진단 예측 솔루션 '와치뱃' KIT
(사진 제공 : 모빅랩)



AI와 머신러닝으로 기업 맞춤형
직원 교육 플랫폼 제공

바비디

바비디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직원 교육 플랫폼
'슈퍼탈런트 AI(SuperTalents AI)'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1년 6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총 7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바비디

대표자명

최정서

주요 제품(서비스)

슈퍼탈런트 AI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supertalents.ai

Bobidi

**AI로 현장 근로자 교육
효율 높이는 플랫폼
'슈퍼탤런트 AI'**

슈퍼탤런트 AI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계 내 직원 업무 교육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연어 처리(NLP)로 퀴즈 콘텐츠를 생성하고 분석하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직원 성과와 참여도를 추적한다. AI 기반 적응형 학습은 사용자의 진행 상황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하며 교육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실시간 분석도 진행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여러 조직이 동시에 플랫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성도 갖췄다.

**고객사 커스터마이징과
개인 맞춤형 퀴즈로
직원 교육 간소화**

슈퍼탤런트 AI의 차별점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직관적인 사용 방법에 있다. 기존 교육 플랫폼과 달리 직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퀴즈와 피드백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AI로 만든 맞춤형 퀴즈를 통해 직원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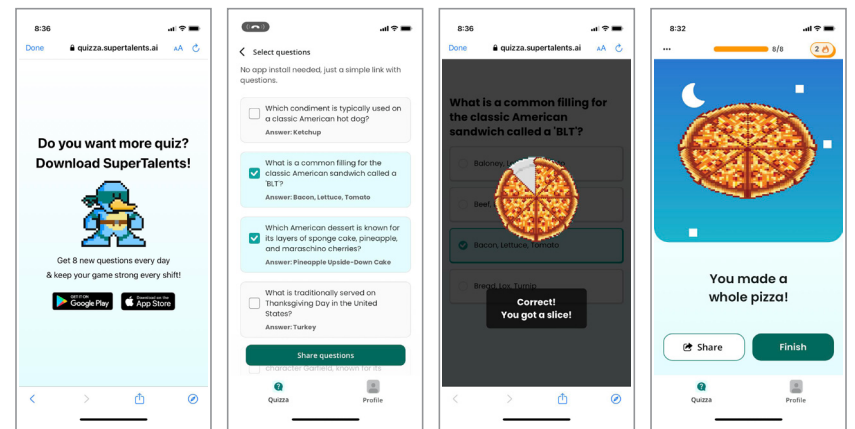
서비스 업계에 특화된 콘텐츠와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해 각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교육도 가능하다. 복잡한 설정 없이 간편한 도입으로 기술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바비디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바비디는 미국 내 8개 기업과 유료 PoC(개념 증명)를 진행 중이다. 향후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진출해 현지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업계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객 관리, 매출 향상, 팀 협업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AI 트레이닝 생태계를 구축해 현장직 근로자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바비디의 AI 기반 개인 맞춤형 직원 교육 플랫폼 '슈퍼탤런트 AI' 이미지 (사진 제공 : 바비디)



AI 딥러닝 플랫폼으로
초개인화 상품 개발 돕는

바이브에이아이

바이브에이아이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해
예비 창업 단계에 있다.

기업명
바이브에이아이

대표자명
홍준호

주요 제품(서비스)
AI 딥러닝 기반 초개인화
SaaS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vibei.ai

vibeAI

AI 딥러닝 행동 패턴 분석 기술로 초개인화 상품 개발 지원하는 플랫폼

바이브에이아이는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SaaS 플랫폼을 개발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인사이트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AAA(Aggregating Data, AI Deep Learning, Acting with Data)’ 전략에 기반한 고도화된 AI 딥러닝 모델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 행동 패턴에 맞춰 특정 관심사에 집중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API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됐다.

바이브에이아이의 차별점

바이브에이아이의 플랫폼은 5년간 600만 개 사업장의 온라인 평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 형태소 분석 엔진을 사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토론토 국제공항과 같은 대형 고객 사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으며 실사용자 데이터로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바이브에이아이는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 공항 내 Wi-Fi 무료 제공과 여행객을 위한 해당 지역의 최신 트렌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가입된 사용자는 공항 내에서 리워드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글 검색어, 메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와 댓글 등 다양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후 이를 AI 기반 분석으로 가공해 공항 및 관련 기업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공항 운영에 최적화된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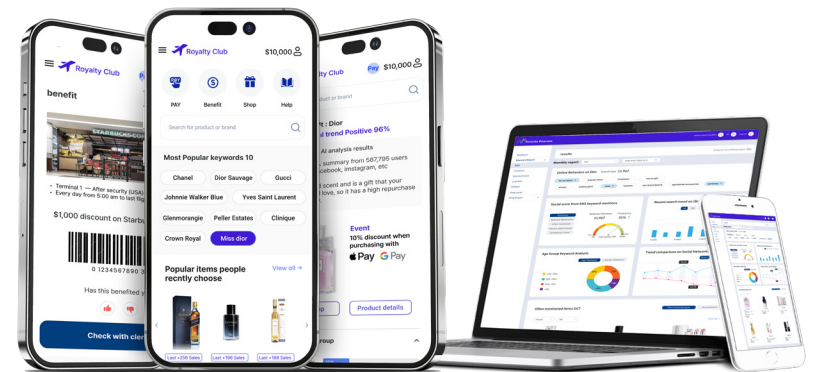
바이브에이아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바이브에이아이는 2024년 10월 캐나다 로열티 IT(Loyalty Information Technologies)와 캐나다 공항 PoC(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초개인화된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SaaS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 한다.

이 솔루션은 공항 외에도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복합 쇼핑몰, 소비재 기업, 금융 및 미디어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을 공항, 쇼핑몰, 전시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공항 로열티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바이브에이아이)



AI로 청소년 주의력·정신건강
케어해주는

쓰리알이노베이션

쓰리알이노베이션은 디지털 표현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청소년 전문 주의력·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심리,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케어하는 ‘닥터 사이먼’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강사들의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포커스팡’이 주요 서비스다.
회사는 2021년 9월 설립했다.

기업명
쓰리알이노베이션

대표자명
조광수, 이창건

주요 제품(서비스)
닥터 사이먼
포커스팡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엣지 컴퓨팅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focuspang.ai



**스마트폰 사용만으로
정신·심리 분석
‘닥터 사이먼’과
교강사 수업 지원
‘포커스팡’**

쓰리알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은 디지털 피노타이핑(Digital-Phenotyping)이다. AI 기반 디지털 감정·건강 표현 기술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 일상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을 분석해 데이터화한다. 터치, 키보딩, 눈의 움직임 등으로 주의 집중, ADHD, 우울, 중독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닥터 사이먼은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디지털 로그 데이터만으로 집중력, 학습 습관,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케어 솔루션을 제시한다. 포커스팡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강사를 위한 오프라인 수업 운영 서비스다. 선생님과 학생 간 수업 화면을 공유해 학생 관리를 돕는다. 퀴즈 프로그램 등으로 학습 흥미도를 높인다.

**AI 기반 디지털
피노타이핑 기술로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
모니터링**

기존에 감정과 정신건강 진단은 보통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이뤄졌다. 이는 응답자가 거짓 응답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디지털 피노타이핑 기술은 병원에 가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해 객관적 진단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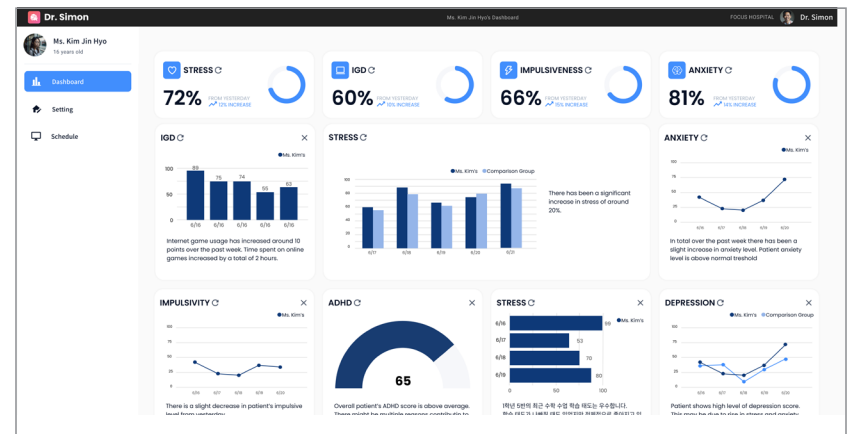
이를 탑재한 닥터 사이먼은 스마트 기기의 센서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 모니터링과 예측 및 예후 평가가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포함될 수 있는 질문에 비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2024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오프라인 수업 지원 솔루션인 포커스팡은 2024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보급됐고 35만 명이 사용 중이다. 향후 교강사 외 학부모용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대 학용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해외에서는 2024년까지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하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및 싱가포르 국립교육연구소(NIE)와 함께 싱가포르 학생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도 런칭한다. 향후 글로벌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닥터 사이먼’ 모니터링 화면 (사진 제공 : 쓰리알이노베이션)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 제공하는
어크로스비

어크로스비는 딥러닝 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으로 크로스보더 물류·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0년 5월 설립해 누적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어크로스비

대표자명
이성우

주요 제품(서비스)
워크패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머신러닝



acrossb.net



배송 과정 통합 관리 물류 서비스 '워크패드'

어크로스비는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배송 서비스는 물론 배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물류 통합 관리 플랫폼 워크패드는 멀티 스토어 연계 및 주문 관리, 통합 재고 관리, 단순 업무 자동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독성이 높은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 국가별, 스토어별 담당자가 매일의 주문 관리 및 출고 업무를 한눈에 빠르게 확인하고,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대시보드는 채널/상품별 판매 현황, 배송 리드 타임 등 데이터 기반 물류 현황이 표시된다.

플랫폼 안에서는 오픈마켓, 자사몰 등의 스토어와 해외 풀필먼트 센터의 주문/상품/재고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며, 연계된 글로벌 배송사 정보를 통해 최적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별화된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

어크로스비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채널과 지역이 연계된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채널은 아마존, 쇼피파이, 라쿠텐, 틱톡, 큐텐JP, 쇼피, 라자다 등으로 모두 연계된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지역에서 UPS, DHL, FedEx, USPS, 야마토, SF의 물류 기업과 연계된 글로벌 풀필먼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어크로스비 풀필먼트 센터는 OMS(주문 관리 시스템), WMS(창고 관리 시스템)가 연계돼 있어 주문 수집 → 재고 확인 → 반품까지 원스톱 관리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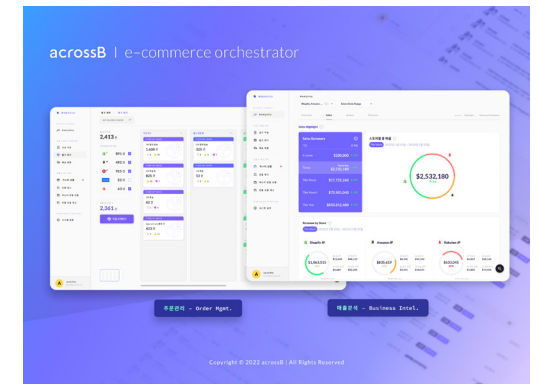
어크로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아모레, LG생활건강, 신세계인터내셔널, 조신미녀 등 40여 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업이 어크로스비의 워크패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팁스'에 선정됐다. 글로벌 팁스는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20만 달러(약 3억 원)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의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크로스비는 앞으로 스토어 연계·캐리어 연계 확대,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 연계 및 통합 확대 등 글로벌 이커머스 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머신러닝을 통한 프로모션 시뮬레이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어크로스비의 물류 통합
관리 플랫폼 '워크패드' 실행 화면
(사진 제공 : 어크로스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AI 모델 성능 관리

에이엠스퀘어

에이엠스퀘어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19년 3월 설립했다.

기업명

에이엠스퀘어

대표자명

황형주

주요 제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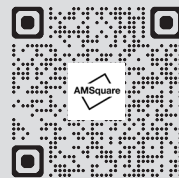
ML 성능 관리 솔루션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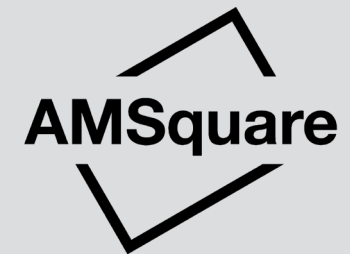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amsquare.ai



AI 모델 성능 저하 진단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ML 성능 관리 솔루션’

AI 모델의 성능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분포 변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작업 환경의 변화, 신제품 생산라인 증설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 원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에이엠스퀘어의 머신러닝(ML) 성능 관리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AI 모델의 성능과 파이프라인 건전성을 추정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AI 모델의 파이프라인 건전성을 추정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성능 저하 원인을 진단한다. 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이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데이터 비전문가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MLOps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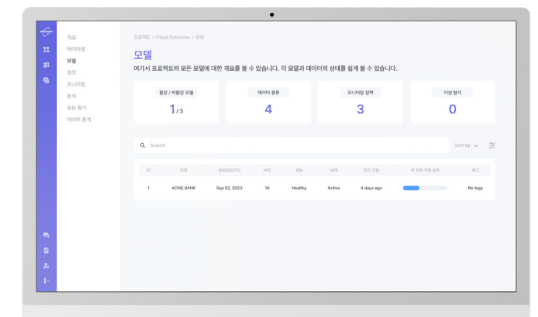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머신러닝 운영(MLOps) 솔루션은 고가인 데다 사전 지식을 많이 요구했다. 에이엠스퀘어의 솔루션은 이에 비해 콤팩트한 사이즈로 사용자가 AI 모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데이터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에이엠스퀘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에이엠스퀘어는 향후 AI 모델 성능 유지와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AIOps(IT 운영을 위한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성능 개선을 넘어 데이터 및 모델 드리프트 등 문제를 지속 관리해 AI 모델의 장기적 성능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AI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우선 문제 탐지 자동화 및 대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프라 변화, 성능 저하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 예기치 못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I 모델 성능 저하 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고객이 모델 성능 저하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측 유지보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에이엠스퀘어의
‘ML 성능 관리 솔루션’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이엠스퀘어)



게임 미션처럼 수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선보인

인절미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의 몸이 평소에 주는 신호에
귀 기울여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목표로 인절미는 게임성과 딥러닝 예측을 기반으로 한
예방형 건강 관리 솔루션 '우주두잇!(WUD!)'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월 설립했다.
현재 시드 단계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명
인절미

대표자명
문지명

주요 제품(서비스)
우주두잇!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injewelme.com



예방형 건강 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인절미의 우주두잇!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형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 게임성과 딥러닝 기반 예측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80여 개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만 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어서와요 보드게임장으로(WUD! Welcome to Board Game Caf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주두잇은 모바일 연동과 IoT, API, 비전 AI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건강 기록을 시계열 수집 및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 예측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 및 예측한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과 ‘조기 대처’로 예방형 건강 관리를 실현한다.

우주두잇!은 이미 국내에서 비만 관리에 관련해 총 4회의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전남도교육청의 도서벽지 지원사업 서비스, 제주도의 아동비만관리사업 서비스에 지원 및 참여했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 80여 개 초등학교에서 4,000명 이상 사용자가 비만 관리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 및 에듀테크 기업 등과도 공동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인절미의 차별점

인절미의 우주두잇!은 건강 관리 솔루션에서 딥러닝 기반 예측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 기반 ‘조기 발견’과 ‘조기 대처’를 구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 개인건강기록 변화 예측에 대한 실증 연구 논문은 지난 4월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에 월간 하이라이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절미의 성과 그리고 미래

건강 관리에 있어 동기 부여와 지속 가능성에 게임성을 활용한 점도 차별점이다. 특히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통해 실제 치료기법의 게임화를 구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와 파트너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공유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 건강 관리 생태계를 구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인절미는 2020년 3월 설립 이후 제주도 아동비만관리사업 ‘해피챌린지’에 우주두잇!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지사 설립 이후 현지에서 국립기관, 기업 등과 다수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파일럿 테스트와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2024년 9월 기준 시드 단계로 5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향후 인절미는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치료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안구 관리, 피부 관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5년 내 아시아 최대의 아동·청소년 전문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절미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만 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웹 및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 : 인절미)



동대문 패션 데이터로
최적의 물류 솔루션 제공하는

주피터랩스

주피터랩스는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패션 물류 사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관리(SCM)
통합사업계획(IBP)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사는 2022년 10월 설립했다.

2024년 12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주피터랩스

대표자명
안강휘

주요 제품(서비스)

위빙
위빙-X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jupiterlabs.com

 **JUPITER LABS**

AI·머신러닝 기반 물류 사업 솔루션 ‘위빙’과 해외 진출 서비스 ‘위빙-X’

주피터랩스의 주요 서비스인 위빙은 발주, 사입, 입고, 재고 관리, 배송, 정산, 수요 예측 등을 제공하는 IBP 솔루션이다. 기존 정보 및 통합 DB 생성 알고리즘, AI·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수요 예측 기반 의사 결정 등을 구축한다. 자체 풀필먼트까지 보유하고 있어 물리적 물류 서비스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에서 국내 운송 및 국제 배송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2024년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2,000평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고 특송과 포워딩 서비스 위빙-X를 신규 런칭했다. 위빙-X는 다양한 해외 판매 플랫폼과 연동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패션 사업자들의 국내 및 해외 모든 업무를 단일 솔루션으로 처리 가능하다.

위빙과 국제 특송, 포워딩사들의 연동으로 해외 판매 플랫폼의 주문 수집부터 재고 관리, 출고, 해외 배송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뤄진다.

동대문 패션 데이터로 공급망 이은 통합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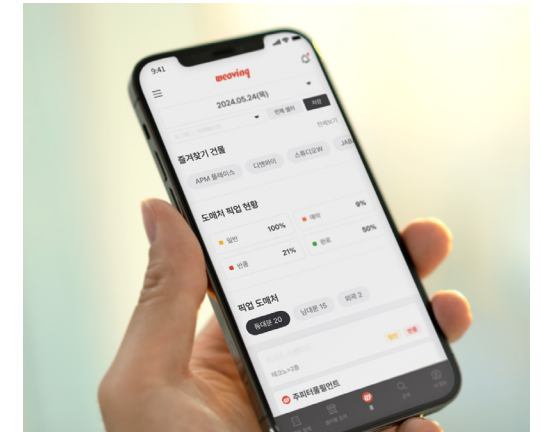
기존에는 시스템 간 통합이 어렵고 기존 정보 체계가 없어 전체 공급망을 관리할 통합 솔루션이 없었다. 위빙과 위빙-X는 기존 동대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망과 연결돼 있는 IBP 솔루션이다.

주피터랩스는 한국 공급망 데이터를 선점해 솔루션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고객사 중 일본 패션 커머스 플랫폼 누구(NUGU)와 연동한 인프라를 구

주피터랩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축했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여러 국내, 해외 판매 플랫폼부터 주문 관리 시스템, 특송사 시스템을 연동해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주피터랩스는 2024년 8월 기준 누적 매출 16억 원, 월 거래액은 20억 원을 달성했다. 패션 플랫폼 및 브랜드사 4,000곳 이상과 계약을 맺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프리 A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24년 10월 런칭한 위빙-X도 계속 고도화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솔루션을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풀필먼트센터를 확장해 신규 화주 영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관리 통합사업계획
솔루션 ‘위빙’의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 : 주피터랩스)

클릭 한 번으로 비전문가도
AI 구축하는 플랫폼 제공

카이어

카이어는 인공지능 비전문가도
최적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MLOps(ML옵스, 머신러닝 모델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11월 설립했다.
2020년 퓨처플레이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카이어

대표자명
이교혁

주요 제품(서비스)
KAI.S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엣지 컴퓨팅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 머신러닝



kaier.co.kr

Kaier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MLOps 솔루션 'KAI.S'

카이어는 클릭 한 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AI 모델을 구축하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MLOps 플랫폼을 제공한다. 카이어의 핵심 솔루션은 KAI.C와 KAI.S로 이뤄진다.

우선 KAI.C로 고객사가 갖고 있거나 활용하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바뀐 데이터를 KAI.S가 15시간 안에 전부 학습하고 검증한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지정하고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만으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KAI.S는 이미지, 테이블, 시계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 및 운영할 수 있어 제조업체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군에 활용된다.

전문가 없이 쉽고 저렴하게 AI 모델 구축

카이어의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구동 방식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보유하는 산업 전문가가 AI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GPU(그래픽처리장치)에서 구동할 수 있어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솔루션을 고객사 내부에 위치한 컴퓨터에 설치해 고객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카이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카이어의 솔루션은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등의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삼성, LG, 농심, 한국콜마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은 카이어의 솔루션을 제조 결함 검출, 공정 불량 원인 분석, 공정 최적화, 프로세스 최적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카이어는 향후 금융, 헬스케어,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고객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중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고객사 20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공용 클라우드 기반 ML옵스 플랫폼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도 발을 넓히겠다는 포부다.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MLOps 솔루션 'KAI.S' (사진 제공 : 카이어)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대중화 나서는

캐치플로우

캐치플로우는 초음파를 이용해 특정 영역에만
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을 개발했다.

2018년 6월 설립해 삼성벤처투자,
현대자동차제로원, 씨엔티테크 등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캐치플로우

대표자명
김태영

주요 제품(서비스)
SRAY-S
SRAY-D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보안 및 프라이버시



catchflow.co.kr

 CATCHFLOW

캐치플로우의 솔루션 이야기

캐치플로우는 특정 영역에만 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을 개발한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지향 특성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만 소리를 집중해 원하는 특정 지역에만 소리를 전달한다. 40킬로헤르츠(KHz) 초음파 대역에 음을 실어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 소리가 전송될 때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리지만 사물 혹은 사람에게 부딪혔을 때는 귀에 들리게 된다. 이를 통해 소리의 확산을 제어해 2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사용자 인식 센서 및 카메라로 사용자 자세 인식과 상황 인식을 통해 지향성 스피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캐치플로우의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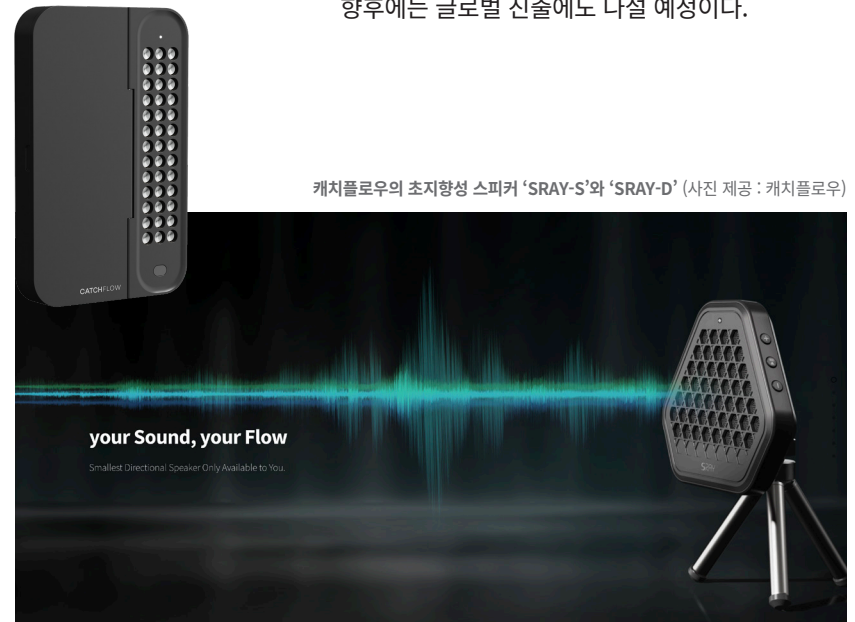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손쉬운 사용을 위한 소형화, 제품 단가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특징이다. 또한 최적 설계를 통해 저전력, 장기적 제품 수명,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추가 설치 모듈(AMP)이 불필요하고 마운트의 체결의 범용성이 높아 설치가 유용하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뛰어난 범용성이 장점이다. 일체형, 모듈형으로 구성돼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사이니지와 키오스크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마트, 미술관, 버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활용성이 높다.

캐치플로우의 성과 그리고 미래

캐치플로우의 스피커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지향성 스피커 SRAY-S는 아시아문화원, 서울시 서울비엔날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등에 적용됐다. 또한 사용자 인식형 초지향성 스피커 SRAY-D는 일본 경시청의 협조로 도쿄의 ATM 20곳에 설치돼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도로 정보 시스템 업체 세이와 일렉트릭(SEIWA Electric)과 지향성 스피커 하드웨어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캐치플로우는 현재 사용자 자세 인식, 상황 인식 및 사용자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AI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지향성 스피커와의 융합을 통해 일본 금융 피해 예방 서비스 및 지능형 CCTV 등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수의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글로벌 진출에도 나설 예정이다.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 ‘SRAY-S’와 ‘SRAY-D’ (사진 제공 : 캐치플로우)

한국어 특화 LLM으로
글쓰기 자동 평가 지원

테디섬

테디섬은 자연어처리(NLP) 전문 기업이다.
한국어 특화 언어 모델 '블러섬(bllossom)'을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2021년 1월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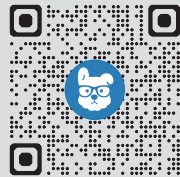
기업명
테디섬

대표자명
함영균

주요 제품(서비스)
블러섬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teddysum.ai



**한국 문화 학습한
한국어 특화 언어 모델
‘블러썸’**

블러썸은 오픈소스인 라마3.0, 라마3.1을 기반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를 학습해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다. 이는 대화 이해와 요약, 글쓰기 자동 평가가 가능하며 요약 및 추론 능력에 특화됐다.

테디썸은 블러썸을 활용해 이미지 추론 언어 모델 ‘블러썸-V’, 한국어 글쓰기 자동 평가 솔루션 ‘라이팅-이벨(writing-eval)’, 블러썸 특화 LLMops(거대 언어 모델 운영) 솔루션 ‘bLang’ 등을 주력 제품으로 제공 중이다.

**ELO 기술로 데이터
학습 효율성·가성비 높여**

테디썸은 블러썸에 자체 증별 최적화(ELO)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학습을 효율화했다. 학습 기간과 비용이 타사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최소한의 데이터로 효율적인 학습을 통한 특수 도메인 적용에 유리하고 AI를 통한 글쓰기 자동 평가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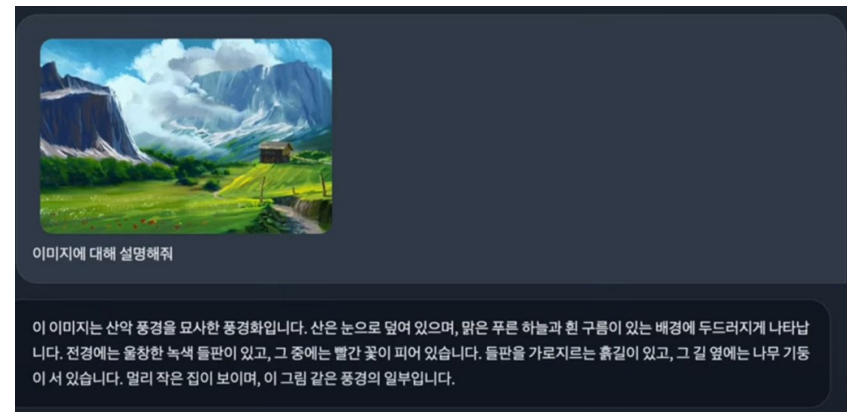
고객 맞춤형 소형 거대 언어 모델(sLLM) 개발을 위해 고객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며 자체 LLMops인 bLang을 통해 운영·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테디썸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블러썸은 금융권, 공군 등에서 LLM 기반 자동 코딩, 통·번역 등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다. 테디썸은 이를 더욱 경량화해 2024년까지 ‘블러썸 라이트’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라이트 버전은 GTX 12기가 바이트(GB) 이내에서 학습 및 구동할 수 있다. 블러썸-V는 2026년에 도메인 특화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해 표, 차트, 엑스레이(X-ray) 등 의료 이미지 추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화 언어를 확대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2025년까지 한국어를 넘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등 소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블러썸-MoE’를 선보일 예정이다.

테디썸의 이미지 추론 언어 모델 ‘블러썸-V’ 사용 사례 (사진 제공: 테디썸)



AI·AR 활용해 인테리어
자재 가격 거품 해소한

투와이

투와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서비스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7월 설립했다. 6억 원의 프리 A 투자를
비롯해 누적 7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기업명
투와이
대표자명
양도현
주요 제품(서비스)
인버즈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머신러닝



twowhy.co.kr

TwoWhy

AI 기반 인테리어 자재 견적 최적화 솔루션 '인버즈'

인테리어 시장은 여전히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 집행이 만연해 고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투와이의 핵심 솔루션인 인버즈(Inbuzz)는 인테리어 자재·시공 시장의 비과학적인 자재 물량 산출 방식과 수의 계약 중심의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한다.

인버즈는 도면 인식 기술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인테리어 자재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다양한 인테리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요구에 맞는 자재 제품을 최적의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역경매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외에도 현장 실측에 증강 현실(AR) 측정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한 현장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동일한 자재·시공 퀄리티도 AI로 가격 절감

투와이의 솔루션 인버즈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기술로, 물량 및 공급 가격의 최적화로 복잡한 인테리어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품을 해소할 수 있다는 특징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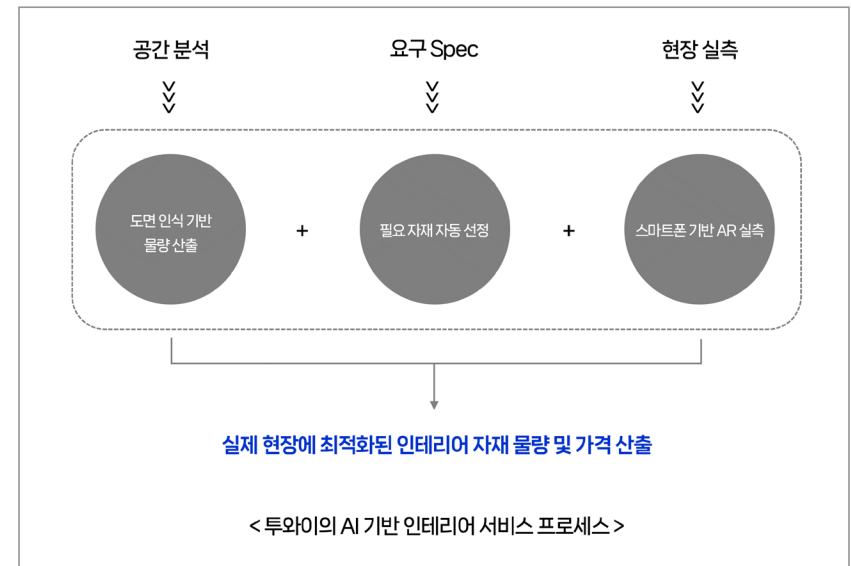
단순히 제품 등급 또는 시공 퀄리티를 낮추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 등급 및 시공 퀄리티 기준에서 테크 기술을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와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투와이는 현재 F&B, 병의원, 학원,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산업 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고객사들은 인버즈 인테리어 서비스를 통해 평균 20% 이상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고 있다.

투와이는 도면 인식, AR 실측 등 핵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현장 맞춤 견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자동 견적 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인테리어 구매자, 인테리어 판매자, 하도급업체 등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이 목표다.

투와이의 AI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프로세스 (사진 제공 : 투와이)



누구나 AI 크리에이터 될 수 있는

툰스퀘어

툰스퀘어는 웹툰을 중심으로 한 AI 콘텐츠 저작 툴
'투닝(Tooning)'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AI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체 웹툰 생태계를 확대한다.
2017년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젝트 'C랩(C-Lab)'을 통해
공식 출범했고, 2019년 분사했다.

기업명

툰스퀘어

대표자명

이호영

주요 제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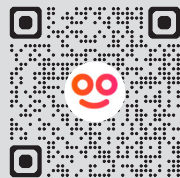
투닝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자연어처리 • 생성형 AI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toonsquare.co

TOONSQUARE

STORIES CHANGE THE WORLD

툰스퀘어의 솔루션 이야기

현재 50만 명 이상의 유저가 툰스퀘어의 튜닝 교육, 튜닝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가장 안전한 생성형 AI 수업으로 튜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튜닝 교육은 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1만 4,000여 명 이상의 교사, 22만 5,000여 명 학생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는 이미지 및 웹툰을 생성하는 기능과 다양한 위인, 직업군의 화자와 대화하는 GPT 기능 등이 포함된다.

튜닝 스튜디오에서는 작가 AI를 통해 스토리를 기획하고 이미지, 웹툰을 창작할 수 있다. 현재 더그림엔터테인먼트, 노틸러스, IPX 등 웹툰 스튜디오와 AI 콘텐츠 창작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 고도화를 협업하고 있다.

툰스퀘어의 차별점

툰스퀘어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TTT(Text to Toon), TTI(Text to Image), 실시간 이미지 생성 등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글이나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튜닝 GPT로 이야기(스토리보드)를 기획하고 튜닝 매직으로 생성을 원하는 화풍(김홍도풍, 이중섭풍, 반실사) 등을 선택 및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누구나 AI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튜닝은 기존 웹툰 제작 과정에 툰스퀘어의 AI 기반 웹툰 자동 생성 기술을 적용해 저비용·고품질의 웹툰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인도 쉽고 빠르게 일상툰과 콘티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웹툰 창작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창작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

툰스퀘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툰스퀘어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Stories Change the World)”를 모토로 누구나 AI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웹툰 기술 분야 ‘퍼스트펍권’ 선정, 스타트업콘 배틀필드 대상, 부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툰스퀘어는 향후 미래의 AI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 ‘1% 창작가들이 누리는 기쁨을 99% 일반인들도 느끼게 만든다’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이다. 전문 웹툰 작가들의 작업 효율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웹툰 제작 서비스도 2025년 상반기 런칭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툰스퀘어 서비스 ‘튜닝 교육’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툰스퀘어)



예측 알고리즘으로 기업 비즈니스
의사 결정 최적화하는

틸다

틸다는 제조,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최적화 인공지능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3월 설립했다.
프리 A를 비롯해 총 1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틸다

대표자명
정지량

주요 제품(서비스)
아그맥스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tilda.co.kr



**사람의 경험, 직관을
알고리즘화한 비즈니스
솔루션 ‘아그맥스’**

틸다의 핵심 솔루션인 아그맥스(ArgMax)는 사람의 경험, 직관에 의한 의사 결정들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해 최적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구매, 제조, 운송 등 사업 전반의 비용과 자원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제조 설비의 경우 자재 투입 속도, 장비 세기 등을 조절해 생산량은 높이고 불량률과 에너지 소비량은 줄일 수 있다.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설비 제어는 태양을 탐색하는 AI 모델을 연동해 최소한의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 전기세를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컨테이너 적재와 트럭 배차를 최적화해 운송 비용과 원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알파고처럼
미래 예측해서
의사 결정 값 계산**

기존 비즈니스 최적화 솔루션은 RPA(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등을 활용했으나 이는 최적화가 아닌 단순 개선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그맥스는 기존 딥러닝이나 강화 학습 방식이 아닌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솔루션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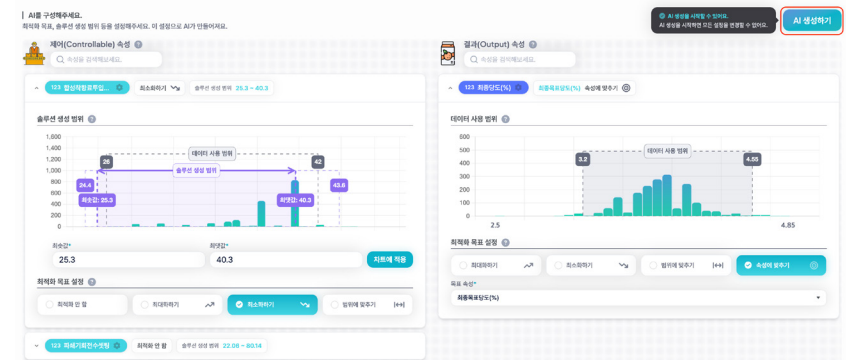
틸다의 솔루션은 ‘산업용 알파고’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에 더해 예측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 결정 값 계산이 가능하다. 수학적 최적화나 강화 학습에 비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의사 결정 관련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낮은 리스크로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틸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틸다는 맞춤형 솔루션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 중이다. 향후 적용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수요를 파악해 해당 솔루션을 서비스화하는 방식으로 구독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한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미국, 유럽, 베트남 등에도 추가 법인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후지전기와 개발 중인 원재료 선물 구매 최적화 솔루션을 광물, 희토류, 곡류 등까지 확장해 차기 서비스로 출시할 계획이다. 물류 분야도 현재 개발 완료한 컨테이너 짐짜기 최적화 등을 서비스화할 예정이다.

틸다의 ‘아그맥스’ 솔루션 이미지 (사진 제공 : 틸다)



AI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만든

피노랩

피노랩은 워터 테크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워터소물리에'를 개발했다. 2021년 6월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 시드 투자 5억 원을 유치했다.

기업명
피노랩

대표자명
안성원

주요 제품(서비스)
워터소물리에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pinotlab.com

P Pinot
Lab

생수 유통 솔루션 ‘워터소물리에’

피노랩의 워터소물리에 플랫폼은 생수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사 품질 평가 기준과 접목해 생수 커머스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 채널별, 고객별 맞춤 생수 브랜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분석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물맛, 성분, 스토리텔링 정보와 같은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생성형 AI로 분석한 결과는 자연어 형태로 도출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한다. 제품 관련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현재 피노랩은 전 세계 60여 개국 1,000여 개 생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생수 유통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다시 추가 데이터 확보 기반이 된다.

생수에 IT를 접목한 독보적 워터 테크 스타트업

피노랩은 전통적인 유통 산업인 워터 분야에 IT 기술을 활용한 워터 테크 스타트업이다. 국가대표 워터소물리에, 글로벌 워터 전문가와 협업해 수립한 워터 정보, 물맛 및 품질 평가 기준을 보유 중이다.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판매 데이터를 쌓으며 국내 생산자,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넓혀 글로벌 워터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해외 워터 전문가, 해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내 생수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워터 커머스 판매 체계도 구축 중이다. 향후 생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커머스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커머스 솔루션을 자사몰에 시범 적용한 결과(10월 기준) 2024년 연초 대비 월 매출이 5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피노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피노랩은 설립 후 매년 300%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4년까지 국내 기업과 B2B 유료 멤버십 4건을 진행했다. 피노랩은 연내 10건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도 총 4건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피노랩은 개발 및 시범 적용 중인 유통 솔루션을 향후 더욱 고도화해 해외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판매 예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로 수출하고 싶어하는 국내 생수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해외 규정을 토대로 수출 적합도 등을 분석하는 AI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자체 프리미엄 워터 브랜드를 개발해 장기적으로는 티, 커피, 음료까지 확장을 목표하고 있다.

피노랩의 ‘워터소물리에’ 모바일 앱 이미지 (사진 제공 : 피노랩)



AI 앱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 돕는다

필로토

필로토는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습관 교육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모바일 앱 '타키'를 개발한 기업이다. 2022년 5월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설립했다. 현재까지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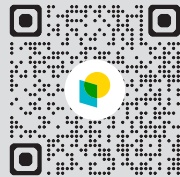
기업명
필로토

대표자명
이다영

주요 제품(서비스)
타키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기술 분야
• AI 도구 및 플랫폼
• 시각지능



pilotokr



AI 캐릭터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자세 지키도록 돕는 ‘타키’

타키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앱을 구동하면 AI 캐릭터가 등장해 사용 잔류 시간을 표시해준다. 미리 설정한 사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라고 말해주는 식이다. 캐릭터는 아이들과 챗 GPT 기반의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며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문장으로 말을 건다.

또한 비전 AI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기기 사용 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기기와 아이 사이의 적정 거리를 파악해 화면을 너무 가까이 보고 있거나 누워서 보고 있다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알려준다.

자발적 습관 형성과 영어 학습 효과 돕는 모바일 앱

타키는 사용 시간, 시청할 콘텐츠 개수 등을 사용자 인 아이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약속한 사용 규칙을 지키도록 인터페이스를 친숙하게 디자인했다. 강제적 통제 대신 사용자의 자발적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영어 버전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빈도를 늘려 아이의 영어 학습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모바일 앱은 무료이며 아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고민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필로토의 성과 그리고 미래

타키의 현재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1만 명, 누적 다운로드는 20만 건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사용률이 23%가량으로 사용 빈도가 높다.

타키는 향후 미국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용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적으로 중학생 연령부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 그간 확인된 시장 반응과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제품군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필로토의 AI 모바일 앱 ‘타키’ 이미지
(사진 제공 : 필로토)



지능형 에이전트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굿앤와이즈
브이다임

블라스트
스타일에이아이

생성형 AI로 수능 국어 학습 돕는

굿앤와이즈

굿앤와이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해력 학습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7월에 설립했다.

설립 1년 만에 매출 1억 5,000만 원을 달성했다.

향후 4년간 16억 원의 매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명
굿앤와이즈

대표자명
최성호

주요 제품(서비스)
스키마리딩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분야
• 생성형 AI



goodnwise.com

GOOD & WISE
굿앤와이즈

굿앤와이즈의 솔루션 이야기

굿앤와이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수능 국어(비문학) 학습 프로그램 스키마리딩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수업용 LMS를 탑재한 ‘스키마클래스’를 런칭해 학교 및 학원 현장에서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해력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굿앤와이즈의 문해력 전문 AI 튜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돕는다. LLM을 비롯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표준적이고 안정적으로 문해력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진다. 대치동을 비롯해 입시 컨설팅, 학습 컨설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튜터의 영역을 문해력에서 컨설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굿앤와이즈의 차별점

굿앤와이즈 솔루션의 차별점은 오프라인 중심이던 대치동 교육의 학습 데이터를 AI 기술과 딥러닝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대치동 전문 입시,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로 구현해 컨설턴트의 업무를 돕는다. 소비자들에게는 AI 입시 컨설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대치동 클래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

굿앤와이즈의 성과 그리고 미래

굿앤와이즈는 최고의 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며 교육도 투자처럼 인식돼야 한다는 미션을 갖는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대치동 교육 콘텐츠를 국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2024년 10월 현재는 국내 학교 2곳에서 굿앤와이즈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치동 및 지방 학원,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굿앤와이즈는 기존의 문해력 학습 프로그램인 스키마리딩을 수업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스키마리딩을 학교 및 공공기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한다.

굿앤와이즈의 ‘스키마리딩’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굿앤와이즈)

2. 수능 비문학 영역별 필수 개념 지도

[2022학년도 수능 비문학에 출제된 경제 스키마 예시]

경제

- 공급곡선
- 수요곡선
- 시장
- 경쟁
- 시장균형
- 시장실패
- 공공재
- 외환시장
- 국제무역
- 국제금융

스키마란?

스키마는 단순한 배경지식 암기가 아닌 '일반화'와 '추상화'를 통한 '개념의 지도'를 말합니다.

통화정책

통화시표

통화승수

유동성

...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

...

스키마 학습으로 개념의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팬과 소통 가능한
실감형 AI 버추얼 만드는

브이다임

브이다임은 2020년 5월 설립해 2022년 벤처스퀘어와
KOCPI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버추얼 스트리머와 팬덤을 위한
3D 아바타 기반 AI NPC(논 플레이어 캐릭터)-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업명
브이다임

대표자명
김영완

주요 제품(서비스)

TIH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AI 도구 및 플랫폼
- 시각지능
- 음성 및 언어지능



vdigm.com



버추얼 스트리머 위한 AI 기반 토탈 서비스 제공

브이다임은 생성형 AI와 반응형 AI 솔루션을 가상 스테이지 AI 및 딥리얼 기술과 결합한 스트리머용 TIH(Tomorrow, In Here) 서비스를 12월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손쉽게 3D 아바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다임의 TIH 서비스는 2D 이미지로 3D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과 웹캠을 이용하여 얼굴과 동작의 자연스러운 풀 3D 모션 트래킹을 구현하는 ‘반응형 AI 아바타’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공간과 3D 배경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버추얼 스테이지 AI’ 기술도 적용된다.

이로써 브이다임은 고비용 없이 누구나 3D로 가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모션 트래킹에 필요한 장비가 고가인 반면, TIH 서비스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웹캠만으로도 3D Full 모션 트래킹을 구현할 수 있다.

브이다임의 차별점

브이다임은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스트리머와 팬들의 가상 경험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스트리머들의 기존 플랫폼인 트위치, 치지직, SOOP 등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과 연동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스트리머가 오프라인 상태이어도 AI NPC가 이어서 팬들을 위한 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추얼 스트리머의 페르소나와 방송을 학습한 동일한 외형의 아바타와 3D 가상 공간 및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방송 경험과 콘텐츠가 있는 버추얼 스트리머는 자신의 3D 아바타와 동일한 외형의 AI NPC를 생성해 팬들과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 AI NPC는

브이다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트리머의 말투와 행동 패턴을 학습해 스트리머가 부재 중에도 팬들에게 스트리머의 개성과 성향을 반영하여 팬들과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브이다임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실감형 3D 아바타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2021년부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돼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2023년 3월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에 선정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양재로 이전했다.

브이다임은 2025년 TIH 서비스 글로벌 시장 런칭을 위해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킥스타터 캠페인, 디지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TIH 서비스를 웹툰과 웹소설에도 적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브이다임의 딥러닝 기반 3D 아바타
생성 플랫폼 ‘TIH’ 이미지
(사진 제공 : 브이다임)



기업 맞춤형 AIOps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업무 효율화 돕는

블라스트

블라스트는 인공지능 기반 UX·UI 등
기업 IT 비즈니스 솔루션 '엠비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3년 1월 설립했다.

기업명
블라스트

대표자명
배정현

주요 제품(서비스)
엠비션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보안 및 프라이버시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blast-team.com



**AIOps 기반 데이터
업로드·분석 UI
구축 솔루션 ‘엠비션’**

기업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그때 그때 업로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엠비션은 기업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UX와 UI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엠비션은 AIOps(AIOps, IT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라벨링 없이 학습 및 분류하며 업로드한 문서들의 정확도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분석 후 이미 입력된 내부 데이터를 참고하는 RAG(검색 증강 생성) 기능으로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를 노출시킨다. 기업을 이를 활용해 업로드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수 시간을 줄이면서 업무용 UI를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 오류, 라벨링 없는
맞춤형 UI를 비전문가도
쉽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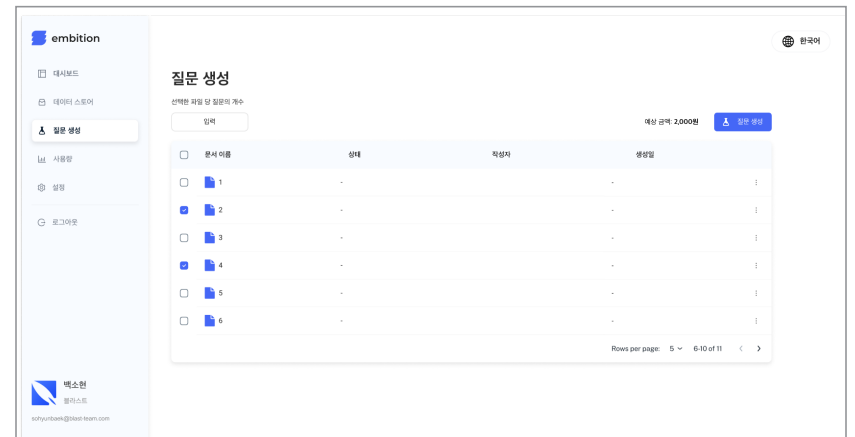
엠비션은 개발 지식이 없는 유저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AI 오피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일반 직원이 시와 연동할 데이터를 관리하고 등록하기 수월하다.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했고 별도 라벨링 없이 데이터 학습과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직급과 부서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기능으로 기업 내 업무 맞춤형 UI를 실현할 수 있다.

**블라스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블라스트는 2024년 2월 AI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자동차 중고 부품 거래 플랫폼인 지맨오토파트스와 함께 국내 중고차 부품 데이터 자동 분류 및 생성 AI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3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블라스트는 자체 AI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고객사와 협력하며 레퍼런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어때, SM 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AI 솔루션 구축과 PoC(개념 증명)를 진행 중이다. 향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직관적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RAG를 활용한 데이터 우선도 측정, 다양한 업무 툴과 API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AIOps 기반 데이터 업로드 및 분석 UI 구축 솔루션 ‘엠비션’ 실행 화면 (사진 제공 : 블라스트)



디자인부터 모델까지
만들어주는 패션 AI

스타일에이아이

스타일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패션 모델·패션 디자인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0년 6월 설립했다.
9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스타일에이아이

대표자명
백하정

주요 제품(서비스)
스타일시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 분야
· 생성형 AI



styleai.io



사람 없이 AI가 피팅 모델 만들어주는 ‘스타일AI’

스타일에이아이의 핵심 서비스인 스타일AI는 AI를 기반으로 의류 제품 사진에서 피팅 모델 사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자들은 모델 섭외 없이 모델 사진을 생성할 수 있다. AI가 제품의 길이감과 착용감을 분석해 적절한 모델 사진을 만든다. 인종, 연령, 얼굴, 헤어 등 모델의 외모는 ‘마이 모델’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의류 디자인 자체를 도와주는 AI 디자인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무드보드 제작,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외모와 디자인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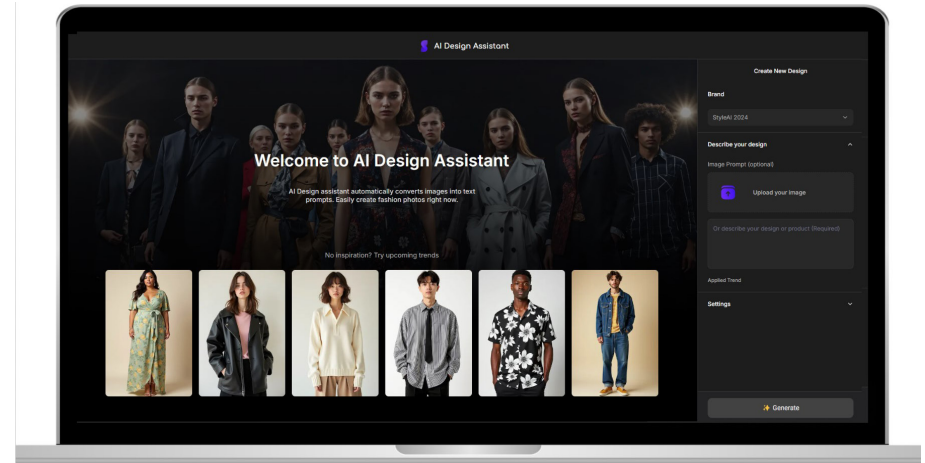
기존의 가상 피팅 서비스들은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 아바타에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반면 스타일AI는 상품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가상 착용 기술로 기존 대비 5배 빠르게 가상 착용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패션 트렌드 데이터, 알고리즘 전문가를 통한 스타일링 방법을 조합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AI 디자인 어시스턴트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패션 디자인을 자동 생성한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패턴, 색상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AI가 최근 시장 데이터를 융합해 사실적인 디자인을 내놓는 식이다. 주로 OEM·ODM 고객사들이 상품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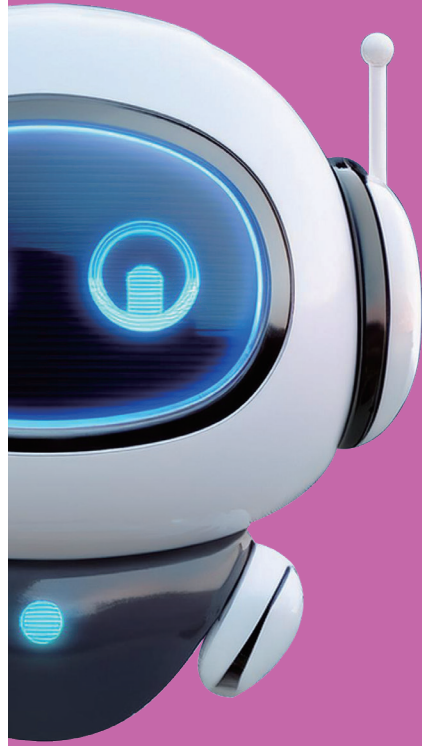
스타일에이아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타일에이아이는 2023년 3월 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됨과 동시에 서울 AI 허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기존 피팅 사진 모델의 초상권 사용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얼굴을 비롯한 모델을 바꾸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향후 피팅 모델 이미지·영상 생성 솔루션을 중심으로 패션·뷰티·잡화 분야에서 차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AI 기반 가상 패션 모델 및 패션 디자인 어시스턴트 ‘스타일AI’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스타일에이아이)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매크로엑트
별따리가자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자율로봇으로 24시간
실버 케어 플랫폼 개발

매크로액트

매크로액트는 자율로봇을 이용한 24시간 실버 케어
플랫폼 '마이라이프(mailife)'와 스마트홈 로봇
'마이캣(maicat)'을 개발했다. 회사는 2019년 5월 설립했다.
30억 원 규모의 프리 A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명
매크로액트

대표자명
강의혁

주요 제품(서비스)

마이라이프
마이캣

사업 분야
로보틱스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 AI 도구 및 플랫폼
- 강화학습



macroact.com



ARTSYS

아르시스에서 제작된 로고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해보세요!
명함 / 연필 / 필기구 / 각종 기념품 등 후원물품에 사용 가능한 로고입니다.

**실버 케어 플랫폼
‘마이라이프’와
로봇 반려 고양이
‘마이캣’**

마이라이프는 실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로봇에 AI를 결합해 개인의 홈케어를 돕는 플랫폼이다. 로봇의 센서를 이용해 활동량, 음식·약 복용, 온도·습도 등을 측정해 결과를 앱을 통해 알려준다. AI를 활용해 문 열림 등 주변 환경과 낙상 등 개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설정된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는 고령층 일상 자립을 지원하고 기관 및 생활지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매크로엑트는 이를 적용한 로봇도 직접 개발했다. 마이캣은 고양이 자율로봇으로 탑재된 초소형 컴퓨터와 카메라, 마이크를 이용해 반려인과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낸다. GPT 기반 음성 대화를 통한 교감도 가능해 심리적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다.

**사각지대와 사생활 침해
없는 24시간 케어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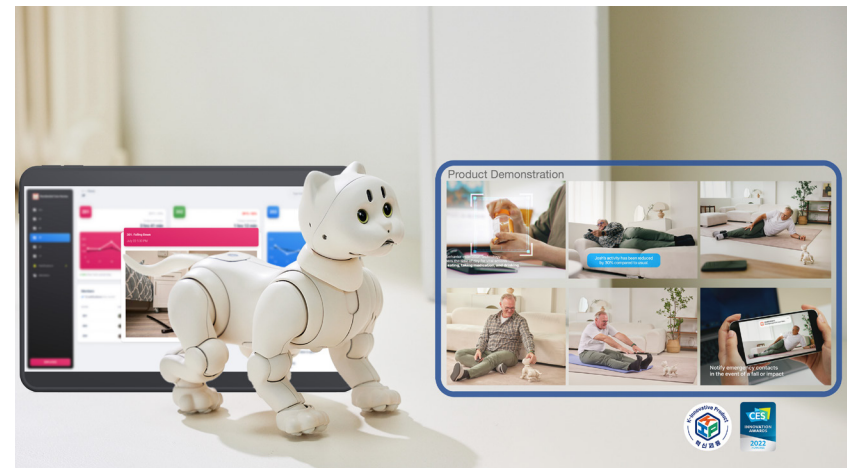
기존의 IoT 기기나 서비스는 각각의 기계를 문, 창문 등에 고정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늘고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매크로엑트의 솔루션은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해 하나의 기기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홈 로봇인 마이캣은 AI와 반려동물의 특성을 결합한 로봇으로 사용자가 사생활을 침해 받는다는 느낌 없이 24시간 케어 받을 수 있다.

**매크로엑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매크로엑트는 2024년 마이캣에 대해 조달청과 129억 원 규모의 제3자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스마트홈 제품 및 솔루션의 B2G를 확장하고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취득을 통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목표다.

마이캣에 제3자 IoT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앱스토어처럼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해 업로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IoT 생태계를 형성할 방침이다.

매크로엑트의 AI 기반 4족 보행로봇 ‘마이캣’ (사진 제공 : 매크로엑트)



IoT 접목 모빌리티
종합 안전 서비스 구현한

별따러가자

별따러가자는 모션 센서가 포함된 AIoT를 통한
모빌리티 안전, 이동 관제 서비스
'라이더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2월 설립했다.

기업명
주식회사 별따러가자

대표자명
박추진, 김경목

주요 제품(서비스)
라이더로그

사업 분야
로보틱스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클라우드 및 SI 인프라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star-pickers.com

별따러
가자

모빌리티 종합 안전 솔루션 '라이더로그'

2023년 10월 론칭된 별따러가자의 모빌리티 종합 안전 솔루션 라이더로그(RIDER LOG)는 모션 센서가 포함된 AIoT를 활용한 모빌리티 안전, 이동 관제 서비스다. 자체 개발한 모션 센서와 독자적 모션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관제를 통한 즉각적 사고 확인이 가능해 스마트 안전 시티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IoT 설치와 관리, 안전 관제, 안전 점수 산출 기능을 단일 웹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확한 운행 이력 데이터의 확보와 안전 점수 산출 기능은 사용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한다. 안전 점수와 연계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했다. 서비스 론칭 이후 사용자 및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별따러가자의 차별점

별따러가자는 독자적인 모션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모션 센서, 앱과 서버, AI 클라우드 등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위한 전 분야에 걸친 기술을 자체 개발, 내재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 기술은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 자동 구조 시스템 표준 기술로 인정돼 농어촌 이륜차사고 구조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정부나 기업 시장,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도 크다. 국내 정부 시장에서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 모빌리티와 킥보드, 농기계, 전동휠체어 등 500만 대 이상의 안전 관리 수요가 기대된다. 기업 시장에서도 350만 대 규모의 법인 관리 차량 시장에 활용할 수 있다.

별따러가자의 성과 그리고 미래

별따러가자는 LG디스플레이, 포스텍, 신한-HGIM 등에서 약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다수의 수상 경력도 있다. 2020년 5월 디캠프 디데이 우수, 2020년 10월 서울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최우수상, 2021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우수 스타트업 선정, 2021년 제2회 신한 스퀘어브릿지 Hero IR-Day 대상 등이다.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각종 차량의 관리가 가능한 종합 서비스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각종 보험, 금융, 편의 시스템과 연계된 모빌리티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며 해외 사업 진출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모빌리티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와 연계한 종합 서비스 패키지 구성에서 구독 및 서비스 수수료 모델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종합 안전 솔루션 '라이더로그'의 구현 프로세스
(사진 제공 : 별따러가자)



인건비 80% 절감하는
주방 로봇 개발

웨이브라이프 스타일테크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웨이브)는
식당업 운영 자동화를 위한 조리·식재료 정량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다. 2018년 8월 설립했다.
98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기업명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대표자명
김범진

주요 제품(서비스)
넥서스

사업 분야
로보틱스

기술 분야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wavehq.com



AI 소프트웨어 활용한 주방 자동화 로봇 ‘넥서스’

웨이브의 핵심 제품인 넥서스(NEXUS)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음식 조리 및 식재료 정량 기능을 하는 주방 로봇이다. 로봇이 물건의 개수를 인식할 수 있는 말단효과장치(End effector) 기술을 활용해 식재료를 정량하고 볶음, 튀김, 구이 등 대다수 음식을 조리한다.

정량 소분부터 가열 조리까지 자동화한 ‘넥서스 핫(NEXUS HOT)’ 제품의 경우 1대당 3명의 인력 대체가 가능하다. 시간당 최대 240인분을 자동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웨이브의 솔루션으로 주방 운영 인건비를 최대 80% 절감할 수 있다.

가열 조리과 재료 정량을 하나로 통합한 로봇 세프

넥서스는 기존 가열 조리만 자동화하는 조리 로봇들과 달리 식품을 정량 소분하는 디스펜서가 하나의 로봇에서 작동해 1대당 실질적 자동화율이 높다. 자체 개발한 주방 로봇 시스템 관제 소프트웨어 ‘로키스(ROKIS)’와 로봇 제어 반도체 칩 ‘파라데이(Faraday) 1’로 조리 전 과정을 숙련된 주방장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다수의 로봇 모듈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모든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사람의 명령 없이 빠르고 정확한 조리가 가능하다.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의 성과 그리고 미래

웨이브는 2024년 한 해 동안 10개의 B2B 계약을 신규 체결했고, 넥서스 제품군에 대해 삼성 웰스토리 본사와 PoC(개념 증명)를 완료했다. 웰스토리 내 추가 도입과 공항, 휴게소 등 편의시설 등 납품을 논의 중이다.

해외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 사우디 부동산 개발사와 사우디 내 리조트, 오피스 빌딩에 로봇 키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 주요 테크 기업 내 구내 식당의 로봇 키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웨이브는 자사 자동화 로봇 기술을 활용해 주방 현장을 넘어 식품 제조업으로도 진출했다. 현재 농업법인 나래 계란지단 포장 라인, 마카로니 교반기 자동화와 SPC 펄택 베이커리 라인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9년까지 주거와 헬스케어 분야 자동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의 디스펜서 로봇 ‘넥서스’
(사진 제공 :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인공 지능 영역의 가능성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클라우드

더블유닷에이아이

디아비전

디어젠

리틀캣

모닛

비트리스

프리베노틱스

AI로 구강 데이터 분석해
보철물 제작 지원

글라우드

글라우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스템을 활용해
치과 보철물 주문 제작 관리 솔루션 '저스트스캔'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0년 9월 설립했다. 현재 80~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2024년 9월)하고 있다.

기업명
글라우드

대표자명
지진우

주요 제품(서비스)
저스트스캔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디지털 덴티스트리



gloud.io

gloud

구강 데이터 SaaS에 올리고 3D 프린터로 보철물 출력 '저스트스캔'

저스트스캔은 전문 인력 없이 치과 내 진료 직원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 주문만 하면 원하는 보철물을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SaaS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파트너 가공사들이 AI를 활용해 보철물의 디자인을 작업하는 방식이다. 제작된 디자인을 전달 받은 병원은 3D 프린터를 통해 병원 내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재방문 없이 치과에서 1시간 안에 진료부터 치아 보철물 식립까지

저스트스캔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임시 치아, 인레이 제작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로써 병원 재방문이 어려운 환자도 진료부터 보철물 제작까지 1시간 내 가능한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구현했다.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의료진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는 등 기존 보수적인 의료 산업 구조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또한 3D 프린터를 자체 생산해 가격을 낮추고 현장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치기공사들이 사용하기 편한 UX·UI 환경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클라우드의 성과 그리고 미래

클라우드는 설립 이후 2023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기업에 선정됐으며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학계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클라우드의 3D 프린터 사용량은 월 평균 38% 증가하고 있고, 유료 고객도 40곳 수준으로 지속 확장 중이다.

또한 3D 프린터를 개선해 2025년까지 AI 기반 자동 보철 디자인 생산이 가능한 톨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원내 치과 솔루션 소요 시간을 30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도 목표하고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두바이, 뉴욕 등 해외 전시회도 참가할 계획이다.

구강 데이터로 보철물을
출력해주는 3D 프린터
(사진 제공 : 클라우드)



초음파 이미지로 인공유방보형물
진단 AI 솔루션

더블유닷에이아이

더블유닷에이아이는 2023년 2월 설립한 의료용 진단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AI 유방보형물 진단 솔루션을 초음파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다. 인벤션랩으로부터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의사와 개발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2024년 7월에는 틱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기업명
더블유닷에이아이

대표자명
김재홍

주요 제품(서비스)
W Expert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w-ai.ai

w.ai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솔루션 이야기

더블유닷에이아이의 W Expert는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한 인공유방보형물 구별 및 부작용 진단 AI 솔루션이다. 일반 여성과 보형물이 있는 환자에서 보형물과 관련한 정보 및 다양한 부작용을 진단해 유방 검진 의사들에게 완전한 유방 관련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서비스다. 현재 국내 20여 개의 병·의원에서 연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차별점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솔루션은 100만 장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유방외과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이사에 의해 개발돼 실제 진료 환경에서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성능의 제품이다.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진단 시 보형물을 삽입한 환자에서 파열이나 구축과 같은 보형물과 관련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유방진단 솔루션 W Expert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병원 환경에 맞춰 여러 버전의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서비스는 설치형, 클라우드형, SDK, API 방식 모두 지원되며 다양한 의료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PACS)과의 연동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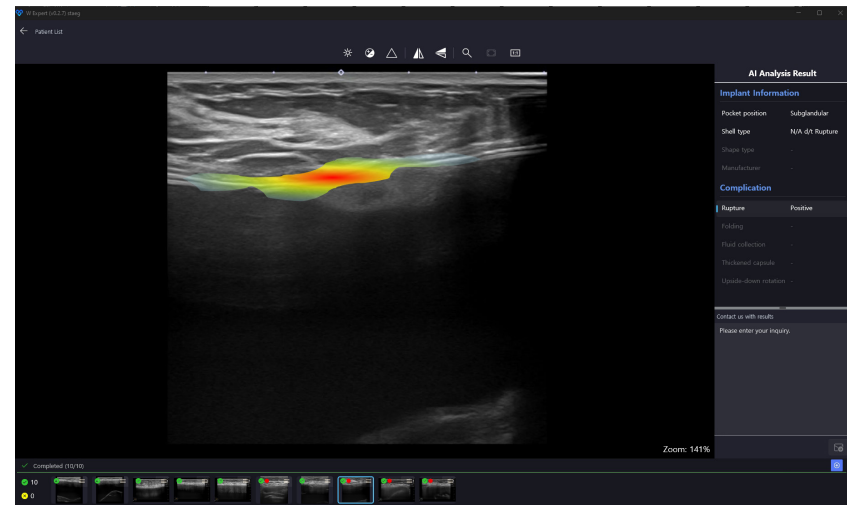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연구 버전의 W Expert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지의 20여 유방외과클리닉에서 사용되고 있다. 2023년 7월 벤처 인증, 2024년 5월 GMP 인증 등을 받았으며 국내외 식약처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초음파 이미지뿐 아니라 유방촬영술(MMG) 이미지를 이용한 보형물 진단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인증 후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영상의학과, 유방외과, 성형외과, 내과,

산부인과)부터 배포되고, 전 세계 수많은 유방검진 센터에 자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블유닷에이아이는 향후 원격 진료와 개인 초음파가 허용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대비했고, 이제부터는 10년 뒤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은 식약처 승인 후인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MMG 이미지를 이용한 유방보형물 파열 진단 솔루션의 국내외 식약처 승인 이후에는 3년 내 연 매출 1,000억 원을 목표하고 있다.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한 인공유방보형물 구별 및 부작용 진단 AI 솔루션 'W Expert' 화면
(사진 제공 : 더블유닷에이아이)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개인 생체
데이터로 질병 분석·관리

디아비전

디아비전은 삼성전자의 혁신 바이오 기술과
소프트웨어(SW)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에서 분사해 2021년 10월 설립했다.
1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디아비전

대표자명
이석용

주요 제품(서비스)
스마트비전
디지털백신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 머신러닝



diavision.co.kr



**집에서 ‘스마트비전’으로
생체 데이터 분석하고
‘디지털백신’으로
관리까지**

디아비전은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분석해주는 스마트비전과 질병위험 관리를 돕는 디지털백신을 개발한다.

스마트비전에는 각 신속진단키트 이미지를 인식하고 정량 분석하는 AI, 고성능 디지털 이미지프로세싱 기술, 다양한 검사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 증강 기법이 사용된다. 이를 활용해 현장이나 집에서 바이오마커를 직접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와 개인건강기록,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데이터를 복합 분석한다. 디지털백신은 스마트비전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질병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별다른 검사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홈테스트 대중화**

디아비전은 기존 소형 검사 장비가 필요하던 정량 분석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해당 기술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개발 중이지만 디아비전은 삼성전자 내에서 2010년도부터 개발에 나서 앞선 기술력을 지녔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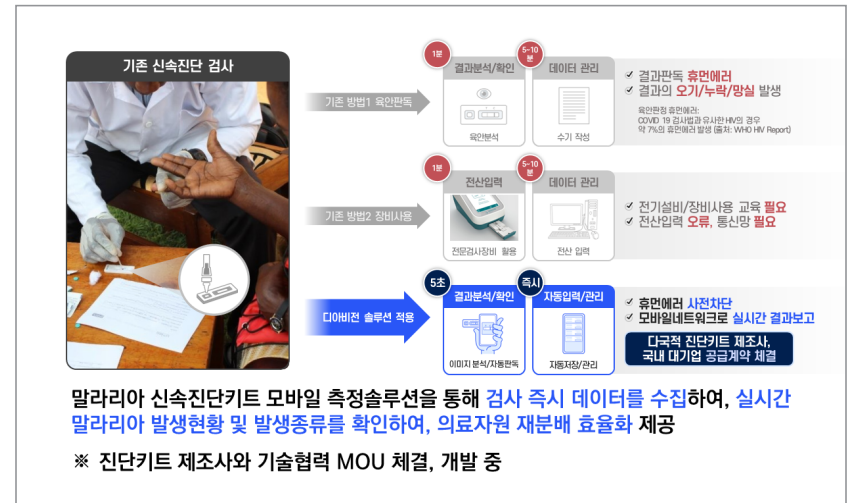
디아비전의 스마트비전은 기존에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부착해야만 했던 다른 모바일 솔루션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자체만 가지고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편차 보정 기술로 한정된 검사 환경을 요구하던 다른 모바일 솔루션과 달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디지털백신을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디아비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디아비전은 스마트비전의 부분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국내 대기업과 미국 진단키트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디지털백신 개발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타민D 측정 솔루션과 디지털 배란·임신 진단 솔루션을 2024년 내로 런칭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의 비타민D 상황을 모니터링해 영양제 복용 효과를 확인하고 가정 내 호르몬 검사로 임신 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5년 B2C 서비스 런칭을 기점으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아비전의 스마트 진단키트 (사진 제공 : 디아비전)



AI로 화합물 결합 예측해
신약 개발 돕는

디어젠

디어젠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16년 12월 설립했다. 현재까지 27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기업명
디어젠

대표자명
강길수

주요 제품(서비스)
디어DTI
디어글루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AI 연구 및 개발



deargen.me/ko

DEAR EN

**단백질-화합물 결합
예측 ‘디어DTI’와
분자 접착제 ‘디어글루’**

디어젠의 핵심 제품은 디어DTI(Dear Drug-Target Interaction)와 디어글루(DearGLUE) 플랫폼이다. 디어DTI는 단백질과 화합물 간의 결합을 예측하는 AI 기술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최적화한다. 이는 질병을 유도하는 타겟 단백질과 약물 후보 물질 간 상호 작용을 분석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한 후보를 선별한다.

디어글루는 ‘분자 접착제’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약물 개발이 어려웠던 타겟을 대상으로 신약을 발굴하는 플랫폼이다. 분자 접착제는 단백질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해 분해할 단백질을 유도하는 새로운 신약 개발 방식을 제공한다.

**신약 개발 전 과정에
AI 도입해
시간과 비용 절감**

디어젠은 단백질과 화합물 간 상호 작용 예측, 분자 접착제 설계,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까지 AI 기술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보 물질을 빠르게 도출하고 검증하며 개발이 어려운 타겟에 대한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을 가속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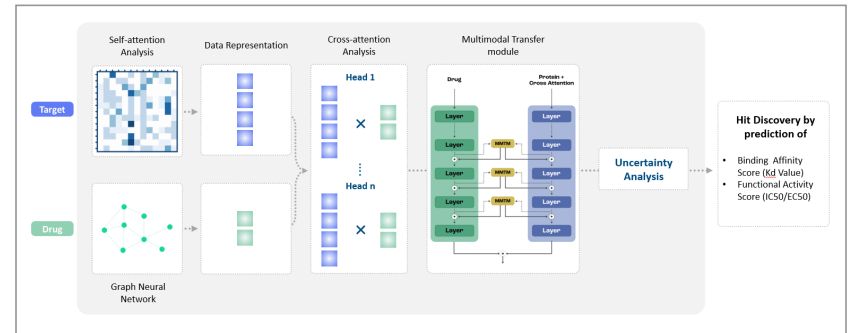
또한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새로운 치료법의 빠른 상업화가 가능하다. 코로나19의 경우도 AI 트랜스포머 기술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최초로 예측했다. 시장 수요가 높은 화장품도 AI 기술을 활용해 피부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디어젠의
성과 그리고 미래**

디어젠은 현재 한국식품연구원, 경찰청 등 20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독일 세렌젠과 LG생활건강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신약과 화장품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디어젠은 향후 AI를 활용한 분자 접착제 혁신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AI 툴 개발에 집중하며 코스메틱 신소재 발굴 등 사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단백질과 화합물 간의 결합을 예측하는 AI 기술 ‘디어DTI’ 프로세스 (사진 제공 : 디어젠)



데이터로 반려동물
건강·복지 향상

리틀캣

리틀캣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해 분석하는 제품군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9월 설립해 누적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는 프리 A 시리즈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명
리틀캣

대표자명
김대용

주요 제품(서비스)

인펄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도구 및 플랫폼
- AI 연구 및 개발
- 강화학습 · 머신러닝



thelittlecat.kr



the Little Cat

리틀캣의 솔루션 이야기

리틀캣의 캣바디(체성분) 측정기 인펫은 고양이가 하루를 보내는 집안에서 먹고, 놀고, 휴식을 취하며 건강해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콘셉트로 설계됐다. 고양이가 발이 센서 플레이트에 닿으면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BIA) 기반으로 다양한 생체 데이터(체중, BMI, 체지방, 내장지방, 체수분, 단백질, 골밀도, 근육 총 8가지)를 측정한다. 수집된 체성분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틀캣은 반려동물의 운동량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IoT 스마트 캣휠인 'B612 Cat Planet'을 시장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고양이가 캣휠을 돌리는 동안 운동량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장 건강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고양이 모래 'MEDISAND'와 개 소변 패드 'MEDIPAD' 제품은 반려동물의 소변을 분석해 신장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틀캣의 차별점

리틀캣의 주력 제품인 인펫은 BIA 기술을 활용해 주요 생체 데이터를 정확하고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펫의 가치 제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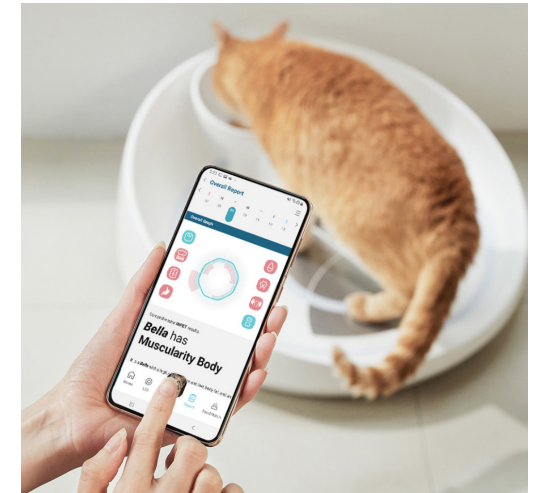
식욕 조절 조명 'Diet LED', 음성으로 전달되는 '데일리 건강 브리핑', 체성분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리포트'와 정확한 영양 요구량을 계산해 '적합한 사

리틀캣의 성과 그리고 미래

료와 급여량 추천', 데이터로 기록되는 '건강 관리와 성장 일지'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는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역할을 한다.

리틀캣은 창립 이후 IoT 스마트 캣휠과 메디샌드 등 기존 제품을 미국, 태국, 뉴질랜드, UAE, 일본, 폴란드 등 총 9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내 기업과도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리틀캣은 데이터 기반의 기술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펫 라이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틀캣의 캣바디 측정 솔루션
'인펫' 화면
(사진 제공 : 리틀캣)

유아부터 노인까지
기술로 케어하는

모닛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모닛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만든다.
현재는 기저귀 감지 기술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2017년 4월 설립해 현재까지 4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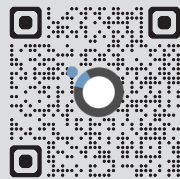
기업명
모닛

대표자명
박도형

주요 제품(서비스)
맥스 프로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로봇 및 자율 시스템



monitcorp.com

The logo for MONIT, featuring a stylized blue circle with a white dot inside, followed by the word "MONIT" in a bold, sans-serif font.

모닛의 솔루션 이야기

모닛은 유아부터 노인을 위한 기저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베이비 케어 제품은 유아용 기저귀 케어 시스템, 모닛 스마트 수유 등, 힘시트 등이 있다. 노인을 위한 제품으로는 맥스 기저귀 케어 시스템이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중에 시설용 기저귀 케어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닛의 맥스 프로(MECS PRO) 기저귀 관리 시스템은 고령자 대상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및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이 시스템은 고정밀 멀티 센서를 활용해 기저귀의 오염도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감지된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간병인에게 전달돼 필요한 시점에만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노인 환자의 건강을 유지 및 욕창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현재 맥스를 일부 개선해 가톨릭대학교 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온누리요양센터 등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모닛의 차별점

모닛의 기저귀 관리 시스템은 전용 기저귀를 사용할 필요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이에 시스템 도입에 부담이 없고 경제적이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와이파이 가 불안정한 해외 요양시설의 환경을 고려해 특별한 네트워크 연결 없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자인 또한 사용자를 고려해 설계됐다. 센서 부착 시 이질감이 없도록 센싱 스트랩을 매우 얇고 좁게 디자인했다. 또한 기저귀에 용변이 닿는 전체 범위를 커버하여 센싱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길게 제작했다.

모닛의 성과 그리고 미래

모닛은 사람이 일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과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모닛의 목표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서울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서초구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본 배설케어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26년에는 AI를 활용해 배설 예측 및 자동 변환 침대 ‘AI배설케어로봇(가제)’을 선보일 예정이다. 환자용 침대에 AI 기술 및 좌변기를 결합해 배변의사를 예측하고, 배변 의사 인지 시 침대를 변형시켜 좌변기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모닛은 맥스 프로를 위주로 한 해외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 개발 및 해외 B2C 시장을 런칭할 예정이다.



모닛의 솔루션 ‘맥스 프로’
(사진 제공: 모닛)

다중 오믹스 데이터
분석으로 신약 개발 돕는

비트리스

비트리스는 '팬오믹스(Pan-Omics)'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제약 고객사에게
맞춤형 신약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2021년 3월 설립해 현재까지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비트리스

대표자명
홍윤석

주요 제품(서비스)
팬오믹스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virtris.com



다중 분석생물학 분석으로 신약 개발 돕는 '팬오믹스'

비트리스의 주요 서비스인 팬오믹스는 유전체, 대사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 여러 오믹스(분자생물학 기반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정밀 의료 기반의 오믹스 데이터 분석으로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

팬오믹스 분석 플랫폼은 유전체 모델링 기반 분석으로 대상 약물에 대한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환자 선택 기준을 최적화한다. 또한 신규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운 치료 루트를 도출한다. 임상 단계에서는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신약 처리 이후 중요 유전자 및 신호 경로 변화를 탐색하는 약물 내성 기전 규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립적인 오믹스들 통합해 암 치료약 개발에도 강점

기존 단일 오믹스 분석 기술은 DNA와 같은 하나의 분자 수준만 보여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팬오믹스 분석은 다수의 오믹스 정보를 통합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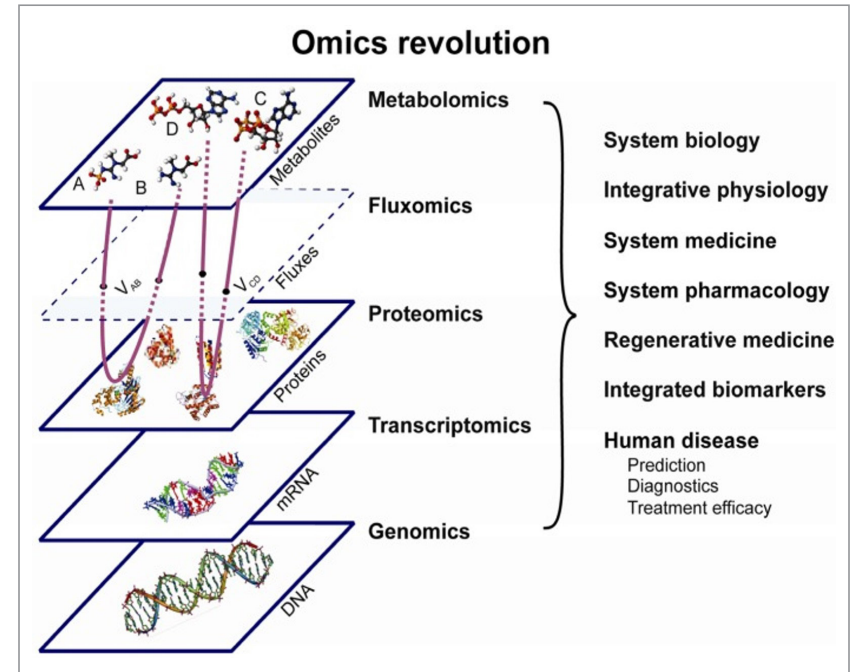
서로 독립적인 층위의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통합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이전의 원인 단계에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암과 같은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약 개발 과정 초기에 오믹스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장성이 높은 특정 적응증을 타깃해 신규 물질을 선별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비트리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트리스는 2022년 셀렘메드의 신약 항암 표적치료제 관련 계약에 이어 2023년 상반기 지아이노베이션과 2024년 10월 현재 개발 중인 신약 면역항암제에 대한 팬오믹스 데이터 분석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U-TECH 벨리' 사업에 선정됐다.

비트리스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셀렘메드 및 지아이노베이션 등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타깃 발굴, 적응증 확대 서비스 보급을 확장할 방침이다. 제약회사와 IP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동 물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트리스의 '팬오믹스' 분석 서비스 구조 (사진 제공 : 비트리스)



AI로 암 예방·관리 돕는

프리베노틱스

프리베노틱스는 인공지능 기반 암 예방과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회사는 2021년 7월 설립했다.
카카오벤처스와 미국 기반 VC 500 글로벌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는 프리 A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명
프리베노틱스

대표자명
장수연

주요 제품(서비스)
프리베노G
베노틱스-G
프리베노틱스-G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생성형 AI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 AI 연구 및 개발
• 시각지능 • 머신러닝



prevenotics.co.kr



프리베노틱스의 솔루션 이야기

프리베노틱스는 실시간 진단을 통해 위암 예방 관리를 지원하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고위험 환자가 심각한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생존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암 단계부터 암까지 포괄적인 AI 실시간 동시 진단과 최적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중 모달 AI 개인 맞춤형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2024년에 식약처 2등급 인정을 받은 두 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AI 솔루션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의료원, 부산 좋은병원(은성의료재단) 등 내시경 검진 및 진단을 수행하는 국내 주요 병원에서 시범 사업 및 관련 실증·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프리베노틱스의 차별점

프리베노틱스는 암을 포함한 모든 전암 질환에 집중해 실시간으로 다수의 질환을 동시에 AI로 진단할 수 있는 ‘위암 예방 목적’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운영한다.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흐름을 고려했으며 환자들이 정확한 예방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높인다. 또한 표준화된 영상 데이터 접근성을 통해 환자 주도의 의료 및 비의료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욱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프리베노틱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프리베노틱스는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 절차를 개선해 초기 판매 성과를 확보하고, 미국 FDA 허가를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진단’을 기반으로 한 ‘환자 예방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친절하고 개인화된 상담 및 추적·예방 관리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화기 암에 대한 AI 개발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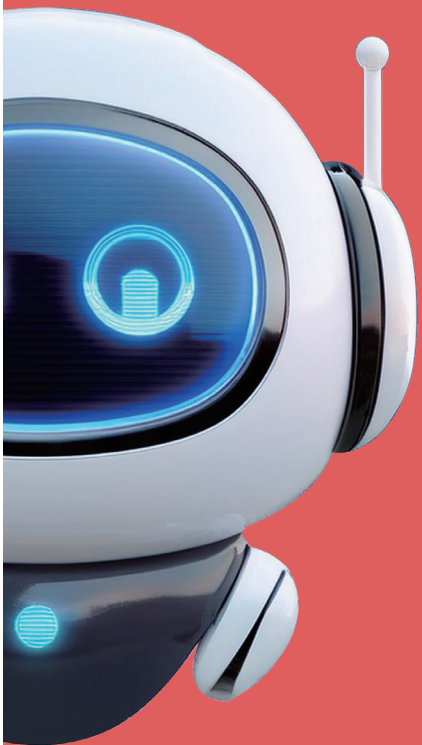
향후 표준화된 예방 데이터를 환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환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효과적인 예방 관리 솔루션을 글로벌하게 제공해 중증암 전환을 100% 막는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프리베노틱스는 장기적으로 AI 기반 전암 진단 기술을 통해 암 예방 관리의 혁신을 이루고, 생명을 구하는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한다. 환자 개인화된 소화기 암 관련 영상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해 암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 모든 환자가 암의 고통과 위협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프리베노틱스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프리베노틱스)



인공지능 프로세서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에임퓨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하는
AI 칩 솔루션

에임퓨처

에임퓨처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NPU(신경망 처리 장치) 하드웨어를 IP(설계 자산)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2020년 10월 설립했다.
2023년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명
에임퓨처

대표자명
김창수

주요 제품(서비스)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 시리즈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 SDK

사업 분야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 분야
• 컴퓨터비전 • 자연어처리
• 엣지 컴퓨팅
• AI 연구 및 개발
• 머신러닝



aimfuture.ai

AIM FUTURE

AI 학습 특화 반도체 NPU 설계 자산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스튜디오'

NPU는 동시 다발적인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로 AI 딥러닝, 추론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다. 에임퓨처의 핵심 솔루션은 NPU 가속기 하드웨어인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다.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는 고객이 사용하기 쉬운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형태로 공급된다.

에임퓨처의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저성능 디바이스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엣지 인프리카까지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소비전력, 비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AI 칩 IP를 제공한다.

적용 분야 따라 NPU 칩 설계 최적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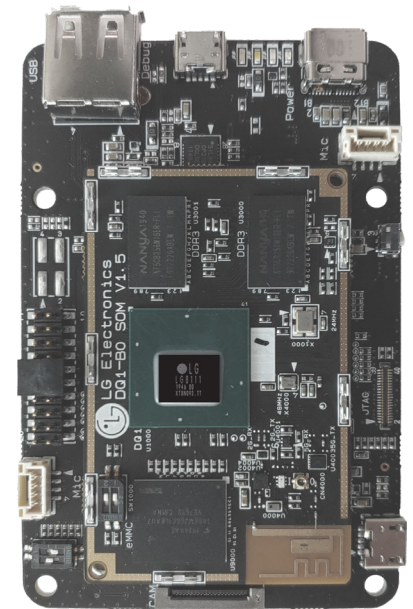
에임퓨처의 뉴로모자이크 기술은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성능 범위가 넓다는 확장성을 지닌다.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처리 작업을 동적 변경할 수 있어 멀티모달을 가능하게 한다. NPU 내 기능 블록들의 크기 선택권을 넓혀 필요에 따라 칩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고객사는 반도체 PPA(Power·Performance·Area, 에너지·성능·면적) 설정이 자유로워 각 분야에 맞게 최적의 칩을 설계할 수 있다. 세탁기의 모터 제어, 냉장고 음성 인식, 현관 얼굴 인식 등 NPU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

에임퓨처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에임퓨처는 NPU IP 특화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가전 제품 시장을 넓히기 위해 LG전자와 업그레이더블 가전 내 칩을 검증된 IP로 만드는 데 협력 중이다. 스마트홈 사업 분야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모델의 시스템온칩(SoC) 칩 설계를 통해 팹리스 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NPU 아키텍처인 가이아(GAIA) 개발을 통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솔루션 기업 에이직랜드와의 협력으로 멀티프로젝트 웨이퍼 칩을 제작하고, 2025년 3월에 실리콘 검증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에임퓨처의 NPU 하드웨어
(사진 제공 : 에임퓨처)

SEOUL AI STRA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인쇄	2024년 12월 2일
발행	2024년 12월 10일
발행처	서울 AI 허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이메일	info@seoulaihub.kr
사이트	www.seoulaihub.kr

도서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IT조선
원고 집필	이윤정, 조상록, 홍주연, 김홍찬
편집	김유정
디자인	유동숙